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강옥련

2012년 12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지도교수 박 태 수

강 옥 련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강옥련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12월

Development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Tae-Soo Park

Ok-Yeon Kang

A thesis submitted for doctorate of education

2012.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강 옥 련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의 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는 타당한가?

2-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2-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유발한다고 추론되는 41개의 내용들을 추출한 후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갈등소재와 표출형태에 따라 자녀행동-부모역할 차원, 사고-정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전국 부모 797명의 경험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12개의 갈등내용에 대하여 146개의 최초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02문항을 선정, 다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과 전국 6개 지역의 부모 128명 대상의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예비문항을 82문항으로 확정하였다.

82문항에 대해 전국 7개 지역의 부모 670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문항검토 결과

50문항을 추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녀교육방식, 자녀교육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지원행위의 4개 요인을 얻어, 총 44문항을 선발하였다. 전국 9개 지역의 부모 44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요인별 측정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6문항을 추가로 제거하였고, 4요인 28문항 5점 Likert 척도의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가 최종 개발되었다. 개발된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표준화된 검사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에 대한 구성요인으로, ‘자녀교육방식’, ‘자녀교육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지원행위’의 4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들 4개 요인을 바탕으로 2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셋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는 자녀교육방식 .94, 자녀교육내용 .88, 협력적 자녀교육 .89, 사교육지원행위 .86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개념신뢰도값과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통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다섯째, 자녀양육갈등 척도, 자녀불만족 척도,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와의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요인들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여 자녀를 둘러싼 부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자기 각성도를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수준에 따른 효과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자녀교육에 관해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자녀교육에 관해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임상적으로 유용한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즉 이 척도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해줄 수 있는지,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시사해줄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척도의 타당성을 견고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좀 더 일반화되기 위해 척도의 보완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자녀교육, 부부갈등, 척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9
1. 자녀교육	9
2. 부부갈등	26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34
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 탐색	35
III.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48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개발 절차	48
2. 구성요인 선정	54
3. 예비 척도 시안 작성	57
4. 예비 척도 검증	58
5. 본 검사	60
6.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77
IV. 논의 및 결론	92
1. 논의	92
2. 요약 및 결론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25

부록 129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지..... 130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131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최초 146문항 134

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1차 예비 문항(102문항)..... 142

5. 1차 예비 문항에 대한 전문가 내용평정 결과..... 149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최종 예비 문항(82문항)..... 154

7. 사전검사 분석 결과..... 159

8.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지..... 162

9.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50문항..... 170

10. 50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74

1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44문항 178

12. 44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81

1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
..... 185

1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190

표 목 차

표 1. 국내의 자녀교육관련 척도의 하위요인	25
표 2. 부모-자녀갈등 내용	38
표 3. 자녀교육내용에 대한 학자별 견해	39
표 4. 자녀교육에 관한 자녀행동 차원의 부부갈등 내용	40
표 5. 자녀교육방식에 대한 학자별 견해	42
표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역할 차원의 부부갈등 내용	46
표 7.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48
표 8. 국내 부모·자녀교육관련 선행연구의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50
표 9. 최종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 구조	61
표 10.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670)	63
표 11. KMO와 Bartlett의 검정	64
표 12. 44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7
표 13. 1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69
표 14. 1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70
표 15. 1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신뢰도	70
표 16.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444)	72
표 17.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N=444)	74
표 18. 2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별 문항수, 문항번호	74
표 19. 2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75
표 20.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최종 28문항	75
표 21. 최종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신뢰도	77
표 22. 최종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78
표 2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적합도 지수(N=444)	81

표 2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단일차원성 평가(N=444)	83
표 25.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타당성 평가 결과.....	87
표 26. 자녀양육갈등 척도(CCR), 자녀불만족 척도(DSR)와의 상관(N=444).....	89
표 27.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와의 상관(N=444).....	90

그림 목 차

그림 1. 부모와 자녀사이의 삼각관계.....	18
그림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의 2차원 모형.....	47
그림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절차.....	54
그림 4. 50문항 스크리 도표.....	66
그림 5. 44문항 스크리 도표.....	67
그림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경로 모형.....	8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 이후 아동·청소년기를 지내는 동안 의존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성숙한 인격과 지혜를 구비한 성인으로 자라간다. 이 때 자녀가 그 과정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막중한 책임임과 동시에 부모가 갖는 최대의 특권이다. 전통사회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가정교육을 중요시하여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고,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이 최고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고의 교사임을 강조하였다(강종환, 1974)

그러나 이러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들은 힘과 통제 상실, 신뢰의 문제,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된 문제를 겪으며(강문희, 박 경, 강혜련, 김혜련, 2011), 자녀의 행동변화가 전체 가족체계의 변화와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부모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 2008).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불일치는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Stanley, Markman, & Whitton, 2002).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자녀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이경희, 1999; 이희백, 2009; 최규련, 2001; Ataca & Berry, 2002; Betcher & Macauley, 1990; Gottman & Nan Silver, 1999), 특히 부부갈등의 원인이 자녀에게 있을 경우, 자녀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며(Grych & Fincham, 1992),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나 행동이 변하게 되고, 이는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최선윤, 2008)는 보고가 있다.

실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의 여성가족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는 원인 중 자녀교육문제가 3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싸움 후에는 상대방 대신 자녀를 야단치는 경우도 20.5%에 미치고 있었다.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교육 명목으로 자녀를 심하게 학대하고, 자녀교육관이 다른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의 사실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아내)에게 있음을 인정·원고(남편)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2011. 9. 21)을 내린 바 있다(매일경제 Citylife 제304호, 2011. 11. 29). 이와 같은 보고들은 자녀교육 문제로 겪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은 결혼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권정혜, 채규만, 1999; 김효민, 2010; Cui & Donnellan, 2009)되고 있다. 특히 중년기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춘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증가, 자녀양육 요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김미령, 2009), 이러한 자녀문제는 부부간의 애정표현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도 갈등을 일으켜 전반적인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위협하게 된다(권정혜, 채규만, 1999).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도전들을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부모교육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부모 자신의 자녀교육관을 돌아보고 자녀와의 대화방법을 익히는 등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해나가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강조함으로써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호준, 2006). 즉 부모-자녀의 직접적인 관계 향상에 치중하다 보니 자녀를 바라보는 부부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녀교육은 자녀의 발달을 증진시키려는 부모의 일련의 행위와 부모간 상호작용의 연속이다(Brooks, 2001).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이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부부관계 등의 전반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지는 것이기 때문에(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부의 협력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아버지의 양육변인들에 대한 관심(고선화, 2006; 김정주, 2010, 박은선, 이재창, 2009; 황정혜, 2003; McBride, 1989)이 높아지고, 부부 공동양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김은혜, 2009; 이영환, 2008; Feinberg, Kan, & Hetherington, 2007; Feinberg, Brown, & Kan,

2011; Gable, Crnic & Belsky, 1994; Margolin, Gordis, & John, 2001; McHale, 1997; McConnell & Kerig, 2002)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은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녀교육문제를 부부의 상호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특히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독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부의 역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부부의 조화로운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서 자녀교육문제를 바라보는 부부 서로간의 가치, 입장 등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부가 개별적이 아닌 상호공통적 식견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중심 보다는 자녀중심의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자녀교육으로 인한 부부갈등에 대한 학문적 시도는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여겨진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부모 및 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진 부모의 양육관련변인은 가치관, 양육행동, 양육태도,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역할수행,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등이며, 특히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문혁준, 2008). 또한 과거의 포괄적이고 특성을 규정짓는 양육유형에서 벗어나 온정, 반응, 관여, 지지 등과 같은 양육행동의 더 많은 개별 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지기 보다는 가족체계 안에서 개인의 지능, 역할 및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문혁준,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갈등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한편, 자녀교육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는 초기에는 대부분 외국척도를 번안·타당화하여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개발하여 사용하다가(이원영, 1983),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척도들이 개발되기(박성연, 이숙, 1990; 안지영, 2001; 임정하, 2003; 허묘연, 2000) 시작하였다. 자녀 보고형의 부모의 양

육관련변인을 측정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며(박은희, 2003; 임정하, 2003; 정은영, 2008; 조용주, 2010; 허묘연, 2000, 2004),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들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박은희, 2003; 박현진, 2009; 윤지영, 2008; 정은영, 2008; 조용주, 2010; 현미숙, 2003)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 도구 개발(김희화, 2005; 임정하, 2003; 최인재, 2007)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기대, 헌신의 문화가 서구 문화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부모-자녀관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밀착된 관계라는 점이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들은 그 요인들이 대부분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존의 부모 양육태도 요인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부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부부 공동양육관계 속에서 측정됨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과 관련된 기존 척도 중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의 도구는 권정혜, 채규만(1998)의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MSI)의 14개 척도 중 자녀양육갈등 척도(CCR)이다. 이 척도는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부족,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의 불일치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정혜, 채규만(1999)의 타당화 연구에서 이혼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의 자녀양육갈등이 높게 나타났고, 김민녀(2004)의 연구에서는 50대가 30대보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더 높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현숙(1999)은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자녀양육갈등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전후 의미있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 이 도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하위 영역으로 부부의 전반적인 자녀양육갈등 수준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녀양육갈등에 대한 구성개념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관리나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또한 시기적인 면에서도 원척도가 개발된 지 30년 이상이나 되었고, 우리나라 실정에 번안·수정하여 표준화한 지도 10여년이 지나,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겪는 복잡하고 다양한 자녀교육갈등 양상

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Cui와 Donnellan(2009)은 4년간의 종단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경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체벌과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부간 불일치 빈도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불일치 빈도를 총 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부모의 자녀양육갈등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유사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몇 가지 문항들을 추출해서 구성한 것으로, 불일치의 빈도에 국한하여 갈등을 측정하려 했다는 점과 타당도 검증없이 일회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부부갈등 척도들은 부부갈등의 하위 영역으로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을 측정하였다. 외국에서 개발된 부부갈등 척도로는 Center for Human Resources Research(2000)에서 개발한 MCS(Marital Conflict Scale)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과 조화, 자녀양육, 소비생활, 애정표현, 종교생활, 여가생활, 음주 등에 대한 문항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lores(2008)의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나,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문항은 1문항에 불과하여 자녀문제가 부부갈등 내용으로만 다루지는데 그쳤다. 한편 국내에서 최규련(1995)이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는 성격차이, 성생활, 대화문제, 처가와의 관계, 경제문제, 자녀지도, 남편(아내)의 나쁜 습관, 본가(시가)와의 관계의 8개의 갈등영역에서 부부의 갈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며, 이종원(2002)이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에서 일부 영역을 통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경희(1999)는 최규련(1995)의 척도를 개인적 갈등, 부부관계적 갈등, 공동생활갈등, 제삼자 갈등의 4개 영역 2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제삼자 갈등 영역에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2문항을 포함시켰다. 이경희(1999)가 재구성한 부부갈등 척도를 김경미(2009)는 20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하면서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 문항을 1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여인동(2001)은 기존의 국내외 부부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갈등 내용을 정리한 후 그 중에서 일반적인 부부갈등 내용들을 선별하여 내용타당도 검증과 선행연구의 요인분석 및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정하여 4차원 8영역의 부부갈등 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36문항 중 5문항이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을 측정하며, 서정숙(2010)의 연구에서 32문항이 활용되었고 그 중 3문항

으로 자녀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척도들을 사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교육문제가 부부갈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그 결과를 통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상호협력과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양육 척도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 상호간의 갈등적 요소보다는 부부간의 공동양육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McHale 과 그의 동료들인 Kuersten-Hogan, Lauretti와 Rasmussen(2000)이 개발한 부부 공동양육 척도(Coparenting Scale)는 가족통합, 갈등, 비난, 훈육의 4요인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의 7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김수진(2001)이 주관식 5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 애정적 부-모간 양육행동, 통합적 부-모간 양육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사용하였고, 이후 김은혜(2009)의 연구에서는 5, 6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부 공동양육 척도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갈등적 부-모간 양육행동은 부부가 함께 자녀와 함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 쪽 부모와만 함께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나 그 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 부부간의 갈등을 자녀에게 나타내는 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자녀양육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은 1문항에 불과하다. 또한 Van Egeren과 Hawkins(2004)가 개발한 부부 공동양육 척도(Coparenting Scale)는 부부 공동양육 일치, 부부 공동양육 지지, 비난적 부부 공동양육, 공유된 양육의 4요인 4점 리커트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errifield(2009)가 지지적 공동양육, 비난적 공동양육의 2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박익새(2012)가 번안하여 2명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지적 공동양육, 비난적 공동양육의 2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지지적 공동양육은 배우자가 양육에 대해 얼마나 공유하고 지지해준다고 느끼는지, 양육문제에 대해 배우자와 얼마나 동의하는지, 양육경험이 부부를 하나의 팀으로 느끼게 해주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비난적 공동양육은 배우자가 양육에 대해 자신을 얼마나 비난하고 폄하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즉 배우자의 공동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경험하는 갈등 수준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최근 Feinberg와 그의 동료 Brown, Kan(2011)이 함께 개발한 공동양육관계 척도(CRS:Coparenting Relation Scale)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공동양육의 일치성, 친근감, 갈등표출, 공동양육지원, 공동양육약화, 배우자의 부모역할지지, 역할분담을 측정한다.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수정하여 타당성을 입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국내에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부모는 자기각성을 통해 자녀를 만날 때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박태수, 1995)는 점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일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교육문제를 둘러싼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자각을 돕고, 나아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부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부부가 조화롭게 부모역할을 감당하여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는 타당한가?

2-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2-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교육

본 연구에서 자녀교육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나. 갈등

갈등이란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 욕구, 태도, 가치, 기대 등이 존재하여 서로간에 충돌을 일으킬 때 경험하는 긴장상태이다.

다.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부부간에 대립되는 욕구, 태도, 가치, 기대 등으로 인하여 각자 혹은 부부 양쪽이 경험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라. 갈등 지각

갈등 지각이란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이 표출되는 양상을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자녀교육과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탐색할 것이다.

1. 자녀교육

가. 개념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자녀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흔히 가정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 중에서도 인간 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가치관, 태도, 도덕관념을 자녀에게 함양하는 일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위키피디아). 박만구 외(2009)는 가정교육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지도하고 돕는 교육형태로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산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녀교육이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가르침에 있어서 그 사회가 요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활 태도를 갖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우영희, 1993). 즉 자녀교육이란 자녀를 교육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일깨워주고 설명해주면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Galinsky, 1987),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 대한 감독을 통해 적절한 교육적 지도를 수행해야 한다(Barber, 1996). 자녀교육은 가정에서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보완하고,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자녀교육을 부모들은 학교나 지역사회, 국가에 기대한다. 즉 올바른 자녀교육은 자녀의 욕구와 자

발적인 행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이다(박명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녀교육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지나칠 위험성이 있으며(정성란, 2011),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자녀를 키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자녀관이나 역할, 역할기대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자녀관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통제하고 안내를 해야 하는 존재로 본 반면, 현대의 부모들은 자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보고 부모는 이를 돕는 자로 보는 경향이 일고 있다(이병래, 엄은나, 2008; 한남제, 1985).

또한 아버지는 거칠고 어머니는 부드러우며,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양육적인 전통적 역할구분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11). 전통적인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역할 분담이 가족 내에서 성(性)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성과 여성의 두 역할이 상호보완되어 가족의 기능이 원활해진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상보적인 것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부권이 점차 약화되어 아버지의 권위나 위엄, 가족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자애로운 역할만 높게 수행하는 자부자모(慈父慈母)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호, 윤종희 외, 1996). 이와 함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도 약화되어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통제가 어렵고,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개입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현대적 역할관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상호작용적 역할이론 관점에서는 가족구성원 어느 누구나 다른 위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남녀의 역할을 교환할 수 있다(양명숙, 1994). 어머니의 사회진출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는 주로 가정 밖의 전문기관에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정성란, 2011), 지금까지 어머니의 역할로 기

대되었던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와 가사일을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감당하는 평등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뚜렷한 역할구분보다는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가치관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이선미, 전귀연, 2001)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여성이 육아와 가사일을 하는 비중은 남성의 7.8배나 달하고 있어 아직까지 육아나 집안일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 되고 있다(김미령, 2009). 즉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주로 전담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머니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희생적이며 자녀들에게 유교적 규범을 통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최상진, 1994). 특히 유교문화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모성성으로 인해 현대 가정의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윤경(2011)은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은 감정적으로 친밀한, 자녀들에게 잘 반응하는, 다정한 아버지를 이상적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부모의 세대에 따라 자녀교육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좀 더 바람직하고 타당한 가치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과 역할 기대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내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성란, 2011). 따라서 사회적인 가치와 가정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자녀교육 관련 변인

자녀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변인들은 가치관, 양육행동, 양육태도,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역할수행,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등이다(문혁준, 2008). 또한 근래 들어 부부 공동양육, 부모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녀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모 변인으로 자녀교육관, 양육태도, 부부 공동양육, 교육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자녀교육관

교육관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 교육목적과 내용, 방법 그리고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보는 표준 또는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의 체계이다(김영찬, 1976). 또한 자녀교육관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며, 일련의 가치관을 의미한다(최미경, 박성연, 1991; 이원영, 1983; 안혜준, 송승민, 2007).

Goodnow(1988)와 Sigel(1985)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부모의 내면적 심리구조를 지적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간의 표면적인 상호작용 이외에 부모의 행동을 낳게 하는 인지적이고 정신적인 관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녀교육에 대해 부모가 가진 가치체계는 부모-자녀간의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며(이원영, 1983), 이러한 사실은 자녀교육관이 자녀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초기에는 부모의 양육신념, 자녀교육관의 내용 자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강신임, 1991; 김경혜, 1994; 김영수, 1984; 김종래, 1986), 점점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고윤희, 2001; 김성옥, 1994; 김순덕, 1991; 안지영, 2001; 이정희, 1986)가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신념이 자녀의 자아회복력, 자기조절능력, 스트레스, 사회적 행동, 창의성, 사회적 유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들(김민정, 2007; 김은지, 2002; 권주원, 2003; 문성진, 2008; 손경화, 2001; 이태희, 2004; 임경령, 2006; 정민자, 2005)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양육신념과 자녀의 조기교육, 사교육 경험이나 실태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소현, 2009; 이정순, 2007; 정미선, 2008)이 등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러한 부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 완벽주의, 자아개념 등이 어머니의 양육신념 혹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송아람, 2006; 양정하, 2010; 유현숙, 2006; 최향숙, 2011) 있다.

이원영(1983)은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는 부모, 교사 등의 성인들이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일련의 가치관을 자녀교육관으로 보고, 유아중심교육관과 성인중심교육관의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유아중심교육관에서는 자녀를 출생시부터 능력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해낼 수 능력을 가진 존재이며 성장에 의해 발달하는 존재로 본다. 유아중심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하며 상호작용 및 적응을 중시하고, 자녀의 발달 속도에 맞는 교육방법을 적용한다. 반면에 성인중심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자녀를 통제하고 안내하며 결과적 성취를 중요시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성인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이원영, 1983; 최미경, 박성연, 199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중심적인 경향이 있다(박홍선, 1998; 김석현, 2006)는 보고도 있다. 또한 오혜진과 주정란(2004)은 세대간 자녀교육관을 비교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교육관이 성인중심적 교육관에서 자녀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문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자녀교육에 반영하며, 자녀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자녀교육의 성공을 평가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McGillicuddy-De Lisi, 1985).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계층, 직업, 그리고 자녀의 성이나 연령, 출생순위 등이며(이원영, 1983; 최미경, 박성연, 1991; 안지영, 2001),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도 어머니들의 자녀교육관이 변화할 수 있다(최미경, 박성연, 1991). 즉 어머니가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부모교육이 자녀발달상의 문제를 보다 더 이해하게 하고 자녀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안지영(2001)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목표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신념으로서, 인성 강조 신념과 지적성취 강조 신념, 성숙주의 신념과 환경주의 신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성 강조 신념은 자녀의 발달 목표로서 인성을 중시하며, 자녀의 흥미와 경험을 존중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인 반면, 지적 성취 강조 신념은 자녀의 성취와 결과를 중시하는 신념이다. 성숙주의 신념은 자녀의 발달은 생물학적으로 준비되거나 성숙한 후에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발달에서 안내자나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반면, 환경주의 신념은 환경이나 학습, 경험에 의해 발달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발달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신념이다. 안지영

(2001)의 보고에 의하면, 2~3세 자녀의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지적 성취보다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부모의 영향을 더 중시하는 환경주의 신념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양육행동을 덜 하고, 자녀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성숙주의에 가까울수록 더 자율을 격려하거나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내었다(안지영, 2001). 이윤미(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이 성인중심적일수록 적대적, 무관심,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였고, 그 자녀들은 자기효능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정민자(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 발달을 중시하고 유아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아의 창의적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내재적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확산적 사고에 대한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창의적 사고수준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신념, 창의적 특성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보다 유아의 창의적 인성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미자(2008)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자녀교육과 양육신념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가 어린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여러 모로 어려움을 느꼈고,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보다는 높은 연령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한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성장 후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인생관이나 가치관 등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성인중심적이고 지적 성취를 강조하며 부모의 영향을 중시하는 부모는 자녀교육 상황에서 자녀의 관심과 흥미보다는 부모의 생각, 체면,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해 자녀의 성취에 중점을 두고 자녀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반면에 자녀중심적이고 인성을 강조하며 유전적인 영향을 중시하는 부모는 자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취보다는 인성을 중시하고 자녀교육내용에 융통성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따라 자녀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부부가 서로의 자녀교육관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자녀교육에 대한 공통적 식견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2)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국립특수교육원, 2009)으로 흔히 양육행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Fishbein과 Ajze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허철수, 2003).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신분석학 이론을 적용하여 최초로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거부적-수용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요인축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였다. 지배적 태도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적 태도는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분류하고, 복종적 태도는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적 태도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된다. Symonds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 지배적이지도 않으며, 과잉보호도 아니고 지나친 복종을 강요하지 않으며 중간 정도의 양육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Symonds의 이론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이라면, Schaefer(1959)의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두 차원 원형 모형은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발달을 중단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율-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적대-자율 사이의 방임형과 애정-통제 사이의 익애형이 대조를 이룬다. Baumrind(1971)는 양육태도 유형을 권위주의적 태도, 민주적 태도, 허용적 태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권위주의적 태도는 규칙이나 논리적인 설명없이 복종을 강요하는 태도이고, 민주적 태도는 통제를 가하면서 자녀에게 온정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요구하는 태도이다. 허용적 태도는 자녀에게 통제를 가하지 않고 성숙한 태도도 요구하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자녀를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는 태도이다. Rohner와 Rohner(1981)는 세계 186개 사회의 부모 양육태도를 분석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를 승인해주고 칭찬 및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특성인 애정차원과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통제차원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기정(1984)은 자아개념의 고양 또는 손상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일치-불일치의 네 영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수용, 자율, 비과잉, 일치는 성장촉진적 태도로, 거부, 통제, 과잉, 불일치를 성장억제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즉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자녀에게 항상 성공과 좋은 성적을 성취하기만을 기대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부부간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에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고 항상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부부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녀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숙(1991)은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허묘연(2000)은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가지 요인을 제시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격, 가족의 구성,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부모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 자녀의 특성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용돈관리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는(채정애, 1983)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자녀관계 유형을 파악하는데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부부 공동양육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아버지의 양육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아버지의 양육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연구(허선자, 1992)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

육스트레스, 역할갈등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유능감, 역할지각(김기현, 1998; 서혜영, 1999; 조선희, 1998), 부성 경험(황정혜, 2003)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관심들은 부부 공동양육에 관한 연구들을 탄생시켰는데 국내에서는 김수진(2001)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은혜(2009), 박익새(2012)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부 공동양육(Coparenting)이란 용어는 Minuchin(1974)이 “가족 구조 안에서 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고 가족 통솔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김수진(2001)이 처음으로 ‘Coparenting’을 부-모간 양육행동으로 번역하여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Feinberg(2002)는 부부 공동양육을 부모가 함께 부모역할을 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양육동맹(parenting alliance)’이란 용어로 사용(Cohen & Weissman, 1984;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Hughes, Gordon, & Gaertner, 2004)하기도 하고, ‘양육 파트너십(parenting partnership)’(Floyd & Zmich, 1991)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부부 공동양육이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서로의 신념, 가치, 정서, 참여 등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법으로, 부모의 자녀양육문제 뿐만 아니라 한 쪽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를 지지하거나 방해하는 노력들을 포함한다(McHale, 1997; Margolin, Gordis, & John, 2001). 이는 가족체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서로를 얼마나 지지하는가의 정도로서, 지지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면과 동시에 심리적인 면을 포함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배우자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McHale, Rao, & Krasnow, 2000). 즉 부부 공동양육은 2자 관계(부-자 혹은 모-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3자 관계(부-모-자)의 상호작용에 기초하며, 부부는 자녀와 연결된 3자 관계에 있을 때 부모로서의 연결고리를 갖게 됨을 강조한다.

Kyle과 Marsha(2009)는 다음과 같은 삼각관계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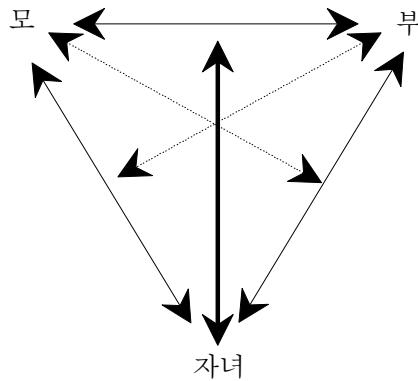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와 자녀사이의 삼각관계(Kyle & Marsha, 2009, 정미나 역, p. 84)

그림 1의 삼각관계의 통행로 가운데 가장 분주한 길은 부부 사이에 이어진 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양방향 통행로는 이 하나만이 아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이어져 있다. 또한 점선은 어머니는 부자관계에, 아버지는 모자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위 그림에서 굵은 선은 통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선, 즉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Kyle & Marsha, 2009).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교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부부의 공동 관심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희정, 1995; 최경순, 1990; Bronsfbrenner, 1976)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문화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모성성으로 인해 현대 가정의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최상진, 1994). 이민자(2008)는 남편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배우자가 상호간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며(이진선, 정문자, 2007; Lewis, Owen, & Cox, 1988), 자녀교육에 있어 부부갈등이 많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거부적·적대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난다(이진선, 정문자, 2007; Krishnakumar & Buehler, 2000; Olweus, 1980). 또한 부부 공동양육과 부부관계

의 결과의 연관성을 보면, 부부 공동양육에 있어 갈등과 비난은 결혼만족도와도 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McHale, 1997), 부모의 부부관계가 일치되고 만족할수록 부부 공동양육에 있어서 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2001).

성공적인 공동양육관계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McHale, Khazan, Erera, Rotman, DeCoursey & McConnell, 2002), 심지어는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도 도움을 준다(Ahrons, 1993). 또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돕고(Carlson, McLanahan, & Brooks-Gunn, 2008), 자녀의 행동, 학업성취, 정신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갈등을 약화시키는(Maccoby & Mnookin, 1992)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부 공동양육은 자녀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McHale & Rasmussen, 1998), 부부가 배우자의 양육을 지지하느냐 비난하느냐에 따라라도 자녀의 억제 성향이 영향을 받는(Belsky, Putnam, & Crnic, 1996)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부모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며, 지지적인 상호작용이 신념과 목표의 상호조화를 중요시하는 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Gable, Crnic, & Belsky, 1994). 김은혜(2009)는 애정적·통합적이고 지지적인 부부 공동양육을 할 때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부부갈등이 높고 갈등적 부부 공동양육을 할 때 불안정·부정적 정서를 높여 정서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는 자녀교육의 파트너로서 자녀에게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일치된 양육태도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야 한다(유명희, 2010; 정지은, 김민태, 2011; 하수경, 2005).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쓰며, 자녀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관여를 가치있게 여기고, 양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 때 부부 공동양육은 잘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도혜숙, 1997).

4) 교육지원활동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행동에 관한 의미를 이해하고 만들어 내는 방법은 한 문화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것이다. 부모는 특정 문화 내에 존재하면서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들과 신념을 공유하면서도(Sigel, 1985), 문화가 변화하거나 부모역할 과정 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부모역할은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므로(김명혜, 2006)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기준의 영향도 받게 된다(정옥분, 정순화, 2011).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부모의 교육지원행동은 부모가 가정 및 학교에서 자녀의 공부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문은식, 김충희, 2003; Epstein, 1995; Fanuzzo, Tighe, & Childs, 2000), 자녀의 학업성취,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문은식, 김충희, 2003; Fan & Chen, 2001; Ramsey, 2004). 이경숙(2009)은 부모의 자녀 학업지원활동을 시간과 환경 통제에 중점을 두는 외부적 지원과 자녀의 학업적 특성과 학업내용 통제에 중점을 두는 내부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지원은 주로 부모의 기준에 의해 일방적 지원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내부적 지원은 자녀와의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서 자녀의 학업진도와 내용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들의 학업지원활동은 외부적 지원과 내부적 지원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매니저형과 모방형, 적당형과 성찰형으로 유형화된다. 매니저형과 모방형의 교육신념은 ‘부모하기 나름’, 즉 부모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고, 성찰형과 적당형의 교육신념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하기 나름’, 즉 자녀의 학습능력의 일정부분은 타고나며 부모의 의도대로만 자녀의 학업환경을 조성해서는 자녀의 학업능력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녀의 발달과 필요를 ‘관망’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이경숙, 2009).

변윤연과 이광호(2009)는 한국엄마의 자녀교육에 대해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림자교육이란 한국엄마들이 자녀교육을 함에 있어서 제도권의 학교교육을 둘러싼 보충적이고도 보완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한국엄마 그림자교육의 정체성은 한국엄마-청소년 자녀의 관계 속

에서 규명되는데, 자녀는 엄마의 우상이자 페르조나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림자교육의 지향성은 한국엄마-청소년 자녀관계가 일상의 교육실천에서 자녀를 위한 발판의 그림자, 돌봄의 그림자, 합의의 그림자의 흐름을 드러내었다(변윤연, 이광호, 2009). 그림자교육으로 존재했던 한국엄마의 보충적·보완적 교육방식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교육제도와 밀착된 형태가 바로 사교육이라는 것이다. 사실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하던 사교육은 학교교육과 동등한 선상에서 부모들의 교육지원 대상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현실적으로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강한 지원열은 정당한 것이고 불안정한 교육현실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서 합리화되고 있다(오경희, 2008).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자녀교육목적 또는 신념, 학업지원행위 등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문화를 조명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고교생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성취지향적 능력을 중간 정도로 중시하고, 이에 이어 내향적 인성지향능력이 가장 덜 중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문희, 윤지영, 2002). 이경숙, 김종혁, 손종현, 윤선진(2010)은 자녀교육과 구속적 가족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은 가족 삶의 제1의 가치이며, 가족 전체의 일상생활은 사교육 전략에 따라 조정되고, 학부모로서 일상생활은 자녀공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오경희(2008)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통해서 학부모 문화 속의 교육적 인식과 대응방식을 재조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부모들은 현 교육에 대해 모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자녀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고 이러한 특성은 하나의 사회적 질서로서 학부모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성취지향적 태도가 실제적인 학업향상을 가져오는 데는 부모의 높은 수준의 교육지원행동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 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일정부분 관여하고 있었다(추상엽, 임성문, 2008). 이 외에도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업지원활동의 유형이나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경숙, 2009; 홍금초, 2005)와 중·고교생 부모의 자녀교육목적과 가정환경 지각에 대한 연구(강문희, 윤지영, 2002), 유아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송명숙, 옥선화, 2005) 등이

진행되었다.

다. 국내 자녀교육관련 척도

그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녀교육에 관한 척도들은 외국의 도구들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수정한 도구로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의 자녀교육 양상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김광웅, 문수경, 2005; 이원영, 1983; 최인재, 2007; 허묘연, 2000)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형 도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들(김희화, 2005; 박은희, 2003; 임정하, 2003; 정은영, 2008; 최인재, 2007; 허묘연, 2000)이 계속되고 있다.

안지영(2001)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목표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신념을 객관화 된 수치로 측정하고자 자녀양육신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목표로서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인지, 그리고 자녀가 전체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성숙의 영향력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지를 측정한다.

박은희(2003)는 자녀에 대한 부모 기대의 본질을 신체, 인지, 사회적 영역의 세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신체적 영역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 신체적 유능성, 생활습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인지적 영역에서는 자녀의 지적 유능성과 창의성을 기대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자녀의 도덕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임정하(2003)는 한국형 양육행동을 불신, 존중, 가르침, 관심으로 요약하고 30 문항의 한국형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의 일부는 공통적이거나, 일부는 아버지 역할 고유의 또는 어머니 역할 고유의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 양육행동 특성은 ‘엄한’ 아버지상과 관련 되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특성은 ‘자애로운’ 어머니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가르침’이라는 양육특성은 서구 양육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개념으로, 한국의 자녀양육에서 ‘가르침’은 전통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현대 가정의 양육에서도 핵심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허묘연(2000)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자녀의 관점에서 측정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이나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양육행동 척도들에서 구성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높은 기대’와 ‘권위주의’의 양육행동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나 지적인 열망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 요인을 포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방치, 비밀관성의 8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희화(2005)는 아버지와 자녀간에 이뤄지는 직접적 상호활동 내용과 그 정도에 관심을 두고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가생활, 정보제공, 훈육, 학업지원, 전통전수, 물적지원, 일상생활 영역에서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송명숙, 옥선화(2005)는 학업관련 자녀교육에 관한 어머니 신념을 학습에 대한 신념, 교수방법에 대한 신념,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유아의 학습에 대한 신념 요인은 어머니가 유아의 학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지를 측정하며, 교수방법에 대한 신념요인으로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본 학업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지시적 교수방법이 적절하다고 믿는 정도를 파악한다. 자녀의 교육 성취에 대한 기대요인으로 유아기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기본 학습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지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부모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서 학업에 관련된 자녀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인재(2007)의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느끼는 측은감, 죄송스러움, 효 의식, 그리고 희생과 헌신, 혈육의식, 동일체감, 안쓰러움 등과 같은 지극히 한국적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서구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친밀이라는 변인 외에 한국적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헌신, 존경, 엄격이라는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윤지영(2008)은 기존의 부모양육행동에서 확장된 개념인 부모 리더십을 제시하

였다. 부모-자녀 상호관계에서 발휘되는 리더십 영역을 양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부모 리더십을 역할지향적, 관계지향적, 과업지향적인 3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역할지향적인 부모 리더십은 ‘부모의 정체성’과 ‘모델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관계지향적 부모 리더십은 ‘개인적 배려’, ‘의사소통’, ‘영감적 격려’로, 과업지향적 부모 리더십은 ‘목표설정’, ‘지적자극’ 요인을 포함하였다.

정은영(2008)은 우리나라 사회현상과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보호의 추상적 개념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개념으로 구성된 과보호 척도를 제작하였다. 우리 문화의 특수성인 부모 자녀 일체감이나 지나친 교육열 등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며 과보호의 차원을 확대시켜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과보호는 주로 애정이나 거부, 자율과 통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과보호를 일반적 양육태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과잉기대나 투사적 과보호, 자녀분리 불안 등의 요인들을 통제와 함께 과보호 척도의 구성요인으로 포함시켰으며, 특히 부모의 과잉기대로 인한 과보호가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한 사회부적응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과잉기대를 과보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청소년 자녀들의 시험불안,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청소년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과보호의 영향력은 상당히 큼을 입증하였다.

조용주(2010)는 부모 공감의 양육과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 공감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부모 공감의 구성요인을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정서반응의 5가지 요인으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기에의 좋은 예측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선희(2012)는 기존에 개발된 양육행동 척도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토대로 양육행동의 유형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유형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차원 중 기존에 밝혀진 온정 및 통제 외에 방임 차원을 포함하였고, 통제를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통합적인 양육행동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여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자녀교육관련 척도들의 하위요인들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의 자녀교육관련 척도의 하위요인

개발자	연도	척도 명칭(문항수)	요인	보고자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척도(43)	【8요인】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방치, 비밀관성	자녀
안지영	2001	자녀양육신념척도(32)	【3영역】 인성/지적성취 강조, 전체/개인주의, 성숙주의/환경주의 영역	모
박은희	2003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62)	【3차원 7요인】 신체적 역량기대(건강, 신체적유능성, 생활습관) 인지적 역량기대(지적 유능성, 창의성) 사회적 역량기대(도덕성, 사회적 유능성)	모 자녀
임정하	2003	한국형 양육행동척도((30)	【4요인】 불신, 존중, 가르침, 관심	부, 모, 자녀
현미숙	2003	부모역할지능척도(44)	【3차원 9요인】 양육역할(수용, 거부, 공감, 스트레스) 관리역할(융통성, 합리적 권위, 통제) 발달자극역할(격려, 증진)	부모
송명숙 옥선화	2005	유아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 신념척도(24)	【3요인】 유아의 학습에 대한 신념, 교수 방법에 대한 신념,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기대	모
김희화	2005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	【7요인】 여가생활, 정보제공, 훈육, 학업 지원, 전통전수, 물적지원, 일상생활	부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20/20)	【4요인】 친밀, 헌신, 존경, 엄격	부, 모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25)	【5요인】 과잉기대,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자녀분리불안	자녀
윤지영	2008	부모 리더십 척도(32)	【3차원 7요인】 역할지향적(부모 정체성, 모델링) 관계지향적(개인적 배려, 의사소통, 영감적 배려) 과업지향적(목표설정, 지적 자극)	부모

표 1. (계속) 국내의 자녀교육관련 척도의 하위요인

개발자	연도	척도 명칭(문항수)	요인	보고자
			【3영역 7요인】	
박현진	2009	역기능 양육 척도(36)	관심부족(모니터링의 부족, 무관심) 과보호(아이생활에 대한 불안, 독립성 막기) 강압적 통제(죄책감 유발, 기분에 따른 통제, 적대·거부)	부모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25)	【5요인】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	자녀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의 양육행동척도(45)	【5요인】 온정, 논리적 설명, 개입, 강압, 방임	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이루어진 국내의 자녀교육관련 척도들은 대부분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한 초점을 부모 변인에 두고 부-자 혹은 모-자의 2자 관계에 국한하여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요인들도 척도 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자녀교육을 부-자-모의 3자 관계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산물로 가정하고, 자녀문제를 둘러싼 부부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부부갈등

가. 갈등

갈등의 개념을 어의(語義) 차원에서 보면, 영어의 conflict(갈등)란 단어는 라틴어 ‘conflig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는 com(together)과 fligere(to strike)의 합성어이다(한국영어영문학회, 2006). 따라서 conflict는 con과 flict가 조합된 것으로, con은 together(함께)를 의미하며, flict는 strike(충돌하다)를 의미하여 conflict(갈등)는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 strike together(서로 충돌하다)는 뜻을 지니게 된다. 또한 한자상으로 葛藤(갈등)은 칩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칩과 등나무가 서로 엮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갈등이란 두 가지 이상의 동기가 서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욕구, 기회 혹은 목표에 당면했을 때의 대립을 의미한다(류경남, 최수정, 2006). 갈등은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이며(위키피디아), 모순이 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기·태도·가치·목적 등이 동시에 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모순되어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으로(두산백과), 두 개 이상의 대립하는 충동이 거의 같은 강도로 존재하면서, 긴장해소의 과정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중앙일보사, 1995).

갈등은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개념규정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갈등은 Lewin(1951)의 심리학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갈등이란 두 개 이상의 장(場)의 힘이 대립된 상태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두 가지 욕구의 대립을 의미한다(Lewin, 1951). 즉 심리적 공간 내에서 개인적 목표달성의 장애나 욕구좌절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Folger & Poole, 1984)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갈등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 첫 번째 유형은, 접근-접근(approach-approach)유형으로 두 개의 플러스의 유의성이 거의 같은 세기로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 즉 다같이 매력있는 목표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면 좋을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로, ‘+ ← 사람 → +’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접근-회피(approach-avoidance) 유형으로 두 개의 마이너스의 유의성이 거의 같은 세기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즉 ‘- → 사람 ← -’이다. 마지막 회피-회피(avoidance-avoidance) 유형은 플러스의 유의성이 동시에 마이너스의 유의성을 수반하는 경우이며, ‘±←→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Peterson(1983)에 의하면 갈등은 한 사람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을 방해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며, Berko, Rosenfeld와 Samovar(1997)는 갈등을 개인의 어떤 관심사나 욕구, 욕망, 바람에 대한 만족을 상대방이 좌절시키거나 좌절시킬지도 모른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갈등은 두 개 이상의 충동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이며(유

영주, 2002),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동기유발, 즉 개인 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반응적 경향이다(나태준, 박재희, 2004). 갈등은 인간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손인영(2006)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상호 배타적 충동, 동기, 추진력 혹은 사회적 요구로 겪는 정신적 싸움으로 보았다. Freud는 정신구조의 세 가지 부분, 즉 원욕, 자아 및 초자아는 항상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들의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부분으로 내면화되는 한, 원욕, 자아, 초자아 간에 내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불안을 일으킨다(Mischel, 1986)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그 주체에 따라 개인 내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내 갈등, 집단 간 갈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개인 내 갈등이란 개인 자신의 내적 갈등으로서 자신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겪는 갈등을 말하며, 개인 간 갈등은 개인과 개인 간의 인간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집단 내 갈등은 부서 간, 혹은 집단 간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며, 집단 간 갈등은 2개 이상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Robbins, 1986; Schermerhorn, Hunt, & Osbom, 1985).

이를 종합해볼 때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갈등의 선행 조건으로서, 상반되는 반응을 유발하는 외적 또는 내적 자극이 존재한다. 둘째, 외현된 행동은 경쟁적인 다른 반응경향의 간섭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동은 갈등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셋째, 갈등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거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갈등은 심리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넷째, 갈등적 반응경향이 있을 때 일어나는 외현적 행동은 반응경향의 상대적 힘, 상반성의 정도,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다섯째, 갈등은 대립적 행동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을 지각하고 긴장, 불안, 적대감 등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섯째, 갈등은 지각되어야 한다. 아무리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면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일치 자체가 곧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념, 소망, 요구, 목표, 행위를 부당하다고 인지할 때만 갈등을 유발하는(문용갑, 2011)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갈등이란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

나 욕구, 태도, 가치, 기대 등이 동시에 존재하여 서로간에 충돌을 일으킬 때 경험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나. 부부갈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각자 상이한 가치관과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 두 인격체가 만나 동일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미, 김일명, 2002). 지금까지의 심리학 관점에서 논의된 부부갈등에 대한 개념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갈등을 ‘불일치’ 혹은 ‘욕구의 대립’으로 보는 관점이다(김향숙, 1999; 양희정, 2000; 이영자, 장영애, 2002; Coleman, 1984; Donohue & Kolt, 1992; Smetana, 1989). 부부갈등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결과로서(이영자, 장영애, 2002)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 소속, 자유, 힘, 즐거움의 5가지 욕구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충되는 욕구들로 인하여 발생한다(김인자, 2000). 자녀양육, 가계, 가사분담, 휴가 등에 대해 부부가 서로 다른 태도나 철학을 가질 수 있고, 성격 차이, 관점의 차이 등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자기중심적 성격, 이기적인 편견, 경쟁 등에 의해 불일치가 일어날 때 부부 사이에 충돌과 증오가 발생하기 쉽다(Beck, 1988).

두 번째는 정서적인 긴장상태로 이해하는 관점이다(김갑숙, 1991; 민하영, 김경화, 2005; 이선미, 전귀연, 2001; Braker, 1996; Coser, 1956). 즉 부부갈등은 부부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Koerner & Jacobson, 1994),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불일치로 인해 겪게 되는 긴장과 갈등이다(이선미, 전귀연, 2001). Coser(1956)는 부부갈등을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부부 서로간의 자원의 차이와 기본 목표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오해나 상호이해의 결여와 같은 장애물로 인해 방해받는 어려움의 정도, 혹은 긴장으로 정의하였다.

세 번째는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으로(김영희, 정선영, 2007; 박경란,

이영숙, 2005; 한태숙, 2008), 부부갈등은 부부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겪는 긴장된 상호작용이다(박경란, 이영숙, 2005). 한태숙(2008)은 갈등을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부부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서 언어적·비언어적 폭력과 더불어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불일치와 정서적 긴장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이민식, 오경자, 2000; 최선운, 2008; Olsen & Braithwaite, 2004). 즉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다(이민식, 오경자, 2000). 최선운(2008)은 갈등을 부부간에 두 사람의 욕구나 목표가 상충될 때 그 불일치를 해결하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행사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윤아(2010)는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행동을 “배우자와의 의견대립상황에서 부부 사이에 부정적 정서와 긴장감을 상승시키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즉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은 부부간 의사소통행동에 있으며, 상대방의 부정적 메시지에 또 다른 부정적 메시지로 계속 반응하면서 부정적 감정이 재빨리 상승되는 것이므로(Arellano & Markman, 1995)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패턴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대화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Beck, 1988).

한편 부부갈등은 부부생활 중 어느 측면에서 한 사람 혹은 둘이 모두 불안을 갖게 되어 부부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그것이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송영자, 1986). 이러한 맥락에서 유영주(2002)는 부부갈등을 적응의 부적절 문제로 보았다. 즉 부부간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주부의 취업문제 및 가족문화의 계승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적응이 부부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Herrington, Mitchell, Castellani, Joseph와 Snyder(2008)는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까지 부부갈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부부간에 대립되는 욕구, 태도, 가치, 기대 등으로 인하여 각자 혹은 부부 양쪽이 경험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다. 갈등 지각과 표출

갈등의 수준이란 갈등상황과 관련된 행위 주체간 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갈등의 지표이다. 지나치게 많은 갈등과 너무 적은 갈등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적절한 갈등은 구성원에게 최선의 행동결과를 유발하게 된다(이영봉, 2011). 갈등의 수준이나 정도는 갈등의 징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갈등의 징후를 통해 갈등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낼 수 있다(김문영, 1997).

Galvin과 Brommel(1982)은 갈등의 표출형태에 따라 파괴적 갈등, 건설적 갈등, 미해결된 갈등으로 설명하였다. 모호한 파괴적 갈등은 의사소통 전략 중 부정, 취소, 대치, 이탈, 위선적 상호성의 하나에 속한다. 즉 ‘난 화나지 않았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와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갈등으로 인한 화, 분노, 짜증을 서서히 상대방에게 나타내거나(부정), 불만이나 화난 것을 표현한 후 누그러지는 것(취소), 자신의 분노나 화를 직접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강한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다른 출구를 찾는 것(대치), 상호간의 갈등을 표면상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서로를 회피하고 적대감으로 표현하는 것(이탈), 상호간에 갈등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잘 지내는 것(위선적 상호성)이다. 명백한 파괴적 갈등은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이 있는데, 언어적 공격은 논쟁, 언쟁, 말다툼, 잔소리, 의견충돌, 소리 지르기 등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갈등을 표출한다. 신체적 공격은 때리기, 물건 던지기, 차기, 괴롭히기 등 상대방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갈등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다.

Pondy(1967)는 갈등상황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잠재적 갈등 단계로 이 단계는 집단간 갈등의 기본조건 또는 원인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 자율성 추구, 부서목표의 차이로 구분된다. 둘째는 지각된 갈등단계로, 갈등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반드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은 인지를 통해 어느 정도 갈등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은 주어진 시간과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그 이상의 갈등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느껴진 갈등이다. 이 단계는 조직구성원들이 압력이나 또는 긴장상태에 있다고 느끼고 동시에 그들이 좌절감을 적절한 대상에 화풀이를 함으로써 긴장을

제거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갈등관계에서 구성원들이 이기주의화가 될 경우 갈등은 구체화되어 느껴진다. 넷째는 명백한 갈등단계로, 노골적인 갈등행위로 나타난다. 다섯째는 갈등여파 단계로 갈등에 직면해도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큼 관리되면 보다 협조적인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갈등이 단순히 억압만 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잠재적인 갈등상황이 공격적이 되거나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단계이다.

Pinkley(1990)는 갈등상황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차원은 관계 대 과업차원으로, 갈등을 인간관계상의 문제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관계에서 유발되었거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갈등을 과업상의 문제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금전이나 소유권 등과 같은 비인간적인 것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 차원은 감정 대 지적 차원이다. 갈등을 감정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갈등으로 인해 시기, 증오, 분노, 좌절, 고통, 배반감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지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갈등에 포함되어진 사고나 신념, 사실 등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마지막 차원은 승패 태 타협 차원으로, 갈등을 승패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혹은 어느 한쪽의 양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갈등상황을 파악한다. 반면, 갈등을 타협해야 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갈등이 당사자 모두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협이나 상호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traus(1979)는 가족간 갈등과 폭력에 대한 표출방법으로 이성적 방법, 말다툼, 폭력의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이성적 방법이란 논쟁할 때 토론, 언쟁, 이성 등 지성적인 접근을 할 때 나타나는 방법으로 조용히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나 다른 중재자를 구해 오는 것을 말한다. 말다툼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로 모욕주기, 욕하기, 심술부리기, 울기, 때리기, 위협하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폭력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밀거나 물건을 던지기, 때리기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청소년상담원(2006)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갈등에 대한 반응유형을 회피적 반응, 적대적 반응, 바람직한 반응으로 다루고 있다. 회피적 반응은

회피, 무시, 포기, 적대적 반응은 위협, 싸움, 폭력으로, 바람직한 반응은 경청, 이해, 해결로 나타난다. 회피적 반응이나 적대적 반응은 감정은 관계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바람직한 반응은 긍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관계가 더욱 발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부간에는 갈등을 일으킨 원래의 문제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갈등처리방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이 악화되거나 상승되는 역작용도 흔히 일어난다. 즉 한 사람이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조건 양보하거나 퇴각하는 등의 갈등처리를 한다면, 배우자의 문제야기 행동을 강화하게 되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하고 자신의 갈등을 표면적으로 숨기더라도 자신의 긴장수준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Gelles & Straus, 1979; Stenmetz, 1971).

Heider(1958)의 균형이론에 따르면,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이 당면한 주요 문제에서 서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한 사람이 심리적인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한 불일치가 표면화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긴장상태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에 대해 Taylor(1970)는 긴장감, 긴장이완, 반감 등으로 부호화하여 갈등의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긴장감은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있거나,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같은 경우와 같이 불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는 쪽에서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의견의 불일치는 긴장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Ellis(1985)는 우리가 겪는 갈등은 사건이나 사람 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신념의 문제로 보았는데, Eidelson과 Epstein(1982)은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신념으로서 먼저 부부간에는 항상 서로의 뜻이 맞아야 한다는 신념을 들었다. 이것은 가치, 태도, 목표나 선호 등의 불일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부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 부부간에 불일치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갈등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Dana(1990)도 비합리적 신념이 갈등문제를 악화하거나 상승시킨다고 보았는데, 그 중 자신과 상대방간의 차이, 즉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가치 등의 차이는 해결불가능하다는 신념이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부간의 불일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갈등 이론의 취약점은 검증에 필요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alton과 Dutton(1969)은 간섭, 과장, 정보제공의 보류나 기피, 불신, 곤란이나 불쾌, 교류, 보상을 갈등수준의 지표로 삼았고, Harrison(1980)은 공개적 언쟁, 정보의 왜곡, 낮은 존경심, 정상작업의 방해, 의사소통의 경직현상으로 갈등수준을 측정하였다. 보통 심리학적인 갈등상황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적인 것이므로 쉽게 인지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상황은 심리적인 대립각이 차차 심화되어 행동주체의 현재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김필두, 1996). O'Brien과 그의 동료들인 John, Margolin, Erel(1994)은 갈등표출방법과 빈도에 따라 부부갈등 정도를 측정하였고, 권정혜, 채규만(1998)은 자녀양육갈등을 측정하는데 심리적 고통, 불일치를 지표로 삼았다. Cui와 Donnellan(2009)은 불일치의 빈도로 자녀교육갈등을 측정하였으며, 이경희(1999)는 느껴진 갈등으로 부부갈등을 측정하였고, 최왕규(2007)는 갈등에 대한 지각된 보고, 빈도, 긴장 등으로 가정갈등을 측정하였다. 진연주(2007)는 갈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갈등을 측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갈등 지각이란 갈등상황에 대해 긴장이 표출되는 양상을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지각된 갈등은 부부간의 불일치에 대한 사고와 정서적 긴장감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부부에게 자녀교육은 막중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교육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활동으로, 부모라면 누구나 마땅히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부모의 고유한 영역이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목표 등의 불일치, 자녀교육에 대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의 미충족 등으로 인해 충돌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양육 혹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Goldenberg & Goldenberg, 1991; Kyle & Marsha, 2009; Thevenin, 1997), 자녀양육특성 역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임정하, 2003).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부모의 강한 욕망까지 보태져서, 부부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정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Kyle & Marsha, 2009).

이러한 갈등을 자녀의 성장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거나 재교섭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한 가족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지만, 그 반대로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자녀의 부적응을 유발하게 되고 친밀한 가족관계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Feinberg 외(2007)는 자녀교육갈등을 부부관계의 질과 불일치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기 자녀의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즉 자녀교육갈등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정적 성향과 청소년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게 해주며, 특히 그 영향은 가족형태, 자녀의 성별, 반사회 행동의 최초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Feinberg et al., 2007). 따라서 자녀교육갈등은 부부관계의 기본 규칙을 파괴하고 관계의 종결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장휘숙, 2008) 자녀교육에 대한 도전들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Cui & Donnella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이란 부부관계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자 과정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녀교육에 대해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 방법, 역할, 기대 등이 대립할 때 발생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 탐색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자녀행동 차원에서의 부부갈등과 부모역할

차원에서의 부부갈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가. 자녀행동 차원에서의 부부갈등

모든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원하지만, 자녀의 성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박애정, 2011). 부모들은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자녀에게 동기부여자와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전경숙, 1992). 즉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 또는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 등 자녀교육의 다양한 내용을 결정한다(Kovchanska, Kuczynski, & Radkr-Yarrow, 1989).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라 자녀교육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송승민, 송진숙, 2007), 특히 자녀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자녀를 지도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자녀문제로 인해 부모와 자녀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모-자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며(Cui & Donnellan, 2009), 부모간 갈등이 심하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Davies & Cummings, 1994) 악순환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녀문제는 부부싸움의 여러 가지 외적 요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상화되는 문제로서, 이 때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자녀문제의 요인들은 자녀의 생활태도, 학습, 친구관계, 건강 등이다. 자녀가 부부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될 때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백성기, 2001) 부모-자녀관계 역시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은 부부갈등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데, 흔히 세대차이라고 하듯이 부모-자녀간 갈등은 성장환경이 각기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부모의 가치관을 강요하면 자녀들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Erikson, 1963),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고 하나 자녀는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자녀관계는 갈등에 부딪치게 된다(송경란, 1998). 즉 부모-자녀갈등은 중년기 부모와 성숙해가는 청소년 자녀가 서로 역방향으로 발달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특히 자녀가 중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부모-자녀갈등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부모-자녀간 관계의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Montemayor, 1983).

부모와 자녀들이 겪는 대표적인 갈등 내용들은 학교성적과 자녀의 개인생활, 시간관리, 친구관계, 생활태도 등과 같은 주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김수연, 정문자, 1997; 김향숙, 1999; Smetana, 1988). Brooks(2001)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자녀의 대인관계행동(싸움, 괴롭히기), 성격특성(과민성, 완고함) 그리고 TV 시청, 집안일, 잠자는 시간, 귀가시간 같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조절행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강문희 외(2011)도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겪는 갈등은 가족의 규칙, 과제나 기대에 대한 문제, 학교와 다른 장소에서의 행동문제, 친구사귀기, 귀가시간 등에 관한 문제로, 이런 주제들은 가족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촉매 역할을 하는 표면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현적 문제에 내재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모-자녀갈등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인 의지와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등의 심리적 요소, 비판적인 안목 등의 발달로 인하여 가정환경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갈등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치,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문제, 이성문제 등의 고민이 겹쳐져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왕규, 2007). 즉 일상사에 대한 견해 및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김향숙, 1999; 이주옥, 1993; 진연주, 2007),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자녀간 갈등이 증가하는 것도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사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진연주, 2007). 이상의 부모-자녀갈등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부모-자녀갈등 내용

연구자	부모-자녀갈등 내용
김향숙(1999)	학교성적, 귀가시간, 친구와의 전화통화, 취침시간이나 기상 시간, TV시청, 전자오락, 형제나 자매들과의 다툼, 진로선택, 부모에 대한 말대꾸, 옷이나 물건들의 정리정돈
김수연, 정문자(1997) 이주옥(1993),	학업성적, 귀가시간, 용돈사용, 친구관계, 옷차림새, TV시청, 여가시간활용, 부모에 대한 불복종
문경주(2004)	머리모양, 취미, TV시청, 귀가시간, 숙제, 공부, 학원
진연주(2007)	인터넷 이용, 부모의 감독 및 통제, 부모의 태도, 자녀의 생활변화
최왕규(2007)	진로, 친구문제, 이성문제
Brooks(2001)	대인관계행동, 성격특성, TV 시청, 집안일, 잠자는 시간, 귀가시간
Smetana(1988)	방청소, 숙제, 용돈사용, 형제싸움

또한 많은 학자들이 자녀문제에 대한 부모의 책임있는 지도를 강조하였다. 특히 TV 시청, 위생, 예의범절, 경제개념 등에 대한 바른 생활습관은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태도로서 학령기에 접어드는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유명희, 2010; 이유아, 1990; 정원식, 1988; 정원식 외, 1996). 또한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역할에 대해 유명희(2010)는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도덕적 규범, 공부, 편식, 친사회적 행동, 용돈관리 등에 대하여, 그리고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 부모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으로 자녀의 성, 외모, 인터넷 중독, 형제관계, 소비행동 등에 대한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Brooks(2001)는 자녀가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아발달, 자기조절의 발달, 규칙과 가치의 내면화,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 자녀의 긍정적 또래관계 장려, TV 시청관리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강조하였고, 자녀가 사춘기에 이르면 자아정체감 형성, 부모-자녀관계, 감정조절 능력의 증진, 건강한 행동의 증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박영애, 최목화, 양명숙, 나종혜, 김민정(2007)도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부모역할로 자녀와 가족관계,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전자매체,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녀교육내용에 대한 학자별 견해

학자	자녀교육내용
박영애, 최목화, 양명숙, 나중혜, 김민정(2007)	자녀수준에 맞는 과제나 일의 부여, 자녀와 가족관계,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관계, 전자매체,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유명희(2010)	생활능력, 독립성, 시간관리, 사회성, 도덕적 규범, 용돈관리, 경제개념, 능력개발, 창의력 발달, 식습관 형성
이유아(1990)	지능발달, 언어발달, 성격형성,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조기교육, 성의 발달, 학습지도, 가족과의 관계, 일상생활(편식, TV, 늦잠, 예의범절), 학교생활
이호분(2010)	시간관리, 게임관리
정원식(1988), 정원식 외(1996)	지능개발, 소비행동, 자립심, 도덕심, 사회성, 근검절약정신, 습관형성, 진로지도, 도전의식, TV시청관리, 재능탐색과 개발, 진인교육
Brooks(2001)	자아발달, 자기조절의 발달, 규칙과 가치의 내면화, 학업성취 향상, 긍정적 또래관계 장려, TV 시청관리, 자아정체감 형성, 부모-자녀관계, 감정조절 능력의 증진, 건강한 행동의 증진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자녀교육내용과 부모-자녀갈등 내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부모-자녀간의 갈등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거나 부부의 자녀교육관이 서로 다를 때, 부모의 자녀교육내용과 방법이 일관성을 잃게 되면서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부모-자녀갈등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녀로 인한 부부갈등이 다시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하여 자녀행동 차원에 대한 부부갈등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자녀교육에 관한 자녀행동 차원의 부부갈등 내용

차원	갈 등 내 용		
자녀 행동 차원	학업성취	진로	건강, 체력관리
	TV시청	교사와의 관계	학업태도
	공부방법	친구관계	집안행사참여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귀가시간
	시간관리	소비생활	외모관리
	인터넷게임	성격	규범, 질서의식
	예의범절	형제관계	휴대폰사용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책임의식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자녀행동 차원에서 23개의 부부갈등 내용을 추출하여 문항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 부모역할 차원에서의 부부갈등

자녀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영향 하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Brooks, 2001),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다.

정원식 외(1996)는 성공적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역할로서, 첫째 자녀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고, 둘째, 칭찬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점, 셋째, 자녀가 처한 상황과 시기를 분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자녀의 신체적, 기질적, 심리적, 의사소통, 정서적, 반항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장단계별로 자녀의 성장을 돕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시기에는 설명하고 깨우쳐주는 교육이 중요한 시기로서, 부모와 자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상 사물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과제이며,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는 부모의 권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상호존중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박만구 외(2009)는 최근 간행된 자녀교육에 대한 지침서들을 분석하여 자

녀교육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자녀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자상하면서도 단호한 면을 가지고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맹목적인 강요보다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 넷째, 자녀들의 행동이나 언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 이면의 의미를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는 자녀가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방향하고도 합치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연스런 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교육은 전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는 계속 변화하고, 자녀와 더불어 발달해야 한다(유명희, 2010). 특히 자녀의 발달상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들은 과감하게 자녀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전체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점진적으로 위임해나가야 한다(정원식 외, 1996). 또한 청소년기는 도덕적 중핵을 구성하는 많은 가치관들을 발달시키는 시기로, 부모나 교사에게 전수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문하고, 반항하고, 반대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가치로운 것들을 구성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교육은 좌절, 절망, 증오, 의심을 극복하고 도덕적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청소년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질문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유와 용기를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모가 해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많은 학자들이 부모가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자녀의 생활을 계획성있게 제한하며,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유지할 것(유명희, 2010; 이우경, 2011; 이호분, 2010)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의 모델링은 자녀의 생활습관이나 도덕성 등의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다(박만구 외, 2009; 유명희, 2010; 이우경, 2011). 이 외에도 자녀의 자율성과 자발성, 동기를 고취하고, 자존감을 살려주는 부모의 태도 역시 중요시되고(박만구 외, 2009; 유명희, 2010; 이성호, 2011; 이우경, 2011; 정원식, 1988; 정원식 외, 1996) 있으며, 과보호적 태도, 지나친 기대, 간섭, 형제간 비교,

과잉통제 등은 부모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태도로 주목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자녀교육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자녀교육방식에 대한 학자별 견해

저자	바람직한 자녀교육방식	경계·주의해야 할 자녀교육방식
박만구외(2009)	배려, 역할모델, 자율성, 잠재력 계발, 동기부여	
유명희(2010)	일관성, 자존심 세우기, 자녀의 성격에 따른 지도방법, 모델링, 애정과 관심, 애정적 친밀감, 자녀의 심리 이해, 존중, 자유의지고취, 용기고취, 동기유발	과보호, 훈육, 간섭, 자녀편애, 형제간 비교
이성호(2011)	자존감고취, 자발성고취, 자녀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예언, 개성인정, 다양한 경험, 결과보다는 과정 중요시, 자녀신뢰	지나친 기대, 공치사
이우경(2011)	자율성, 자기결정권 인정, 자녀와의 대화법, 칭찬, 자존감 살려주기, 역할모델, 일관성, 공감, 인내심, 신뢰, 수용	지나친 기대, 간섭, 형제간(또래간)비교, 잔소리, 자녀에 대한 지나친 판단, 집착
이유아(1990)	자녀의사존중	훈육
이호분(2010)	자녀의 기질 이해, 자녀와의 대화법, 일관성	과잉통제, 희생, 욕구충족, 서툰 사랑, 지나친 사랑, 과잉기대, 훈육
정원식(1988), 정원식외(1996)	의욕고취, 동기육성, 자립심, 사회성, 도전의식, 재능탐색과 개발	거부적태도, 지배적태도, 과보호적태도, 복종적태도, 모순·불일치적 태도

이처럼 자녀의 성장단계별 부모의 자녀교육방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교육방식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정립하지 못한 채 새로운 역할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 현실적으로 자녀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다양한 외부자원을 통해 좋은 부모역할을 하기 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습득에 대한 동기나 기회가 적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다른 발달시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보다 낮은 역할수행을 보이고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조선화, 1998)는 보고가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아버지들이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김재희, 주은선, 2002; 김혜영, 2000; Goldenberg & Goldenberg, 1991)을 보고하고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고 합리적이며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정애(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김재은(1974)은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 조사에서 약 반수의 가정이 중도적 내지 불일치한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손직수(1970)는 특히 아버지가 거부적이고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는 자녀가 반항적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육개념, 즉 자녀교육관의 차이 때문이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않기(Hurlock, 1972)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부의 자녀교육방법에 대한 차이는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양육을 위해 부부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부간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후에는 서로 각자의 독립된 시간을 보내는 것, 양육문제, 자녀교육비 혹은 그 밖의 자녀문제와 관련한 여러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Rummel, 1991). Coe(1972)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 중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간의 불일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의 불일치는 자녀의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부터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풍토와 학벌중심의 문화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교육에 기꺼이 투자해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핵가족화는 무조건적인 교육비 지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주문자, 2001). 따라서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자녀의 학

업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현실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강문희 외, 2011).

오은영(2012)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한 부모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자녀교육에 대해 불안한 부부가 충돌하는 내용들은 교육교재, 교육기관, 성적, 자녀교육을 위한 이사, 사교육, 어학연수 문제 등임을 지적했다. 이경숙 외(2010)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들은 가족 간에 자녀의 학원 과외 및 사교육 문제 등의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교육 관련 갈등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려는 부모와 반대하는 자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부모와 거부하는 자녀 사이의 갈등이었다.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사교육이라는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지며(강인원, 전성일, 2003; 노현경, 2006), 실제 부부갈등의 내용 중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문제가 포함된다고(이경희, 1999) 보고되었다. 최근 자녀의 조기교육, 사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지원행위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과 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사회에 자녀의 사교육문제로 인한 부부갈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김경자, 2007; 김정화, 2005; 심미옥, 2003; 박애정, 2011; 주문자, 2001; Fantuzzo, Tighe, & Childs, 2000)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지적 성취를 강조하고 교육관여 또는 자녀교육비 지출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주문자(2001)도 사교육비 부담감이 높을수록 자녀 사교육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특별한 걱정 측면과 미안함의 반영이며, 사교육비 지출에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김중식, 2006; 마미정, 2008; 이선형, 2009) 지적되었다.

한편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상호협력하여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 최지영(1994)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녀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왔다고 보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통제와 온정이 비교적 잘 조화를 이루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윤리 규범을 가르칠 의무를, 어머니는 자녀의 세밀한 요구에 응답하면서 성장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즉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양육전통은 부모가 엄(嚴)과 자(慈) 사이를 진동하며 양육이라는 소통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이 둘은 서로 대척의 지점이 아니라 음(陰)과 양(陽)의 상보성 같이 대대(對待: inter-dependence)하며 공존하는 것이었다(서명석, 2009). 그러나 산업사회화 구조에서 부모들의 역할 분담의 소홀로 자녀교육문제는 매우 심각해졌다. 가족기능의 약화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교교육의 부차적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을 가족관계에 적용한 Parker(1991)에 의하면 결과가 기대에 부합되지 않았거나, 뚜렷한 표준이 없는 상호 교환이 이루어져 구성원들간에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이 이론의 견지에서 보면, 부부는 자녀교육갈등 상황에서 서로 공정하고 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갈등이 감소하게 된다. 자녀교육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혼자 감당할 문제영역이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이 한 쪽 배우자에게 치우쳐 있고, 상대방 배우자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쪽 배우자는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에는 신뢰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양한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황기섭, 2001).

특히 부부갈등은 대개의 경우 의사소통과정에서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표출되기 쉽다(유명희, 2010; 이호분, 2010; 진연주, 2007). 한국인의 의사소통의 특성은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며, 내용면에서도 과거지향적이고, 비언어적이며,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을 더 즐겨하는 경향이 있기(정성란, 2011) 때문에 대인관계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오해와 대립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의 효과적인 공동양육은 활발한 협력과 의사소통으로 특징 지워지며, 지지적 공동양육은 부부간 상호협력, 의사소통, 상대방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존중과 가치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Cohen & Weissman, 1984).

이상을 종합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역할 차원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내용들

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역할 차원의 부부갈등 내용

차원	갈 등 내 용		
부모 역할 차원	과잉보호	자립심 증진	훈육과 체벌
	자율성 부여	학교생활지원(과제, 준비물, 학부모상담, 참관 수업 등)	자녀간 편애
	자녀교육비	사교육지원	과잉기대 및 요구
	정서적 지지	자녀의 동기육성 및 의지력 고취	지나친 간섭과 통제
	비밀관성	물질적 지지	자녀와의 대화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의사소통	자녀교육에 대한 할분담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전가/부재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역할 차원에서 18개의 갈등 내용을 추출하여 문항개발의 기초로 삼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은 자녀행동 차원에서 23개의 갈등 내용, 부모역할 차원에서 18개의 갈등 내용이 추출되어 총 41개의 갈등 내용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문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의 개념 모형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은 두 차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즉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은 갈등의 소재에 따라 자녀행동 차원과 부모역할 차원, 표출형태에 따라 사고 차원과 정서 차원으로 구분된다. 자녀행동 차원의 갈등은 자녀의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부부 각자의 관점의 차이에 대한 갈등이며, 부모역할 차원의 갈등은 자녀의 문제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수행에 관한 갈등으로 부부의 자녀교육방식과 상호협력관계, 교육지원행위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지각된 갈등은 부부

간의 불일치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배우자의 부모로서의 태도와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표출이 된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의 모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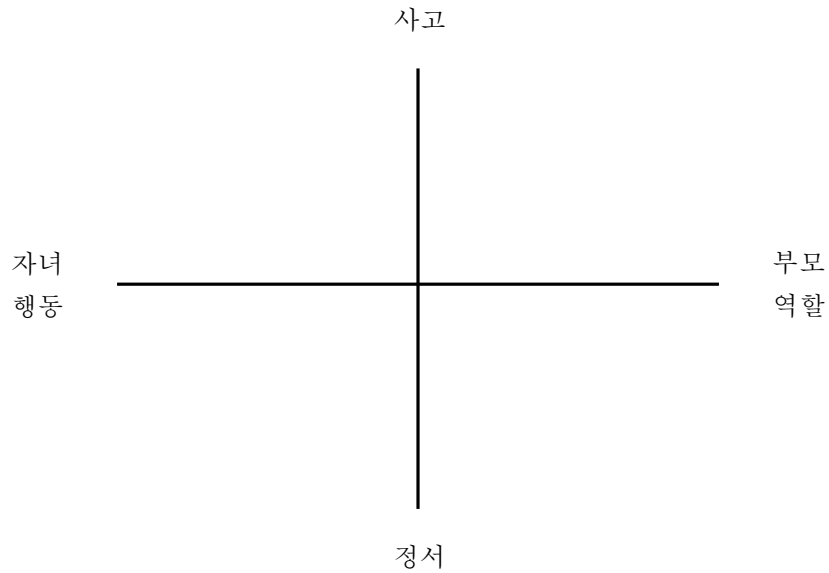


그림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의 2차원 모형

Ⅲ.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개발 절차

가.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엄명용, 조성우(2005), 탁진국(2009)과 신석기, 최태진, 박성미, 이은경, 김유미(2011)의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표 7)와 2000년 이후 국내의 부모·자녀교육관련 척도 개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표 8).

표 7.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단계	엄명용·조성우(2005)	탁진국(2009)	신석기 외(2011)
	구성개념을 결정하고 정의하기		검사의 목적 및 개요 규명
1단계	이론적 검토, 인터뷰, 관찰법	검사의 사용목적 파악	검사내용, 검사내용의 비중, 측정행동의 분석과정의 정의, 검사의 길이, 문항의 유형, 문항곤란도 등 고려
	문항집단을 개발하기	구성개념을 대표하는 행동 파악	문항개발 및 검토
2단계	포괄성, 배타성, 간단성, 난이도 고려	내용분석(개방형 질문), 관찰법, 문헌연구방법	본검사에서 사용할 문항수의 2배 이상 개발, 전문가 검토
	측정양식을 결정하기	범주별 상대적 중요도 결정	사전검사의 실시 및 문항분석
3단계			보통 20~30명, 문항분석
	전문가에게 초기 문항 검토받기	문항개발	예비검사의 제작 및 실시
4단계		문항의 반응양식 결정, 문항작성	500명 정도
	사전 테스트	전문가 문항검토	문항 및 검사의 양호도 분석
5단계	최소 10명~20명		신뢰도 중점 분석

표 7. (계속)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단계	엄명용·조성우(2005)	탁진국(2009)	신석기 외(2011)
	본 테스트	사전검사 실시	본검사 구성
6단계	문항수의 5~10배 이상	보통 20~30명, 상업적용도 100~200명	문항배열순서 고려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검사 실시	표준화를 위한 본검사 실시
7단계	문항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검증, 규준표 작성, 연구보고서와 안내서 작성		
8단계	-	자료분석 문항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	규준, 검사요강, 검사보조자료 준비
9단계		검사의 규준화 규준표 작성	검사발행 및 수정
10단계	-	발행과 수정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들은 단계마다 사용한 용어와 수행하는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탁진국(2009)과 신석기 외(2011)는 검사의 목적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일을 강조하여 척도 개발 단계에 포함시켰다.

구성개념을 대표하는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탁진국(2009)은 내용분석, 관찰법, 문헌연구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엄명용, 조성우(2005) 역시 구성개념을 결정하고 정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적 검토와 인터뷰와 관찰법 등을 제시하였다. 탁진국(2009)은 범주별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여 연구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더 비중을 두어 다른 범주보다 더 많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척도 개발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척도 개발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였으며, 연구자마다 연구주제 및 방향에 따라 나름대로의 연구절차를 밟고 있으나, 절차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척도 개발 절차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박은희(2003)와 이호준(2006), 윤지영(2008)의 연구에 불과하며, 이 역시도 척도 개발의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자신의 연구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정도여서 척도 개발

절차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척도의 모형을 제시한 연구도 박은희(2003), 윤지영(2008), 현미숙(2003)의 연구에 불과하다. 각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사용한 용어들과 목차 및 본문 속에 제시된 소제목들을 참조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국내 부모·자녀교육관련 선행연구의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연구자	박은희 (2003)	임정하 (2003)	현미숙 (2003)	이호준 (2006)	정은영 (2008)	윤지영 (2008)	박현진 (2009)	조용주 (2010)
척도명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	한국형 양육행동 척도	부모역할 지능척도	참가자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	과보호 척도	부모 리더십 척도	역기능 양육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 척도
단계								
1	개념모형 구안(선행 연구고찰)	문헌고찰	이론적 고찰	평가항목 수집 (설문조사, 면접)	문헌,선행 연구 고찰	구인 및 문헌개발 (문헌연구, 포커스 그룹, 심층면접)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 고찰
2	측정변인 선정 (경험적 자료수집: 기초조사)	예비문항 작성	측정변인 선정 (사례수집)	전문가 평정	측정도구 개발 (경험적 자료수집: 개방형질 문지,면접)		측정변인 선정 (자료수집)	예비문항 개발
3	척도 시안 작성	내용 타당도 검증	전문가 평정	문항분류 및 감정적 평가준거 설정	예비척도 제작	내용 타당도 검증	전문가 평정	내용 타당도 검증
4	내용 타당도 검증	사전조사	척도 시안 작성	예비 설문조사	설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척도 제작	예비연구
5	예비검사 (탐색적 요인분석)	본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내용 타당도 검증	1차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타척도와 상관분석)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전문가 평정	내용 타당도 검증
6	본검사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화 (공인 타당도)	1차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2차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화 (공인타당 도,대비타 당도,집단 차이검증)	예비연구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7	타당화 (교차 타당도, 공인타당 도,대비 타당도)		2차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내용검토 및 최종문항 정리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집단간 차이분석, 공인타당도)
8			타당화 (공인 타당도, 예측관련 타당도)	타당화 (확인적 요인분석, 공인타당 도, 유용성 검증)			타당화 (임상적 유용성 검증)	

측정변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측정변인을 선정하는 경우(임정하, 2003; 조용주, 2010)가 있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하였다(박은희, 2003; 박현진, 2009; 윤지영, 2008; 이호준, 2006; 정은영, 2008; 현미숙, 2003).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기초조사, 개방형 질문지, 사례수집, 면접, 포커스그룹 등을 이용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측정변인 선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전문가 평정과정을 거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1차, 사전)조사에 이어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윤지영(2008)과 박현진(2009)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타당도 검증 단계로 분류한 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확인적 요인분석과정을 타당화 단계 속에 포함하고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다(박은희, 2003; 임정하, 2003; 현미숙, 2003).

이호준(2006)은 ‘예비설문조사’ 단계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의 연구들은 사전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문항개발과 검토가 끝난 후 소수의 응답자들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척도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으로(신석기 외, 2011; 엄명용, 조성우, 2005; 탁진국, 2009), 지금까지 개발하여 검토했던 문항들이 다분히 전문가들의 이론적 관점으로 다루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대상자 입장에서 경험적인 관점으로 문항들을 검토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신석기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전검사과정을 척도 개발 절차과정에 포함하여 경험적 관점에서 문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타당화 단계에서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타당화하는 방법(박은희, 2003; 임정하, 2003; 윤지영, 2008; 이호준, 2006; 정은영, 2008; 조용주, 2010; 현미숙, 2003)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증명함으로써 타당화하는 방법(이호준, 2006; 정은영, 2008; 조용주, 2010), 교차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박은희, 2003), 대조적인 두 집단을 비교하는 대비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타당화하는 방법(박은희, 2003; 윤지영, 2008; 조용주, 2010),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통하여 타당화하는 방법(이호준, 2006; 박현진, 2009)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2~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할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타당도를 검

증하는 방법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방법을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과 공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자녀교육관련 척도 개발 연구들은 그 동안 국내 연구들이 외국도구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문화적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녀교육관련 척도 개발 연구가 초기단계이다 보니, 대부분 척도 개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미흡하고,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척도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타당성 확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최근 척도 개발 연구방법에서 요구하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송지준, 2011) 타당도를 검증하려고 한다.

나.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절차

척도 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개발 절차를 9단계로 제시하였다(그림 3).

1단계는 연구주제에 대한 이론서, 문헌, 지침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는 일이다. 이는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자녀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부모역할들을 검토하고,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추출하여 모형을 구안하였다.

2단계는 구성요인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얻은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정의함에 있어서 엄명용과 조성우(2005)는 이론적 검토와 인터뷰, 관찰법 등의 창의적 접근을 제시하였고, 탁진국(2009)은 내용분석, 관찰법, 문헌연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1단계에서 문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갈등의 당사자인 부모들의 경험적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조사방법을 택하였다.

3단계는 문항집단 개발단계로, 각 구성요인에 따른 초기문항을 개발하는 일이다. 최종 문항수의 2~3배의 문항을 작성하고(엄명용, 조성우, 2005)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최종 30문항 내외에서 구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146문항의 초기 문항목록을 개발하였다.

4단계는 선정된 구성요인과 초기 문항목록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검토 받는 과정으로, 문항이 구성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문항은 없는지, 수정이 필요한 문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였고(엄명용, 조성우, 2005; 탁진국, 2009), 전문가의 전반적인 견해를 수집하였다(엄명용, 조성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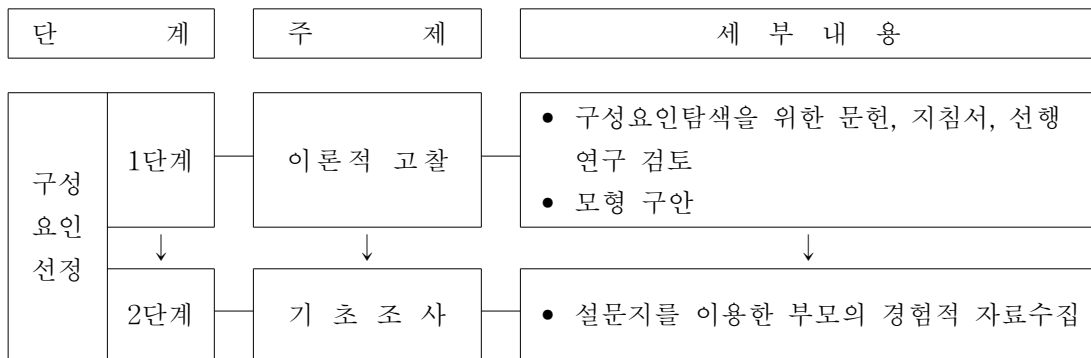
5단계는 예비 척도를 제작하는 단계이다. 4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예비 척도를 제작하고 측정방법을 결정하였다.

6단계는 예비 척도 시안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은 통해 1차 예비 척도를 확정하였다.

7단계는 사전검사단계로, 척도가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단계이다. 응답자들이 문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며(엄명용, 조성우, 2005; 탁진국, 2009), 좋은 문항과 나쁜 문항을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다(신석기 외, 2011). 보통 사전검사를 위해 선정되는 대상자들의 수는 20~30명 정도면 충분하지만, 보다 완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상자들의 수를 더 늘려서 실시하였다(신석기 외, 2011).

8단계는 본 검사단계로, 최종 구안된 예비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9단계는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단계로 개발된 척도에 대해 신뢰도를 검증하고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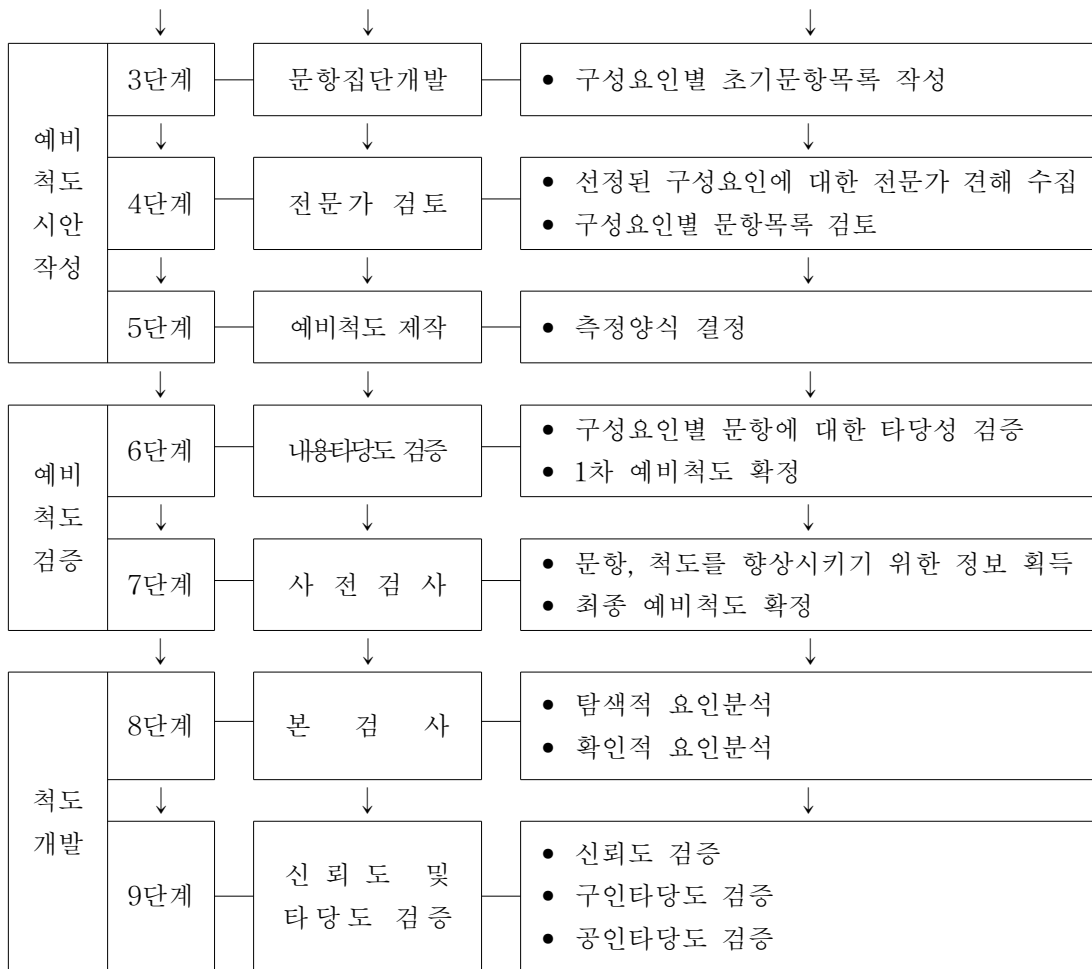


그림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절차

2. 구성요인 선정

부모의 자녀교육갈등에 대한 구인을 추출하고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41개의 갈등 내용들을 추출한 후, 자녀행동 차원에 23개 갈등 내용을, 부모역할 차원에 자녀교육방법, 부부공동양육, 교육지원행동에 관한 18개의 갈등 내용을 추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모형을 구안하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기초조사

1) 연구대상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1,000명으로,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기관 및 시설, 단체를 이용하는 부모이다.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 총 조사 잠정집계에 따른 전국 인구에 비례하여 각 지역별로 표집인원을 할당한 후,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로 구분하여 균등비율로 표집인원을 할당하였다. 대상을 초·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선정한 이유는 부모갈등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심각도가 점차 증가해 초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 사이에 정점에 달하게 되며(Anderson, Russell & Schumm, 1983),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들은 유아 시기와는 달리 자녀교육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각도에서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부부갈등 또한 이 시기부터 더 표면화될 것이라는 가정에서이다.

2) 연구도구

앞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얻은 41개의 갈등 내용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구성한 기초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부록 1). 연구자가 이론적 탐색을 통해 가정한 41개의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내용 중 응답자가 일상생활에서 자녀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부부간에 경험하는 갈등 내용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고, 이 외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자가 소속한 청소년기관의 전국망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과 응답요령을 유선으로 설명한 후, 이메일로 응답요령과 함께 설문지를 송부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으며, 제주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에 소요된 기간은 2010년 3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이다.

4) 자료처리

조사 결과, 1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8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부모의 성별이나 자녀의 학령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한 797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녀 전체 및 학령별로 갈등 내용을 빈도처리 하였으며, 지역별, 학령별로 갈등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통해 평균값을 비교하고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5) 분석결과

응답자는 어머니 648명(81.3%), 아버지 149명(18.7%)이며, 자녀수는 다중응답하도록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1,421명(21.4%), 초등학교 고학년 2,016명(30.4%), 중학생 3,200명(48.2%)이었다.

총 41개의 갈등 내용 중 전체 빈도가 높은 갈등 내용은 학업성취, 인터넷이용, 시간관리, TV시청, 공부방법,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사소통, 훈육 및 체벌, 역할분담, 자녀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록 2).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18개의 갈등 내용을 추출하고, 빈도수가 낮더라도 빈도수가 높은 갈등 내용과 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하여 예비 척도 시안 구성에 사용되어질 갈등 내용을 학업, 진로 및 적성, 시간관리,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문화매체이용, 훈육 및 체벌, 사교육지원 및 자녀교육비, 정서적 지지, 과잉간섭 및 통제, 과잉기대 및 요구, 부부의사소통, 역할분담 및 책임의 12개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자녀행동 차원에는 학업, 진로 및 적성, 시간관리,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문화매체이용, 사교육지원 및 자녀교육비에 대한 5개의 갈등 내용이 포함되었고, 부모역할 차원에 훈육 및 체벌, 사교육지원 및 자녀교육비, 정서적 지지, 과잉간섭 및 통제, 과잉기대 및 요구, 부부의사소통, 역할분담 및 책임에 대한 7개의 갈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예비 척도 시안 작성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 시안을 작성하기 위해 문항집단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척도 시안을 작성하였다.

가. 문항집단 개발

12개의 갈등 내용들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발된 각각의 척도들을 검토하고 일부 문항들을 참고하였으며,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문항을 개발하여 14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부록 3). 자녀행동 차원에 학업 15문항, 진로 및 적성 12문항, 시간관리 12문항,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12문항, 문화매체이용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부모역할 차원에 훈육 및 체벌 12문항, 사교육지원 및 자녀교육비 10문항, 정서적 지지 17문항, 과잉간섭 및 통제 11문항, 과잉기대 및 요구 10문항, 부부의사소통 10문항, 역할분담 및 책임 12문항을 포함하였다. 갈등의 표출형태에 따라 자녀행동 차원의 갈등은 부부 상호간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문제를 바라보는 부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것이므로 ‘~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의 사고 차원으로, 부모역할 차원의 문항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것이므로 ‘남편이(아내가) ~해서 속상하다’의 정서 차원으로 기술하였다.

나. 전문가 의견 수렴

146개의 문항에 대해 국내의 부모교육전문가 3명, 교육 및 상담분야 교수 5명, 상담전공 박사과정 혹은 박사수료생 3명의 전문가 11명과 초·중학생 자녀를 둔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부모 각 2명, 총 13명의 전문가에게 질문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즉, 문항이 각 갈등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문항은 없는지, 수정이 필요한 문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수집하였

다.

회수된 10부의 자료를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역할 영역에서 기존의 문화 매체이용인 ‘TV 시청’, ‘휴대폰 사용’, ‘인터넷 사용’의 갈등 내용을 ‘시간관리’로 통합하여 ‘학업’, ‘진로 및 적성’, ‘시간관리’,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의 4개 갈등 내용을 포함하였다. 부모역할 차원에서는 ‘과잉간섭 및 통제’와 ‘과잉기대 및 요구’ 내용이 중복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과잉간섭·통제 및 기대’로 통합하고, ‘훈육 및 체벌’, ‘사교육지원’, ‘정서적 지지’, ‘부부간 의사소통’, ‘역할분담 및 책임’의 6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개 갈등 내용으로 축소하였다.

다. 예비 척도 제작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문항을 통합·삭제하고, 누락된 2문항 즉, 자녀의 도전의식과 의지력 고취에 대한 부모의 견해 차이를 묻는 문항으로서 ‘우리 부부는 자녀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자녀행동 차원에 40문항(1~40번), 부모역할 차원에 62문항(41번~102번)으로 총 102문항을 선발하였다(부록 4).

4. 예비 척도 검증

102문항으로 구성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수정된 예비 척도를 이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가. 내용타당도 검증

102문항에 대한 전문가 내용평정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부모교육전문가 3명,

교육 및 상담분야 교수 3명, 교육학 및 상담전공 박사 수료생 3명에게 의뢰하였으며, 이들 중 8명은 10년 이상의 청소년 및 가족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4명은 청소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이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전문가들은 각 문항들에 대해 보다 분명한 용어와 문장 기술을 제안하였으며,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 결합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갈등 내용별 문항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부록 5). 전문가 2인 이상이 타당하지 않다고 체크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2인 이상이 타당하지 않다고 체크한 문항 중에서도 기존 관련 척도에서 유사한 문항으로 사용되었던 문항은 예비 문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자녀의 도전의식과 의지력 고취에 대한 부모의 견해 차이를 묻기 위해 추가된 2문항은 부모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정원식 외, 1996)이기 때문에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예비 문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교육지원에 대한 일부 문항들이 부부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사교육지원에 대한 3문항에 대해 ‘~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의 사고 차원으로 재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는 자녀행동 차원 29문항(1~29번), 부모역할 차원 53문항(30~82번)의 총 82문항으로 축소되었다(부록 6).

나. 사전검사

문항내용 중 이해가 잘 안가는 문항을 파악하고 검사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할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탁진국, 2009)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연구자가 소속한 청소년기관의 전국망을 활용하여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서울, 대전,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28명을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사전검사의 연구도구는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 82문항이다.

3)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는 102부였고,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01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통해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4) 연구결과

각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통해 신뢰도와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는 .98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745~2.658의 분포로 전체 문항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부록 7).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는 82문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5. 본 검사

내용타당도와 사전검사를 통해 개발된 최종 예비 척도를 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 탐색적 요인분석

1) 연구대상

선정된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남, 전남,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이다. 통계청이

보고한 전국 인구통계(2011. 4)를 기준으로,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820명을 표집한 후, 자녀의 학교급별로 균등 배분하였다.

2) 연구도구

예비 척도 검증과정을 통해 확정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최종 예비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8). 전체 8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항의 구조는 표 9와 같다.

표 9. 최종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예비 척도 구조

차 원	문항수	내용(문항수)
자녀행동	29	학업(8), 진로 및 적성(6), 시간관리(7),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8)
부모역할	53	훈육 및 체벌(8), 정서적 지지(10), 사교육지원(10), 과잉간섭·통제 및 기대(11),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의사소통(6),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분담 및 책임(8)
2영역	82	

3) 연구절차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남, 전남,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교사를 섭외한 후, 해당교사가 학생들을 통하여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 유선으로 설명한 후, 유인물로 인쇄하여 설문지와 함께 해당교사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제주지역은 연구자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에 소요된 기간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4)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677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670부가 자료처리에 사용되었다. 우선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문항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이 .3이하, .8이상인 문항을 모두 제거하여 최종 50문항을 추출한 후(부록 9),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분석의 한 방법인 주축요인분석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채택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송지준, 2011)는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이상, 요인적재치 .4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표 10.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670)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성별	부	238	35.5	부모 교육 경험	예	309	46.8
	모	432	64.5		아니오	351	53.2
	전체	670	100.0		전체	660	100.0
연령	30대	178	26.6	자녀 수	1명	69	10.4
	40대	414	62.0		2명	435	65.3
	50대	76	11.4		3명	143	21.5
	전체	668	100.0		4명 이상	19	2.9
학력	중졸	14	2.1		전체	666	100.0
	고졸	267	40.5	자녀 학령	초1	36	5.4
	전문대졸	98	14.8		초2	93	13.9
	대졸	229	34.7		초3	29	4.3
	대학원졸 이상	52	7.9		초4	16	2.4
전체	660	100.0	초5		78	11.7	
직업	주부	202	30.2		초6	58	8.7
	압박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10	1.5		중1	120	17.9
	전문가/자유인	70	10.5		중2	45	6.7
	기술공 및 준전문가	45	6.7		중3	25	3.7
	사무직	112	16.7		고1	111	16.6
	서비스직	44	6.6	고2	47	7.0	
	농업 및 어업	7	1.0	고3	11	1.6	
	기능직 및 생산직	37	5.5	전체	669	100.0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4	2.1	자녀 성별	남	294	44.9
	단순노무직 근로자	14	2.1		여	361	55.1
	군인	1	.1		전체	655	100.0
	자영업	80	12.0	자녀 의 출생 순위	첫째	360	54.6
	기타	33	4.9		둘째	254	38.5
	전체	669	100.0		셋째	44	6.7
경제 수준	최하	8	1.2		넷째 이상	1	.2
	하	39	6.0		전체	659	100.0
	중하	112	17.1				
	중	368	56.2				
	중상	113	17.3				
	상	13	2.0				
최상	2	.3					
전체	655	100.0					

응답자들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아버지가 238명(35.5%), 어머니가 432명(64.5%)였다.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414명, 62.0%), 고졸이 267명(40.5%), 대졸이 229명(34.7%)이다. 직업별로는 주부(202명, 30.2%)가 가장 많고, 사무직(11명, 16.2%), 자영업(80명, 12.0%)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다'가 309명(46.8%), '없다'가 351명(53.2%)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자녀수

는 2명을 두고 있는 부모가 435명으로 전체 65.3%를 차지하고 있고,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도 전체 21.5%(143명)를 차지했다. 자녀의 학령은 중학교 1학년(120명, 17.9%), 고등학교 1학년(111명, 16.6%), 초등학교 2학년(93명, 13.9%), 초등학교 5학년(78명, 11.7%) 순으로 많았고, 자녀의 성별은 아들이 294명(44.9%), 딸이 361명(55.1%)이었다. 자녀들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360명으로 전체 54.6%를 차지하였고, 둘째가 254명(38.5%), 셋째 44명(6.7%), 넷째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677부의 자료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표 11). Kaiser-Meyer-Olkin(KMO)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KMO 값이 .90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89는 꽤 좋은 편, .70~.79이면 적당한 편, .60~.69는 평범한 편, .50~.59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편, .50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송지준, 2011).

표 11.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7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7691.211
	자유도	1225
	유의확률	.00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KMO값이 .977로 매우 높은 수치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수준이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병화, 2006).

50개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파악한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5개가 추출되었다(부록 9). ‘정서적 지지’, ‘훈육 및 체벌’, ‘과잉간섭, 통제 및 기대’의 내용들 중 ‘정서적 지지’ 내용의 9문항 중 3문항(55, 56, 57)은 ‘훈육 및 체벌’, ‘과잉간섭, 통제 및 기대’의 내용들과 함께 적재되고, 6개 문항(47, 48, 49, 50, 51, 52)은 독립된 요인으로 분리되어 적재되었다. 또한 ‘훈육 및 체벌’ 내용의 문항들 중 31번 문항은 자녀행동 차원의 29문항과 함께 적재되고, 37번 문항은 ‘사교육지원’에 대한 문항들과 함께 적재되었다.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주성분의 수를 요인의 수로 정하는 것이다(탁진국, 2007). 측정변수의 수가 40개 이하이고 표집의 크기가 크다면, 이 기준에 의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수용될 수 있으나(Tabachnick & Fidell, 1989),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는 주성분의 수가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탁진국, 2007). 두 번째 방법은 스크리 검사를 이용하는 것인데, 측정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처음의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요인의 고유치만 높고 나머지 요인들의 고유치는 서로 비슷한 값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인의 수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탁진국, 2007). 마지막 방법은 해석의 용이성이다.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성분분석을 사용해서 고유치가 1이상인 주성분인 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고, 다음은 주성분의 수와 비슷한 수를 요인수로 지정하고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해서 어떤 상황에서 요인구조의 해석이 더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탁진국, 2007).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50문항으로,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주성분의 수를 요인수로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스크리 검사 결과, 처음의 한 개 요인의 고유값만 높고 나머지 요인들의 고유값은 비슷하기 때문에 스크리 검사로 요인의 수를 판단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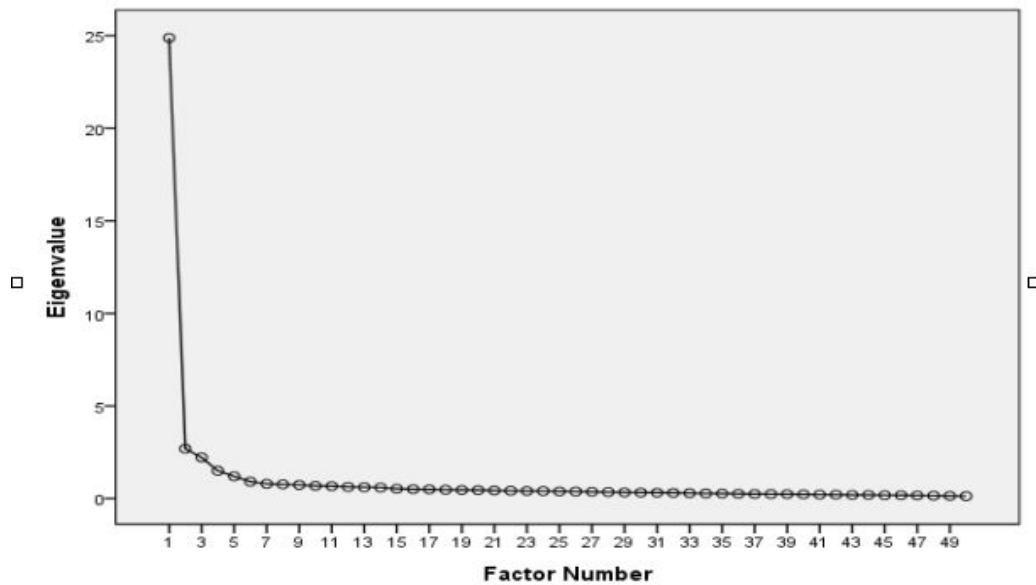


그림 4. 50문항 스크리 도표

요인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방법인 50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요인 구조를 파악한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은 5개가 추출되었고, 주성분의 수인 5에 가깝게 요인수를 4로 지정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교육방식’에 포함되었던 ‘정서적 지지’의 9문항들 중 3문항이 ‘협력적 자녀교육’ 내용에 적재되고 나머지 문항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요인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방법에 의해 4요인 구조에서 요인구조의 해석이 더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인적재치가 .4이하, 공통성 .4이하, 그리고 이론적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6문항(31, 37, 46, 50, 51, 63)을 추가로 제거하여 최종 44문항을 선정하였다. 44문항에 대한 스크리 검사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주축요인분석, 베리맥스 회전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고, 전체 누적 설명량은 61.149%이다(부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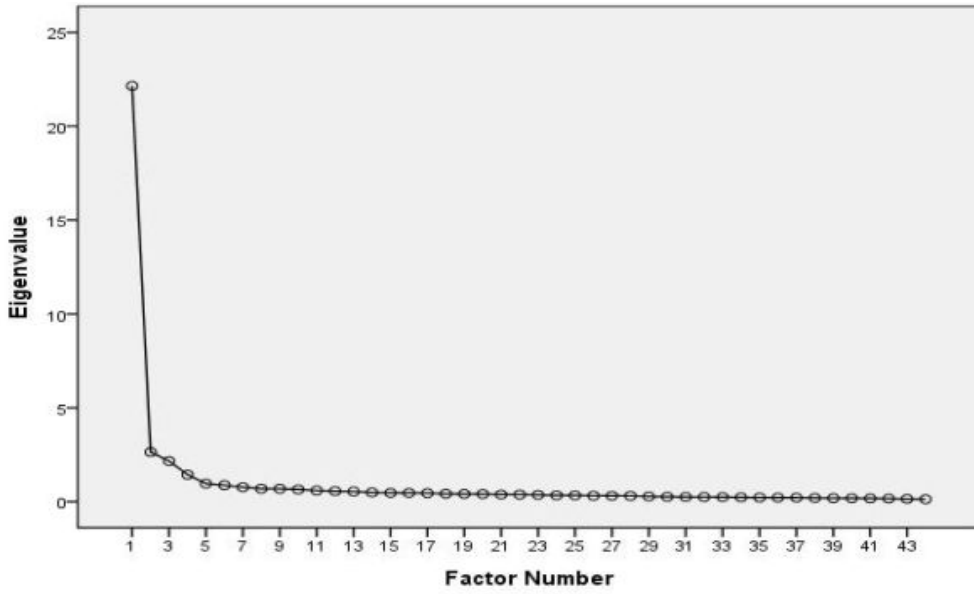


그림 5. 44문항 스크리 도표

표 12. 44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요인 1	Q62	.676	.677		
	Q59	.672	.686		
	Q55	.649	.659		
	Q67	.641	.675		
	Q58	.640	.645		
	Q66	.616	.706		
	Q56	.613	.623		
	Q68	.606	.660	7.779	17.679
	Q60	.603	.652		
	Q61	.603	.609		
	Q64	.565	.617		
	Q47	.546	.589		
	Q49	.542	.647		
	Q48	.535	.612		
	Q57	.535	.569		
	Q52	.519	.660		

표 12. (계속) 44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요인 2	Q11	.701	.589	6.997	15.903
	Q12	.696	.568		
	Q9	.668	.562		
	Q10	.652	.512		
	Q5	.628	.504		
	Q4	.625	.496		
	Q6	.624	.509		
	Q8	.612	.475		
	Q7	.604	.506		
	Q18	.574	.465		
	Q29	.573	.444		
	Q26	.516	.457		
	요인 3	Q72	.720		
Q79		.717	.750		
Q75		.712	.663		
Q82		.682	.637		
Q74		.663	.682		
Q77		.632	.577		
Q81		.603	.611		
Q70		.591	.614		
Q80		.582	.586		
Q69	.455	.577			
요인 4	Q42	.762	.742	5.440	12.364
	Q43	.748	.734		
	Q41	.732	.705		
	Q44	.715	.684		
	Q39	.704	.666		
	Q38	.598	.619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을 표 13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3. 1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요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1	자녀교육방식	16	47, 52, 49, 48, 59, 62, 58, 61, 67, 60, 66, 55, 68, 56, 64, 57
2	자녀교육내용	12	11, 12, 9, 10, 5, 6, 4, 8, 7, 18, 29, 26
3	협력적 자녀교육	10	79, 72, 75, 82, 74, 81, 80, 77, 70, 69
4	사교육지원행위	6	42, 43, 41, 44, 39, 38

각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 훈육, 권위적 양육태도, 과잉기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 등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교육방법에 대해 느끼는 갈등 지각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녀를 대할 때 배우자가 반응하는 행동양식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갈등으로, ‘자녀교육방식’으로 명명하였으며, 17.679%의 설명력을 지닌다.

요인 2는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학업, 진로, 생활태도 등에 대한 부부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느끼는 갈등 지각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녀교육내용에 대한 부부의 가치관 문제, 즉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키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관점(안혜준, 송승민, 2007)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자녀교육내용’으로 명명하였으며, 15.903%의 설명력을 지닌다.

요인 3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협력과 조화에 대한 내용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에게 느끼는 정서적 박탈감, 역할의 과중,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한 갈등 지각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협력적 자녀교육’으로 명명하였으며, 15.203%의 설명력을 지닌다.

요인 4는 자녀의 사교육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차이, 즉 사교육의 목적, 동기 등에 대한 갈등 지각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2.364%의 설명력을 지닌다. 이를 ‘사교육지원행위’로 명명하였다.

나) 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각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1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요인	자녀교육 방식	자녀교육 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자녀교육방식	1			
자녀교육내용	.694**	1		
협력적 자녀교육	.813**	.656**	1	
사교육지원행위	.732**	.589**	.633**	1

** $p < .0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각 하위요인 간에는 $r = .589 \sim .813$ 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되는 동시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신뢰도 검증

최종 선정된 44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및 척도 전체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 산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1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신뢰도

	자녀교육 방식	자녀교육 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전체
<i>Cronbach's a</i>	.96	.92	.94	.93	.98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는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자녀교육방식 .96, 자녀교육내용 .92, 협력적 자녀교육 .94, 사교육지원행위 .93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1) 연구대상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남,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이다. 통계청이 보고한 전국 인구통계(2011. 4)를 기준으로,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600명을 표집한 후, 자녀의 학교급별로 균등 배분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1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는 4요인 4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92~.96,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는 .98이다.

3) 연구절차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남,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담당교사에게 유선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통해 부모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과 해당지역의 학부모 관련 행사시에 직접 학부모에게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각 지역의 담당교사 및 담당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 주의할 점 등 설문요령에 인쇄물을 설문지와 함께 발송하였다. 제주지역은 청소년기관의 자녀교육관련 부모대상 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에서 회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다.

4)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는 총 464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AMOS 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제

거하고, 측정모델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 다시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6과 같다.

표 16.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N=444)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성별	부	172	38.7	부모 교육 경험	예	231	52.3
	모	272	61.3		아니오	211	47.7
	전체	444	100.0		전체	442	100.0
연령	30대	97	21.8	자녀 수	1명	73	16.5
	40대	302	68.0		2명	263	59.4
	50대	44	9.9		3명	88	19.9
	60대	1	.2		4명 이상	19	4.3
	전체	444	100.0		전체	443	100.0
학력	중졸	8	1.8	자녀 학력	초1	69	15.5
	고졸	117	26.5		초2	13	2.9
	전문대졸	87	19.7		초3	24	5.4
	대졸	179	40.5		초4	16	3.6
	대학원졸 이상	51	11.5		초5	49	11.0
전체	442	100.0	초6	25	5.6		
직업	주부	114	25.8	중1	34	7.7	
	압박자 고위임원 및 관리자	11	2.5	중2	33	7.4	
	전문가/자유인	76	17.2	중3	83	18.7	
	기술공 및 준전문가	33	7.5	고1	48	10.8	
	사무직	106	24.0	고2	37	8.3	
	서비스직	26	5.9	고3	13	2.9	
	농업 및 어업	11	2.5	전체	444	100.0	
	기능직 및 생산직	10	2.3	자녀 성별	남	254	57.2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5	1.1		여	190	42.8
	단순노무직 근로자	3	.7		전체	444	100.0
	군인	1	.2	자녀 의 출생 순위	첫째	259	58.5
	자영업	38	8.6		둘째	132	29.8
	기타	8	1.8		셋째	46	10.4
전체	442	100.0	넷째 이상		6	1.4	
전체	441	100.0	전체		443	100.0	
경제 수준	최하	8	1.8				
	하	16	3.6				
	중하	87	19.7				
	중	233	52.8				
	중상	87	19.7				
	상	4	.9				
	최상	6	1.4				
전체	441	100.0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가 172명

(38.7%), 어머니가 272명(61.3%)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2명(38.0%)으로 가장 많고, 30대 97명(21.8%), 50대 44명(9.9%), 60대 1명(.2%) 순이다. 학력은 대졸 179명(40.5%), 고졸이 117명(26.5%)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가장 많고(114명, 25.8%), 사무직(106명, 24.0%), 전문가/자유인(76명, 17.2%) 순이다.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407명, 92%),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는 231명(52.3%), 없는 부모는 211명(47.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녀수는 2명이 263명(59.4%), 3명 88명(19.9%), 1명이 73명(16.5%), 4명 이상이 19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령은 중학교 3학년이 83명(18.7%)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학년 69명(15.5%), 초등학교 5학년 49명(11.0%), 고등학교 1학년이 48명(10.8%) 순으로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254명(57.2%), 여자가 190명(42.8%)이었으며, 전체 58.5%(259명)가 첫째였고, 둘째 132명(29.8%), 셋째 46명(10.4%), 넷째 6명(1.4%)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최종 44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4요인 모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였고, 자료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 RMR, GFI, AGFI, CFI, NFI, IFI, RMSEA 값을 사용하였다. 최종 문항에서 제시된 높은 적합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C.R.값이 ± 1.96 보다 큰 지 확인하고 최초 문항에서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MC) 0.4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SMC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0.4 이상의 값을 보이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송지준, 2011).

요인별 측정변수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녀교육방식’ 요인은 6개

문항(52, 60, 61, 64, 66, 68)을 제거하여 10문항을 채택하였고, ‘자녀교육내용’ 요인은 12문항 중 5개 문항(5, 8, 9, 10, 26)을 제거하여 7문항을 채택하였다. ‘협력적 자녀교육’ 요인의 10문항 중 5문항(69, 70, 77, 80, 82)이 제거되어 최종 5문항이 채택되었으며, ‘사교육지원행위’ 요인의 6문항은 SMC값과 적합도에서 모든 문항이 적합하여 6문항 모두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7. 요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N=444)

요인	문항수	χ^2	P	χ^2/df	RM R	GFI	AG FI	CFI	NFI	IFI	RMSEA	
자녀교육방식	초기	16	646.5960	.0000	6.2173	.0387	.8041	.7438	.8965	.8795	.8909	.1085
	최종	10	139.1424	.0000	3.9755	.0229	.9388	.9088	.9609	.9564	.9570	.0820
자녀교육내용	초기	12	261.4998	.0000	4.8426	.0363	.9061	.8644	.9105	.8904	.9110	.0931
	최종	7	37.2238	.0007	2.6588	.0190	.9762	.9523	.9822	.9719	.9823	.0612
협력적 자녀교육	초기	10	271.5737	.0000	7.7592	.0407	.8732	.8008	.9145	.9035	.9149	.1235
	최종	5	11.4975	.0424	2.2995	.0131	.9900	.9699	.9943	.9901	.9944	.0542
사교육지원행위	초기	6	33.1452	.0001	3.6828	.0210	.9757	.9433	.9766	.9683	.9767	.0778
	최종	6	33.1452	.0001	3.6828	.0210	.9757	.9433	.9766	.9683	.9767	.0778

이러한 결과에 의해 선정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별 문항수, 문항번호는 표 18과 같다.

표 18. 2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별 문항수, 문항번호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자녀교육방식	10	47, 48, 49, 55, 56, 57, 58, 59, 62, 67
자녀교육내용	7	4, 6, 7, 11, 12, 18, 29
협력적 자녀교육	5	72, 74, 75, 79, 81
사교육지원행위	6	41, 42, 43, 44, 38, 39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2차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N=444)

요인	자녀교육 방식	자녀교육 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자녀교육방식	1			
자녀교육내용	.641**	1		
협력적 자녀교육	.792**	.618**	1	
사교육지원행위	.542**	.774**	.538**	1

** $p < .01$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는 .538부터 .792까지의 유의한 상관($p < .01$)을 나타내었다. 최종 선정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28문항은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0.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최종 28문항

요인	문항
자녀 교육 방식	Q4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Q4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난다.
	Q4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Q5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속상하다.
	Q5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Q5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Q5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Q59.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Q62.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Q67. 남편(아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표 20. (계속)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최종 28문항

요인	문항
자녀 교육 내용	<p>Q4.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6.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1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선택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2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협력적 자녀 교육	<p>Q72.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p> <p>Q7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p> <p>Q7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p> <p>Q79.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p> <p>Q8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p>
사교육 지원 행위	<p>Q38.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p> <p>Q39.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41.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42.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p>Q43.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p> <p>Q44.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p>

6.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가. 신뢰도 검증

최종 채택된 28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 및 척도 전체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산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최종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신뢰도

	자녀교육 방식	자녀교육 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전체
Cronbach's α	.94	.88	.89	.86	.96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자녀교육방식 .94, 자녀교육내용 .88, 협력적 자녀교육 .89, 사교육지원행위 .86으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사 개발과정에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탁진국, 2009). 따라서 본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가지고 사전검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준거관련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하위척도인 자녀양육갈등 척도(CCR:Conflict Over Child Rearing)와 자녀불만족 척도(DSC: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와의 상관분석에 의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연구대상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남,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600명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및 절차와 동일하다.

2) 연구도구

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13). 자녀교육방식 10문항, 자녀교육내용 7문항, 협력적 자녀교육 5문항, 사교육지원행위 6문항으로 모두 28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이며, 하위요인별로는 자녀교육방식 .94, 자녀교육내용 .88, 협력적 자녀교육 .89, 사교육지원행위 .86이다(표 22).

표 22. 최종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별 문항번호

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자녀교육방식	14, 15, 16, 17, 18, 20, 21, 24, 25 26	.94
자녀교육내용	1, 3, 4, 6, 7, 10, 12	.88
협력적 자녀교육	19, 22, 23, 27, 28	.89
사교육지원행위	2, 5, 8, 9, 11, 13	.86
	전체	.96

나) 자녀양육갈등 척도 및 자녀불만족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사용된 척도는 자녀양육갈등 척도(CCR:Conflict Over Child Rearing)와 자녀불만족 척도(DSC:Dissatisfaction With Children)이다. 이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Sny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검사(MSI: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 채규만(1998)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개발하여, 부부의 사소통 프로그램 집단(이현숙, 1999),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권정혜, 채규만, 1999)에 각각 적용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표준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MSI)의 14개 척도의 2개 하위척도이다.

자녀양육갈등 척도(CCR)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배우자와의 갈등 수준을 평가한다. 이 척도의 10문항의 내용은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부족,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의 불일치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Cronbach's a*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각각 .72, .93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4이다.

자녀불만족 척도(DSC)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을 평가하고 자녀의 정서 상태 및 행동에 대한 걱정을 평가하며 자녀의 적응에 대한 염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족과 갈등을 측정하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Cronbach's a*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각각 .73, .89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5이다.

다)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로 사용한 척도는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이다. 이 도구는 자녀교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5)이 개발한 척도로,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2008)가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확장형(Parenting Stress Index ; Abidin, 1995)에서 36문항을 선정·구성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표준화하였다. 외국어에 능통한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척도 번역에 권장되는 번역-역번역-수정이라는 3단계 번역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1~12세 정상발달 아동을 둔 326명의 부모와 사설 아동발달임상센터에 내원한 아동 67명의 부모에게 실시하였고, 그 중 35명에게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와 우울척도(BDI; 이영호, 송종용, 1991)와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로, 확장형(K-PSI-LF)과 축약형(K-PSI-SF)으로 구별하여 쓰

이고 있다. *Cronbach's a*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는 각각 .91, .77이다.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PSI-SF)은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고통(부모 영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 관계 영역), 까다로운 아동(자녀 영역)의 총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척도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6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방법과 동일하다. 즉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대구, 울산, 전남, 제주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섭외한 후, 연구자가 담당교사에게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학생들을 통해 부모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과 해당지역의 부모 관련 행사시에 직접 부모에게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각 지역의 담당교사 및 담당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응답요령, 주의할 점 등 설문요령에 대한 인쇄물을 설문지와 함께 발송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다.

4)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는 총 464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4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념신뢰도, AVE값,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통하여 측정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자녀양육갈등 척도(CCR) 및 자녀불만족 척도(DSC),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5) 연구결과

가) 구인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4개 요인들을 결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결과가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χ^2 이다. 그러나 χ^2 검증의 경우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며 표본이 커질수록 p값이 0에 가까워 영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노형진, 2003). 이러한 χ^2 통계량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지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χ^2 검증은 하나 해석은 하지 않기(홍세희, 2000)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값 보다는 적합도 지수를 중요한 판단 준거로 사용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부합지수 등을 이용한다(김계수, 2011).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는 χ^2 과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FI), RMR(Root Mean-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이 있다. 그리고 최악의 모형과 비교하여 연구 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증분적합지수로는 TLI(Tuc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가 있다. 간명적합지수는 모형의 복잡성과 객관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PRATIO(Parimonious Goodness-of-Fit Index), PNFI(Parsimonious Normed-of-Fit Index)이다.

표 2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적합도 지수(N=444)

	χ^2	P	χ^2/df	RMR	GFI	AGFI	CFI	TLI	IRATIO	PNFI	RMSEA
적합도 지수	949.9157	.0000	27624	.0317	.8663	.8422	.9259	.9186	.9101	.8090	.0631

연구자는 절대적합지수로 χ^2 값과 RMR, RMSEA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df 는 3

보다 적으면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김계수, 2011), RMR값은 .05이하이면 0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송지준, 2011).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양호, .08이하인 경우 어느 정도 양호, .1보다 클 때는 모델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김계수, 2011). 홍세희(2000)와 노형진(2003)도 .08이하이면 적합도가 높으며, .1이상이면 모델을 채택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 χ^2/df 는 2.7624로 나타났으며, RMR 값은 .0317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RMSEA 값도 .0631로 나타나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증분적합지수는 TLI 값과 CFI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TLI는 χ^2 지표의 문제를 보조할 수 있는 지표로 구조모형의 분산이 전체적인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흡사하며(김계수, 2011), .9이상,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TLI 값은 .9186로 91.8%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 값은 .9259로 나타나 연구모형인 4요인 28문항 모형은 실제 데이터에 부합되는 정도가 92.6%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GFI는 .8663, AGFI는 .8422로 기준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GFI와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송지준, 2011), 본 연구에서 CFI가 기준치인 .9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합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모수를 갖는, 즉 자유도의 수가 큰 모형은 간명 정도가 높고 단순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모수의 모형, 즉 적은 자유도의 수를 갖는 모형은 복잡하고 간명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계수, 2011). 따라서 홍세희(2000)는 모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자료에 잘 부합되는 동시에 간명한 모델을 선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간명적합지수는 PRATIO와 PNFI로, PRATIO는 그 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고, PNFI는 .6이상을 권장한다(김계수, 2011). 본 연구에서는 PRATIO는 .9191로 나타났고, PNFI는 .8090으로 나타나 우수한 모형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단일차원성을 평가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단일차원성 평가(N=444)

요인	측정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SMC	Cronbach' a
자녀교육 방식	26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1	.7828	-	-	.6128	.94
	2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1.0342	.7732	.0578	17.8795***	.5979	
	24.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1.0278	.8076	.0544	18.9049***	.6522	
	2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1.0302	.7728	.0577	17.8653***	.5972	
	20. 남편(아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1.0300	.7620	.0582	17.6969***	.5883	
	18.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속상하다.	1.0400	.7738	.0581	17.8958***	.5988	
	1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난다.	1.0330	.8252	.0531	19.4434***	.6809	
	16.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9738	.7709	.0547	17.8097***	.5942	
	15.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1.0086	.8007	.0539	18.6958***	.6411	
	1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1.0387	.8082	.0549	18.9245***	.6533	
자녀교육 내용	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7074	-	-	.5004	.88
	10.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0121	.7656	.0665	15.2284***	.5862	
	7.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9370	.7104	.0662	14.1592***	.5046	
	6.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선택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0254	.7497	.0687	14.9216***	.5621	
	4.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9306	.6856	.0680	13.6767***	.4701	
	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9109	.6998	.0653	13.9532***	.4897	
	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8812	.6760	.0653	13.4882***	.5470	

*** $p < .001$

표 24 (계속).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단일차원성 평가(N=444)

요인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SMC	Cronbach' a
협력적 자녀교육	19.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1	.7774	-	-	.6044	.89
	22.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1.0136	.8356	.0536	18.9147***	.6981	
	2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9293	.7639	.0548	16.9646***	.5835	
	27.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9918	.7761	.0574	17.2917***	.6023	
	28.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9049	.7616	.0535	16.9040***	.5800	
사교육 지원 행위	13.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7209	-	-	.5197	.86
	11.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1.0226	.7136	.0717	14.2583***	.5093	
	9.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0701	.7506	.0714	14.9908***	.5634	
	8.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9344	.7032	.0665	14.0508***	.4945	
	5.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0190	.7164	.0712	14.3141***	.5133	
	2.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9042	.6631	.0682	13.2508***	.4397	

*** $p < .001$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5이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5이상의 기준(송지준, 2011)을 만족시켰다. 측정변수의 모든 C.R.(critical ratio)값도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든 측정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MC값은 0.4이상의 값을 보여 잠재변수는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송지준, 201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4요인 모형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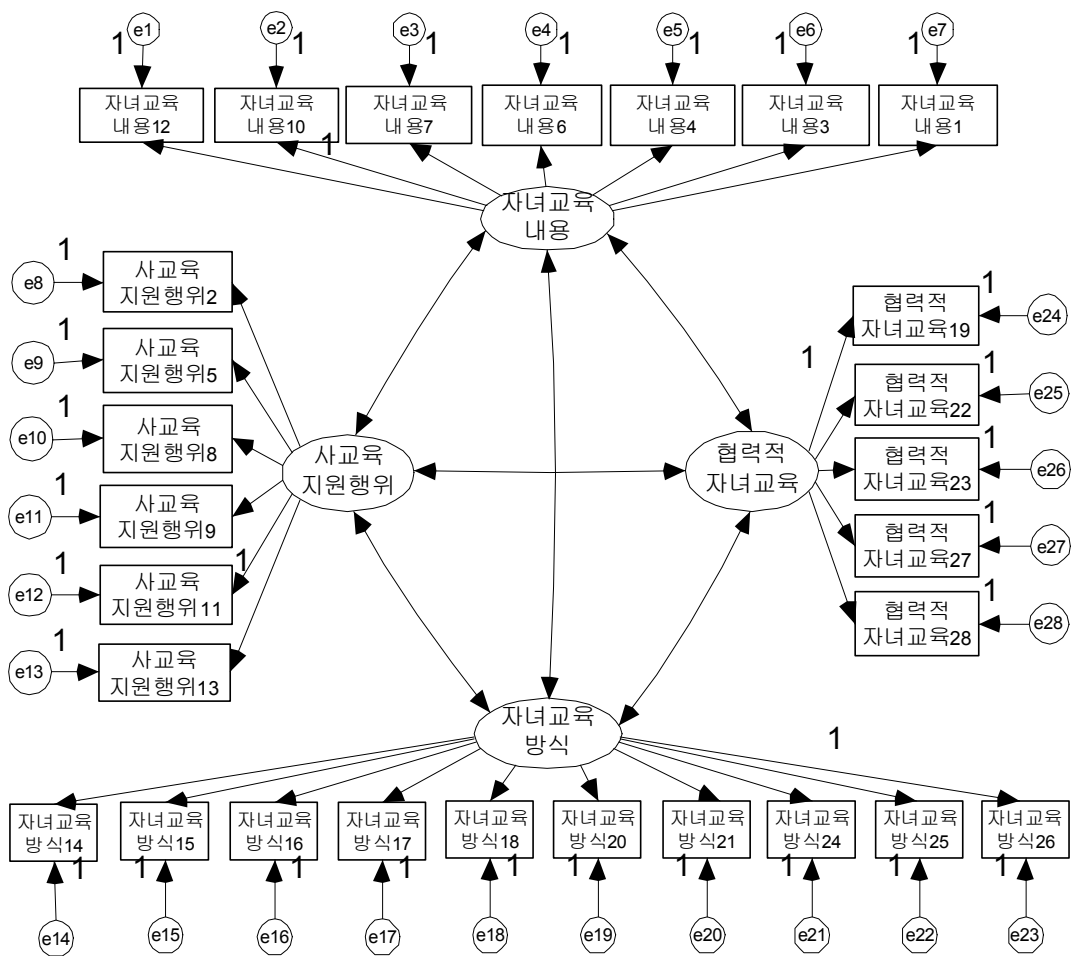


그림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경로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다는 것만으로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김대업, 2008),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좀더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모형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송지준, 2011).

집중타당성이란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집중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분산추출의 평균값(VE)으로 판단하는 방법(.5이상), 개념신뢰도값(construct reliability: CR)으로 판단하는 방법(.7이상), 표준화 회귀계수값으로 판단하는 방법(.5이상)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인(송지준, 2011) 개념신뢰도값을 이용하였다. 개념신뢰도를 이용한 집중타당성 기준은 개념신뢰도값이 .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한다(송지준, 2011). 개념신뢰도값을 구하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별 개념신뢰도값을 구하였다. 여기에서 표준화추정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을 말하는 것이고, 측정오차는 해당오차의 분산을 의미한다.

$$\text{개념신뢰도}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sum \text{측정오차}}$$

판별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변수들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별타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표준오차추정구간(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AVE값을 통한 판별타당성 평가는 모든 변수의 AVE값이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통해 평가할 때는 각각의 상관계수가 1을 포함하지 않으면 타당성을 인정한다(송지준, 2011).

따라서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한 모든 변수의 AVE값과 표준오차추정구간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표준오차는 공분산의 표준오차값을 의미한다.

$$\text{평균분산추출(AVE)}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sum \text{측정오차}}$$

표준오차추정구간 :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 ≠ 1

표 25.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모형의 타당성 평가 결과

요인	자녀교육방식	자녀교육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자녀교육방식	1			
자녀교육내용	.7077**(.0326)	1		
상관계수의 제공 표준오차추정구간	.5008 .4436 ~ .5740			
협력적 자녀교육	.8699**(.0411)	.6960**(.0351)	1	
상관계수의 제공 표준오차추정구간	.7567 .6745 ~ .8389	.4844 .4142 ~ .5546		
사교육지원행위	.6093**(.0294)	.8884**(.0344)	.6181**(.0322)	1
상관계수의 제공 표준오차추정구간	.3712 .3124 ~ .4300	.7893 .8196 ~ .9572	.3820 .3176 ~ .4464	
개념신뢰도	.9531	.9108	.9044	.8587
AVE	.6544	.5929	.6705	.5871

** $p < 0.01$ ()안의 수치는 공분산의 표준오차 값임.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요인간 상관은 $r = .6093 \sim .8884$ 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p < .01$). 또한 개념신뢰도는 $0.8587 \sim 0.9531$ 의 값을 보여 .7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변수의 AVE값이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내용과 사교육지원행위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7893)과 자녀교육방식과 협력적 자녀교육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7567)이 모든 AVE값을 상회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번째 방법인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통해서 평가했을 때

는 어떠한 상관계수도 1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

따라서 연구자가 설정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4요인 28문항의 구조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모형의 구인타당도가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공인타당도 검증

공인타당도란 새로운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을 때 제작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 등을 비교하는 검증이다(탁진국, 2009). 이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해석이나 이론을 모색하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타당화 방법이다(황정규, 2002). 공인타당도에서 사용되는 준거 도구는 새로 개발한 척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의 공인된 척도여야 한다(신석기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발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가 없으므로, 기존의 공인된 도구로서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권정혜, 채규만(1998)의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검사(K-MSI)의 14개 척도의 하위척도 중 자녀양육갈등 척도(CCR)와 자녀불만족 척도(DSC)를 준거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과 유사한 정경미 외(2008)가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1) 자녀양육갈등 척도(CCR), 자녀불만족 척도(DSC)와의 상관분석

먼저 자녀양육갈등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녀양육갈등 척도는 부모-자녀관계보다 자녀와 관련된 부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도구로,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부족(“내 배우자는 아이를 돌보는 데 동등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부갈등(“우리의 부부관계는 종종 아이들 때문에 악화된다”),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의 불일치(“우리는 언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벌주어야 할지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이 예/아니오로 되어 있고 하위요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녀양육갈등 총점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녀불만족 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녀불만족 척도는 자녀의 행동 및 정서적 적응,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염려와 관심을 평가하는 것으로, 자녀의 적응문제와 관련된 염려(“우리 아이들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만큼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자녀양육에 대한 실망감(“아이를 갖는 것이 내가 바랐던 것만큼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다”),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의 부족(“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화제가 많지 않다”), 자녀와의 갈등(“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측면을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녀교육방식과 자녀교육내용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이 예/아니오로 되어 있고 하위요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녀불만족 총점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6. 자녀양육갈등 척도(CCR), 자녀불만족 척도(DSC)와의 상관(N=44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전체
	자녀교육 방식	자녀교육 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자녀양육갈등	.504**	.405**	.501**	.313**	.513**
자녀불만족	.345**	.309**	.361**	.279**	.379**

** $p < .01$

타당도 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Kaplan과 Sacuzzo(1997)는 타당도 지수가 .60보다 큰 경우는 드물며, 대개 .30~.40 정도의 범위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으며, 성태제(2010)에 의하면 .00~.20은 타당도가 거의 없다, .20~.40은 타당도가 낮다, .40~.60은 타당도가 있다, .60~.80은 타당도가 높다, .80~1.00은 타당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전체점수와

자녀양육갈등 척도의 상관은 $r=.513(p<.01)$ 으로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방식 요인과의 상관은 $r=.504(p<.01)$ 이고, 협력적 자녀교육 요인과의 상관은 $r=.501(p<.01)$ 로서 이 두 요인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자녀교육내용 요인과 사교육지원행위 요인과의 상관도 $r=.405(p<.01)$, $r=.313(p<.01)$ 으로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자녀불만족 척도와의 상관은 $r=.279\sim.361$ 로 타당도가 다소 낮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p<.01$)을 보였으며,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전체 점수와 자녀불만족 점수간의 상관도 $r=.379(p<.01)$ 로 나타나 공인타당도 검증에 무리가 없는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2)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와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두 번째 준거 도구로 사용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PSI-SF)은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고통(부모영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부모-자녀 관계 영역), 까다로운 아동(자녀 영역)의 총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소재의 근원과 유사하다.

표 27.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와의 상관(N=44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전체
		자녀교육 방식	자녀교육 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 지원행위	
부모 양육 스트 레스	부모영역	.299**	.279**	.330**	.247**	
	부모자녀영역	.380**	.349**	.346**	.307**	.444**
	자녀영역	.393**	.307**	.374**	.236**	

** $p<.01$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와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와의 전체 상관은 $r=.444(p<.01)$ 로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하위요인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간의 상관도 $r=.236\sim.393(p<.01)$ 으로 공인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로서 무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기존에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자녀양육 갈등 척도, 자녀불만족 척도, 그리고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해 본 결과, 타당도 지수가 어느 정도 양호하고,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타당함이 입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부부의 자녀양육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 척도 개발 방법 및 절차, 타당도 검증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

본 연구결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은 자녀교육방식, 자녀교육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지원행위로 나타났다.

먼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요인은 ‘자녀교육방식’이다. 여기에서 자녀교육방식이란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일상적인 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존중, 신뢰, 간섭, 기대, 수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고(김재희, 주은선, 2002; 김혜영, 1999; 정선희, 2000; Goldenberg & Goldenberg, 1991), 자녀교육방법의 불일치가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Coe, 1972; Rummel, 1991)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자립심을 더 강조하고,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에 대한 기대도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높다(강문희, 윤지영, 2002).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유하게 되지만, 수행하는 기능상에는 차이가 있다(임정하, 2003)는 보고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부부간 자녀교육태도가 다르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 다르지만(Goldenberg & Goldenberg, 1991), 부부 사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양육방식의 차이는 자녀

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어진다(Kyle & Marsha, 2009). 이에 대해 전통 가정의 ‘엄부자모’의 양육행동이 대표적이다. 즉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과 가능성을 독려해주는 ‘엄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품성을 수용하고 자녀의 생활을 애정으로 정성껏 돌보는 ‘자애로운’ 어머니 양육행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따라서 부부간 자녀 교육방식의 ‘차이’, ‘불일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자녀교육방식을 조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자녀교육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이다. 이러한 자녀 교육내용은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녀의 성취, 시간관리, 학업, 진로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자녀문제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 부모-자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갈등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학교성과와 시간관리, 진로, 친구관계, 생활태도 등과 같은 주로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김수연, 정문자, 1997; 김향숙, 1999; 나은아, 1995; 최왕규, 2007; Smetana, 1988)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자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지도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자녀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진다(Cui & Donnellan, 2009)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와 자녀교육의 책임문제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부부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이희백(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일심동체적인 성격이 강한(최상진, 2000)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부모, 특히 엄마가 자녀를 ‘포함’하여 사는 경향으로 인해(문은희, 2011), 부부의 자녀교육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각의 부모가 원하는 목표와 내용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자녀와 충돌하게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교육관이 다르다고 모든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불일치가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문용갑, 2011). 갈등은 ‘다름’, ‘차이’, ‘불일치’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불일치’의 상황 속에서 당사자가 갈등이라고 인지할 때에 비로소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은 부모의 양육행동 못지않게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Goodnow, 1988; Goodnow & Collins, 1991; Miller, 1988; Sigel, 1985),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서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대하여 부부가 같거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Kyle & Marsha, 2009), 부부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은 '협력적 자녀교육'이다. 협력적 자녀교육이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의 관계이며,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역할분담 및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실상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요인으로서 '협력적 자녀교육'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자녀교육 방식'과 '자녀교육내용'으로 인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은 부부가 이루어가는 '협력적 자녀교육'에 의해 완화되고 더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협력적 자녀교육'은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지배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한다. 최근 아버지 자녀양육서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주장하면서 관계의 중심을 아버지됨에서 남편됨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의 협력관계가 부부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본 결과를 지지해준다. 즉 자녀교육 파트너로서 부부의 협력적 관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조윤경, 2011). 또한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 정서적 만족, 효과적인 의사소통,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결혼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 요소가 된다는 Olson 외(1989)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부부간의 애정 및 배우자와의 대화는 가정의 애정적 결속과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 증진과 관계가 있으며 (김윤희, 1990),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지지적인 부부 공동양육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은혜(2009)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부모가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며, 지지적인 상호작용이 신념과 목표의 상호조화를 중요시하는 관

계를 자녀들에게 보여준다(Gable et al., 1994). 자녀교육에 대한 파트너십이 강한 부부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양육방법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Kyle & Marsha, 2009)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자녀교육은 부모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 자녀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의 지능이나 사회적 능력, 자아개념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며(원유미, 1999), 김윤희(1990)도 부부간의 애정 및 배우자와의 대화는 가정의 애정적 결속과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자녀의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모 어느 한쪽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은 자녀교육의 일관성을 무너뜨려 부부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기 쉽다(이호분, 2010)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견고한 자녀교육의 파트너십은 부부의 친밀감을 강화시키며 그런 친밀감이 없이는 장기적이고 순탄한 협동적인 자녀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 팀으로 조화롭게 역할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잘 적응하지 못한다. 자녀교육의 파트너십은 부모간에 탄탄한 신뢰감이 있어야 가장 효과적이며, 그런 신뢰감에서 싹튼 협력은 애정과 관심이라는 양분을 얻게 된다(Kyle & Marsha, 2009).

마지막으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요인은 ‘사교육지원행위’이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지원행위란 부모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충 교육적 지원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지원행위’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으로 밝혀진 사실은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요즘 부모들은 교육비를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자녀를 가지면 ‘생활비 부담과 양육 및 교육의 부담’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한다(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적 계층과 관계없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김경자, 2007), 또래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제도 속에서 남들이 한다면 우리 자녀도 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문화 속에 깊게 깔려 있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으로서 사교육문화는 ‘부모의 욕심과 기대’가 사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강요되는 것에 대한 부부간의 의견 대립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010년 통

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원하는 수준은 4년제 대학생 이상(93.1%)이며 특히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약 10명 중 4명은 자녀를 대학원(석·박사)까지 교육시키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특히 중년기 부부에게 자녀교육비 부담은 노부모 부양과 자신들의 노후준비라는 중대한 과제와 책임과 맞물려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행위의 목표는 대학입시에 있으며, 교육지원행위가 경쟁적으로 초조기화되는 경향을 띠고,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고,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도덕적 일탈이나 불법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금초, 2005). Park(200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지적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 양육행동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자녀의 책임감과 학업능력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구성요인으로서의 ‘사교육지원행위’를 지지해주며,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교육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사한 주문자(2001)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사교육지원행위가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로 따른 부부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탐색된 이상의 구성요인들은 연구자가 최초로 구안한 모형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최초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갈등의 소재와 표출형태에 따라 자녀행동-부모역할 차원, 사고-정서 차원의 2차원적 모형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갈등의 소재에 따라 문항들이 적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문제를 둘러싼 부부갈등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보다는 갈등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지각이 부부갈등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자녀행동 차원에 관한 문항들이 사고 차원(~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에서 기술되고, 부모역할 차원에 관한 문항들이 대부분 정서 차원(~해서 속상하다)에서 기술이 되어 이러한 문항기술형태가 응답자들의 반응을 제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부갈등의 요인들도 가치관의 차이, 성격차이, 자녀양육, 금전문제, 시댁(처가)과의 관계 등으로 갈등의 소재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파악되었다는 사

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충분히 지지될 만하다. 부부갈등 악화의 주요인이 의사소통행동에 있다는 권윤아(2010)의 주장으로 보면, 지각된 갈등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느냐 하는 문제는 갈등의 원인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악화 또는 해결과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구성요인은 기존의 자녀교육 관련 척도의 요인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요인은 부모와 자녀의 2자 관계에서 벗어나 부-자녀-모의 3자 관계에서 자녀를 둘러싼 부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 척도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일반적인 척도 개발 방법과 절차를 근간으로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개발 방법들을 검토한 후, 이를 통합·보완하여 9단계의 척도 개발 절차를 구성하였다.

먼저 척도 개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논리적 근거로 구성요인이 추출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구성요인을 지지하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이론이 현상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이론들을 찾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인터뷰, 관찰법 등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지적 방향을 탐색하는 창의적 접근을 사용한다(엄명용, 조성우, 2005).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설문, 개방형 설문을 통한 기초조사, 면접, 포커스 그룹에 대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박은희, 2003; 윤지영, 2008; 이호준, 200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아 구성요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 검토를 통해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자녀교육갈등 내용들을 정리한 후, 기초조사를 통해 전국 차원의 경험적 증거들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내용들은 이론적 탐색과 통합되어 척도 시안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소재와 표출방법에 따라 자녀행동 차원-부모역할 차원, 사고 차원-정서 차원의 2차원 모형을 구안한 후, 문항개발과 검토가 끝나면 사전검사를 제작하여 소수의 대상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신석기 외, 2011)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6개 지역의 표본을 확보하여 응답대상자 입장에서 경험적인 관점으로 문항을 검토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는 이론적 검토에 근거하여 구안한 모형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당사자로부터 얻은 경험적 자료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개발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척도 개발 절차는 향후 척도 개발 연구에 유용한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

타당도 검증에 대한 논의는 모형의 타당성 검증과 공인타당도 검증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자 한다.

첫째, 모형의 타당성 검증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고, 일부 적합도 지수만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 검증을 통해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후 확인된 요인들을 통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모형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부합지수 등을 이용한다(김계수, 2011). 선행연구들이 모형 평가에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만을 사용한 것(박현진, 2009; 윤지영, 2008; 이선희, 2012; 이은아, 2011; 이호준, 2006; 정은영, 2008; 조용주, 2010; 허묘연, 2000)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간명부합지수를 모두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고, 모두 기준치 이상의 값을 얻어 우수한 모형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구인타당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척도 개발 연구에서 사용된(이선희, 201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보다 엄격한 기준인 개념신뢰도값과 AVE값, 표준오

차추정구간을 이용한 모형의 타당성 검증방법을 채택한 것도,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기준으로 척도 개발을 확정하거나(박현진, 2009; 윤지영, 2008; 이선희, 2012; 이은아, 2011; 이호준, 2006; 정은영, 2008; 조용주, 2010; 허묘연, 2000), 모형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으로만 척도 개발을 확정(박은희, 2003; 임정하, 2003; 허묘연, 2003; 현미숙, 2003) 것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의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인타당도란 새로운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을 때 제작한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에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 등을 비교하는 검증이다(탁진국,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 역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 표준화된 외적 준거도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박은희(2003)와 현미숙(2003)이 사용한 방법대로 측정내용이 가장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외적 준거 도구로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의 하위척도인 자녀양육갈등 척도(CCR)와 자녀불만족 척도(DSC),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하위요인과 자녀양육갈등 척도(CCR)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r=.313\sim.503$, 전체 상관관계는 $r=.513$ 의 양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녀불만족 척도(DSC)와의 상관관계는 $r=.279\sim.361$, 전체 상관관계는 $r=.379$ 로 나타났고,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SF)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는 $r=.236\sim.393$ 으로 나타나 자녀양육갈등 척도(CCR)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수준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역시 최근 연구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 부모의 자녀교육열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부모의 열성과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얻고 싶어 하는 대리만족 심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길 바라는 심리, 그리고 어머니 중심의 자녀교육 등이 부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는 타당한가?

2-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2-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에 대한 구성요인으로, ‘자녀교육방식’, ‘자녀교육내용’, ‘협력적 자녀교육’, ‘사교육지원행위’의 4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들 4개 요인을 바탕으로 2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였다.

셋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는 자녀교육방식 .94, 자녀교육내용 .88, 협력적 자녀교육 .89, 사교육지원행위 .86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구조가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개념신뢰도값과 표준오차추정구간을 통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다섯째, 자녀양육갈등 척도, 자녀불만족 척도,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와의 상관관계 확인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자녀교육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그 수준이 심각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녀교육문제는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파악되는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의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동안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근거가 매우 미비하여 부부가 자녀교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통해 자녀를 둘러싼 부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자기 각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수준에 따른 효과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자녀교육에 관해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자녀교육에 관해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임상적으로 유용한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즉 이 척도가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해줄 수 있는지,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시사해줄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척도의 타당성을 견고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좀 더 일반화되기 위해 척도의 보완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희, 박 경, 강혜련, 김혜련 (2011).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서울: 신정.
- 강문희, 윤지영 (2002). 중·고교생 부모의 자녀교육목적과 가정환경 지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2), 139-163.
- 강신임 (1991). **학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원, 전성일 (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7.
- 강중환 (1974).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형설출판사.
- 고선화 (2006). **아버지의 창의적 성격특성과 양육신념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윤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윤아 (2010).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35-51.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I: 이혼상담집단과 자녀상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39-150.
- 권주원 (2003).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념과 아동의 창의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 폭력과 자녀 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미 (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

- 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자 (200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출액과 지출구조.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25(6), 111-120.
- 김경혜 (1994).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수 (201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광웅, 문수경 (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대업 (2008). **AMOS A TO Z**. 서울: 학현사.
- 김명혜 (2006). 한국과 캐나다 거주 어머니들의 부모신념,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문영 (1997). 보건복지사업소내 전문집단간 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 가족복지학**, 26, 35-62.
- 김민녀 (2004).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7). 캐나다 거주 한인 어머니의 부모신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성 (1995). **교육사회학 관련이론**. 서울: 양서원.
- 김석현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옥 (199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정문자 (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 김수진 (2001). 부-모간 양육 행동(Coparenting)의 관련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격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덕 (1991).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198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 김영찬 (1976). 한국인의 교육관 - 그 문화적 기원 -. **새교육** 76, 12월호.
- 김윤희 (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지 (2002).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09). 부부갈등 및 부부 공동양육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 (2000). **현대 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재은 (1974). **한국 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희, 주은선 (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1-18.
- 김정주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화 (2005). 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 연구 -부모교육 참여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래 (1986). 초등학교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중식 (2006).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용 기혼모의 재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 (1999).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관리를 위한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0).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효민 (201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 (2005).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아버지의 양육참여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6(1), 107-121.
- 김필두 (199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나은아 (1995).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청소년의 갈등표출방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태준, 박재희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노현경 (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 노형진 (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 분석: 범주형 데이터 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도혜숙 (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남, 최수정 (2006). 가족상담심리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마미정 (2008).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2004). 청소년기 자율성 욕구와 부모 허용간 불일치가 우울 및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성진 (2008).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갑 (2011). **갈등조정**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문은희 (2011). **한국여성의 심리구조**. 서울: 니.
- 문혁준 (2008). 부모-자녀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 **아동학회지**, 29(2), 15-31.
- 민하영, 김경화 (2005).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27-34.
- 박경란, 이영숙 (2005). 부인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부부갈등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9), 59-70.
- 박만구, 김정미, 김은영, 김지혜, 박소영, 오태욱, 임경진, 장숙희 (2009). 자녀교육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녀교육관 및 부모의 역할 탐구.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0(1), 79-104.
- 박명희 (2003). **부모의 전통적 자녀교육과 아동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애정 (2011). **부모의 교육신념, 관여 및 가족기능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 최목화, 양명숙, 나중혜, 김민정 (2007). **현대인의 자녀양육**. 서울: 학지사.
- 박은선, 이재창 (2009).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947-965
- 박은희 (2003).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익새 (2012). **부부 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수 (1995). 올바른 가치전달을 위한 부모-자녀관계. **학생생활연구**, 16, 1-19.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현진 (2009). 역기능 양육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홍선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정복 (1985).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 변윤언, 이광호 (2009). 한국엄마 자녀교육론으로서 ‘그림자교육’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7(4), 33-41.
- 백성기 (2001). 현대사회에서의 부부간 갈등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석 (2009). 동양의 양육전통인 엄부자모(엄부자모)를 둘러싼 시선과 눈짓. 교육사상연구, 23(1), 127-140.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서정숙 (2010). 부모 부부갈등과 기혼자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기혼자녀의 자아탄력성, 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혜영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 (2010). 문항제작 및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손경화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인영 (2006).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우울 및 비행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직수 (1970). 가족관계와 아동의 성격특성.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15, 191-215.
- 송경란 (1998).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숙, 옥선화 (2005). 유아기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 신념 척도 개발.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1-13.

- 송승민, 송진숙 (2007).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5), 933-944.
- 송아람 (2006).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태도의 관계가 유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 동적가족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자 (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1).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 21세기사.
- 신석기, 최태진, 박성미, 이은영, 김유미 (2011). **심리검사의 이론과 실제**. 경기: 서현사.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혜준, 송승민 (2007). 대학 예비부모교육 강좌의 수강 전후에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자녀교육관 및 자녀양육태도의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19-1130.
- 양명숙 (1994). 부모 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Ⅱ). **대한가정학회지**, 32(1), 60-73.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양정하 (2010). **부모의 비합리적 신념과 특성불안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희정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명용, 조성우 (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 개발**. 서울: 학지사.
- 여인동 (2001). **부부가 지각한 갈등과 자아분화수준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희 (2008).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지원활동을 통해 본 학부모의 인식과 대응방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5(3), 83-106.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와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노트**, 11(1), 행동과학연구소.
- 오은영 (2012).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서울: 웅진리빙하우스.
-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과 부모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327-353.
- 오혜진, 주정란 (2004). 유치원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아동교육**, 13(2), 165-183.
- 윌유미 (1999).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영희 (1993). 한국전통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교육논총**, 12, 55-77.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 유명희 (2010). **내일을 보는 부모교육, 예술이 되는 자녀양육**. 서울: 학지사.
- 유안진 (1980). **현대교육의 기초**. 단국대학교출판부.
- 유영주 (2002).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현숙 (2006).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 태도 및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1995). **부모자녀관계: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윤지영 (2008). **부모 리더십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 숙 (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 이경숙 (2009). **강남 학부모의 자녀 학업지원활동 특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신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 김종혁, 손종현, 윤선진 (2010). 자녀교육과 구속적 가족의 삶. **한국교육연구**, 27(4), 267-292.

- 이경희 (1999).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자 (2008). **유아기 자녀교육과 양육신념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 비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민자 (2008). **늦부모와 일반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부모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래, 엄은나 (2008). **어머니와 예비 어머니의 부모관 및 자녀관**. **유아교육학논집**, 12(3), 175-194.
- 이선미, 전귀연 (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선형 (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20~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43-64.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호 (2011).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 말**. 서울: 학지사.
- 이소현 (2009).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봉 (2011). **조직 내 갈등관리전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장영애 (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4.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부부 공동양육**

- 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2), 189-210.
- 이우경 (2011). 마음을 챙기면 엄마노릇이 편해진다. 서울: 팜파스.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유아 (1990). 나의 자녀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서울: 한국교육연구원.
- 이윤미 (2005).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11).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덕, 김정신, 문혜숙, 송현미, 김일명 (2002).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정순 (2007).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성취압력과 자녀의 조기·특기교육 행태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6-94.
- 이태희 (2004). 부모의 양육신념에 따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 (1999). 인지행동적 부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분 (2010).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서울: 팜파스.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백 (2009). 중년기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아내의 관점에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77-88.
- 임경령 (2006).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8).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251-272.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K-PSI)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 정미선 (2008). 어머니 자녀교육관에 따른 조기 사교육 실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자 (2005). 유아의 창의성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창의적 특성 변인간의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란 (2011). **가족상담 및 치료**. 서울: 양서원.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1996).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 정옥분, 정순화 (2011).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원식 (1988). **아버지 방법 어머니 기술**. 서울: 집현전.
- 정원식, 김재은, 박성수 (1996).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정은영 (2008). **과보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정애 (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은, 김민태 (2011). **아이의 자존감**. 서울: 지식채널.
-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상

- 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윤경 (2011).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 성인지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과 아버지됨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문자 (2001). **자녀 사교육에 대한 태도형성과 지출행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사 (1995). **중앙백과사전**. 서울: 중앙일보.
- 진연주 (2007).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정애 (1983). **청소년의 용돈관리와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0). 아동-아버지 관계에 관한 연구(2):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30, 491-518.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 최규련 (2001). 한국농촌 여성의 문제경험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16.
- 최미경, 박성연 (1991). 부모교육경험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9(3), 191-207.
- 최미경, 신정희, 구현경, 박선영, 한현아, 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한국아동학회지**, 29(5), 227-242.
-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7, 213-237.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선운 (2008). **부모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의 사회불안 및 우울간**

- 의 관계 구조 분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왕규 (2007). 한국인의 가정갈등과 효도관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45-56.
- 최지영 (1994).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자녀교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향숙 (2011).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자아개념이 양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탁진국 (2009).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 하수경 (2005). 아동의 기질 및 부모간 양육태도 일치도가 아동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영어영문학회 (2006). 슈프림 영한사전. 서울: 민중서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6,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강사용 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1). 2011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남제 (1985). 미국가족에서의 부모 자녀관계에 대한 일연구. 사회과학, 4, 107-122.
- 한태숙 (2008).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 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선자 (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철수 (2003). 한·중 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학생생활연구*, 24(1), 39-72.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현미숙 (2003).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금초 (2005).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행위의 종류와 유형 분류 :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황기섭 (2001). 부부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 (2002).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황정해 (200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남성의 부성경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매일경제 Citylife 제304호 (2011. 11. 29). 과도한 교육열, 부부갈등의 불씨.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hrons, C. R. (1993). *The good divorce*. NY: HarperCollins.
- Anderson, S. A., Russell, C. S., & Schumm, W. R.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ies: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27-139.
- Arellano, C. M., & Markman, H. J. (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319-334.
- Ataca, B., & Bery, W. J.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3.
- Beck, A. T. (2008).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Love is never enough}**. (제석봉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8년에 출판).
-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6). Coparenting, parenting, and early emotional development. In J. P. McHale & P. A. Cowan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Understanding how family-level dynamics affect children's development: Studies of two-parent famil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Y: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etcher, W., & Macauley, R. (1990). *The seven basic quarrels of marriage: Recognize, defuse, negotiate, and resolve your conflicts*. NY: Villard Books.
- Braker, R. L. (2007). **사회사업사전: {The Social Work Dictionary}**.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 서울: 이론과 실천(원전은 1996년에 출판).
- Bronfenbrenner, U. (1976). Research on fathering: Social policy and emergent perspective. In A. Skolnick &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1980)*,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rooks, J. B. (2001). **부모와 자녀: {Parenting}**. (이순례, 문연심, 신건호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1년에 출판).
- Carlson, M. J., McLanahan, S. S., & Brooks-Gunn, J. (2008). Coparenting and nonresident father's involvement with young children after a nonmarital birth. *Demography*, 45, 461-488.

-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2000). *Child and Young Adult Data Users Guide*.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 Coe, W. C. (1972). *Challenges of personal adjustment*. San Francisco: Rinehart Press.
- Cohen, R. S., & Weissman, S. H. (1984). The parenting alliance. In R. S. Cohen, D. J. Cohler & S. H. Weissman, editors. *Parenthood: A psychodynamic perspective*. NY: Guilford Press.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s Merrill.
- Coser, L. A(1956).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NY: Free Press.
- Cui., M., & Donnellan, B. M. (2009). Trajectories of Conflict over Raising Adolescent Childre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478-494.
- Dana, D. (1990). *Talk it out!: 4 steps to managing people problem in your organiz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ess, Inc. Massachusetts.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tern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onohue, W. A., & Kolt, R. (1992). *Managing interpersonal conflict*.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5), 715-720.
- Ellis, A. (1985). Cognition and affect in emotional disturbance. *American Psychologist*, 40, 471-472.
- Epstein, J. L. (1995).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Caring for the children we share. *Phi Delta Kappan*, 76, 701-712.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NY: Norton.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22.
- Fantuzzo, J., Tighe, E., & Childs, S. (2000). Family environment questionnaire: A multivariate assessment of family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2), 367-376.
- Feinberg, M. E. (2002). Coparenting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Framework for Preven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5*(3), 173-195.
- Feinberg, M. E., Brown, L. D., & Kan, M. L. (2011). Coparenting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Feinberg, M. E., Kan, M. L., & Hetherington, E. M. (2007).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coparenting conflict on parental negativity and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687-702.
- Fishbein, M. S.,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lores, M. J. (2008).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Latina Mothers: A Comparison of Participants in an Early Intervention Program and Non-Participant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Texas.
- Floyd, F., Gilliom, L., & Costigan, C.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 1461-1479.
- Floyd, F., & Zmich, D. (1991). Marriage and the Parenting Partnership: Perceptions and Interactions of Parents with mentally retarde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1434-1448.

- Folger, J. P., & Poole, M. S. (1984). *Working through conflict: A communication perspective*. Glenview, IL: Scott, Foresman.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39-50.
- Gable, S., Crnic, K., & Belsky, J. (1994). Coparenting within the family system. *Family Relations*, 43(4), 380-380.
- Galinsky, E. (198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Cambridge, MA: Perseus Books.
- Galvin, K. M., & Brommel, B. J. (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Family communication}*. (이재연, 최영희 역). 서울: 형설출판사(원전은 1982년에 출판).
- Gelles, R. J., & Strauss, M.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 I. Ru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Y: The Free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 (1991). *Family therapy: A overview*. 3rd ed. Belmont, CA: Brooks/Cole.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oodnow, J. J., & Collins, W. A. (1991).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The nature, Source and consequences of parental ideas*. Hillsdale, NJ: Erlbaum.
- Gottman. J. M., & Nan Silver.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임주현 역). 서울: 문학사상사(원전은 2000년에 출판).
- Grych, J. H., & Fincham, F. D. (1992).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Towards greater integration of research and action. *Psychological*

- Bulletin*, 111, 434-454.
- Harrison, F. (1980). A Conceptual Model of Organizational Conflict, *Business and Society*, Winter: 30-4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errington, R. L., Mitchell, A. E., Castellani, A. M., Joseph, J. I., & Snyder D. K. (2008). Assessing disharmony and disaffe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Revision of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factor scales. *Psychological Assessment*, 20(4), 341-350.
- Hurlock, E. B. (1972). *Child Development*, 5th ed. McGraw-Hill, Inc.
- Hughes, F. M., Gordon, K. C., & Gaertner, L. (2004). Predicting Spouses' Perceptions of Their Parenting Alli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506-514.
- Koerner, K., & Jacobson, N. J. (1994). Emotion and behavior in couple therapy. In S. M. Jacobson & L. S. Greenberg(Eds.), *The heart of the matter: Perspective on emotion in marital therapy*. NY: Brunner/Mazel.
- Kovchanska, G., Kuczynski, L. & Radkr-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 Kyle P., & Marsha C. (2011). **육아동맹: {Partnership Parenting}**.(정미나 역). 서울: 한스미디어(원전은 2009년에 출판).
- Lewin, K., (1951). *Field Theory and Social Science*. NY: Harper Bros.
- Lewis, J., Owen, M. T., & Cox, M. J. (1988).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II. Incooperation of the child into the family. *Family Process*, 27, 411-421.
- Maccoby, E. E., & Mnookin, R. H. (1992). *Dividing the child*. Cambridge,

-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golin, G., Gordis, E. B., & John, R. S. (2001). Coparenting: A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in two pare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3-21.
- Mcbride, B. A. (1989). Stress and fathers' parental competence,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and parent educator. *Family Relations, 38*, 385-389.
- McConnell, M. C., & Kerig, P. K. (2002). Assessing coparenting in families of school-age children: Validation of the coparenting and family rating system.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4*(1), 44-44-58.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Hale, J. P. (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 985-996.
- McHale, J., Khazan, I., Erera, P., Rotman, T., DeCoursey, W., & McConnell, M. (2002). Coparenting in diverse family systems. In M. H. Bornstein editor. *Handbook of parenting: Being and becoming a parent. 3*(2). Mahwah, NJ: Erlbaum.
- McHale, J. P., Kuersten-Hogan, R., Lauretti, A., & Rasmussen, J, L.. (2000). Parental Reports of coparenting and observed Co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Toddler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20-236.
- McHale, J. P., Rao, N., & Krasnow, A. (2000). Constructing family climates: Chinese mother's reports of their co-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11-118.
- McHale, J. P., & Rasmussen, J. L. (1998). Coparental and family group-level

- dynamics during infancy: Early family precursors of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during preschool. *Development and Psychology*, 10(1), 39-59.
- Merrifield, K. A. (2009). *Marital and coparenting: Association with parenting cogni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USA.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Minuchin, S. (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schel W. (1994). **성격심리학: {Introduction to Personality}**. (손정락 역). 서울: 교육과학사(원전은 1986년에 출판).
- Montemayor, R. (1983). Parent and adolescent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some families most of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O'Brien, M., John, R. S., Margolin, G., & Erel, O. (1994). Reliability and diagnostic efficacy of parents' reports regarding children's exposure to marital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9, 45-62.
- Olson, D. H., & Braithwaite, D. (2004). If you hit me again, I'll hit you back: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of individuals experiencing aggression during conflicts. *Communication Studies*, 55, 271-285.
- Olweus.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su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ark, Y. Y. (2003). *Parental beliefs,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in Korea*.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Seoul, Korea. June 18-19. 2003.
- Parker, R. (1991). A Social Exchange Framework. *Mediation Quarterly*, 9(2), 121-135.

- Peterson, D. R. (1983). Conflict. In H. H. Kelly et al., *Close relationships*. NY: Freeman.
- Pinkley, R.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AP*, 75, 117-126.
- Pondy L. R.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2), 296-320.
- Ramsey, L. A. (2004).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chool culture on student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Alabama, USA.
- Robbins, S. P. (1986). *Organizations Behavior: Concepts, Controversies and Application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s. *Ethnology*, 20, 245-260.
- Rummel, R. J. (1991). *The Conflict Helix: Principles and Practices of Interpersonal, Social, and Intern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
-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ermerhorn, J. R., Hunt, H. G., & Osborn, R. N. (1985). *Managing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Inc.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metana, J. G. (1988) *Concepts of self and social convention :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family conflict*. In W. A. Collins, & M. R. Gunnar(Eds.), *21st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Hillsdale, NJ: Erlbaum.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nyder, D. K. (1981).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 (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 659-675.
- Steinmetz, S. K. (1971). Occupation and Physical punishment: A response to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 664-666.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Y: Harper & Row.
- Taylor, H. F. (1970). Balance in small group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Thevenin, T. (1997). *Mothering and Father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Child Rearing*, Avery Publishing Group, NY 11040.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Walton, R. E., & Dutton, J. M. (1969). The Management of Interdepartmental Conflict: A Model and Re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4(1), 243-272.

Development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 Education

Ok-Yeon Kang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Tae-Soo Park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construct factors, to develop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For these purposes, the questions are as follows:

Question 1. What are the construct factors of the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Question 2. Is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valid?

2-1. How is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2-2. How is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The process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41 conflicts which might caused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were extracted through reviewing literatures and 2 dimensions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were supposed according to the subject matter and types of expression of conflict - children's action or parent's role and thinking or feeling. And then,

experimental data from 797 parents were analyzed and extracted 12 conflicts in the order of frequency of conflicts. 146 items were developed on the 12 conflicts and they were narrowed down to 10 conflicts 100 items after 13 experts' reviewing contents. Adding to 2 items, professional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were conducted, 82 items were selected. After pretesting over 128 parents, 3 factors 82 items, 5-point likert preliminary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67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nd selected 50 items through item analysis. Thorough the factor analysis, 4 factors - 'method of children's education', 'contents of children's education', 'cooperative children's education', 'support act for private education', 44 items were confirmed. Again 16 items were elimin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ment variables by each factor over 444 parents. Finally,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 4 factors 28 items 5-point likert scale - was developed. Construct validity verification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ncurrent validity was proved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and standardized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4 factors of the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such as 'method of children's education', 'contents of children's education', 'cooperative children's education', 'support act for private education' were verified.

Second, on the basis of these constructs,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composed 28 items 5-point likert was developed.

Third, the total reliability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revealed .96, and by each factor revealed its high

internal consistency, 'method of children's education' .94, 'contents of children's education' .88, 'cooperative children's education' .89. 'support act for private education' .86,

Fourth, in order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4 factors structure was confirmed appropriate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lidated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by construct reliability and 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

Fifth, the concurrent validity was tested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scale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and Conflict Over Child Rearing(CCR),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DSC), and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K-PSI-SF).

Based on the results, some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is study offered the new implications for effective children's education by defining the factors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Second, the new tool measuring the level of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was developed. It will help parents' self-awareness of their interaction around their children. Also, it is possible to intervene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perception level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ossible follow-up proj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is parents' oneself report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Therefore it can be some differences between parents' perception level and children's perception level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It can offer mor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children's education to develop the children's perceptive scale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and compare parents' perception level to children's perception level of inter-parental conflict over

children's education.

Second, more studies must to be conducted continually and firm the validity of the newly developed scal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cale developed in this study to be generalized a little more.

Key words: children's education,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부 록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지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최초 146문항
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1차 예비 문항(102문항)
5. 1차 예비 문항에 대한 전문가 내용평정 결과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최종 예비 문항(82문항)
7. 사전검사 분석 결과
8.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지
9.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50문항
10. 50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44문항
12. 44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
1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부록 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초·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겪고 있는 갈등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성실성의껏** 응답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1. 3.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강 옥 린(kor153@naver.com 010-2257-4616)

※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 해당하는 내용에 √표 해주세요.

I. 저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II. 귀하의 자녀 학령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 해주세요.

초등학교 저학년(1,2,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4,5,6학년) 중학생

III.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겪는 갈등 내용**에 모두 √표 해주세요.

자 녀 행 동	① 학업성취	② 진로	③ 건강, 체력관리	④ TV시청	⑤ 교사와의 관계
	⑥ 학업태도	⑦ 공부방법	⑧ 친구관계(이성, 동성)		⑨ 집안행사참여
	⑩ 종교활동	⑪ 동아리활동	⑫ 귀가시간	⑬ 시간관리	⑭ 소비생활
	⑮ 외모관리	⑯ 인터넷게임	⑰ 성격	⑱ 규범, 질서의식	⑲ 예의범절
	⑳ 형제관계	㉑ 휴대폰사용	㉒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㉓ 책임의식
부 모 역 할	① 과잉보호	② 자립심 증진	③ 훈육과 체벌	④ 자율성 부여	
	⑤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의사소통		⑥ 자녀교육비		
	⑦ 학교생활지원(과제, 준비물, 학부모상담, 참관수업 등)			⑧ 사교육지원	
	⑨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분담		⑩ 자녀간 편애	⑪ 과잉기대 및 요구	
	⑫ 정서적 지지(존중, 애정, 신뢰, 관심)		⑬ 자녀의 동기육성 및 의지력 고취		
	⑭ 지나친 간섭과 통제	⑮ 비밀관성	⑯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전가/부재		
	⑰ 물질적 지지	⑱ 자녀와의 대화			

예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배우자와 갈등이 있으면 '학업성취'에 체크, 자녀의 외모에 대해 배우자와 갈등이 있으면 '외모'에 체크

IV. **위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 자녀교육에 있어서 배우자와 겪는 갈등 내용을 모두 적어주세요.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부록 2>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 별			자녀 학령			
	남	여	전체	초등 저	초등 고	중등	전체
N(%)	149 (18.7)	648 (81.3)	797 (100.0)	1,421 (21.4)	2,016 (30.4)	3,200 (48.2)	6,637 (100.0)

갈등 내용별 빈도 및 순위

순위	갈등 내용	N	%		순위	갈등 내용	N	%	
1	학업성취	259	32.5	4.75	22	자립심	135	16.9	2.48
1	인터넷	259	32.5	4.75	23	형제관계	121	15.2	2.22
3	시간관리	244	30.6	4.47	24	책임진가	118	14.8	2.16
4	TV시청	242	30.4	4.44	25	자율성	117	14.7	2.15
5	공부방법	240	30.1	4.40	26	과잉보호	115	14.4	2.11
6	부부의사소통	218	27.4	4.00	26	예의범절	115	14.4	2.11
7	훈육체벌	210	26.3	3.85	28	동기육성	94	11.8	1.72
8	역할분담	183	23.0	3.36	29	자녀편애	92	11.5	1.69
9	자녀와의대화	181	22.7	3.32	30	책임의식	83	10.4	1.52
10	휴대폰사용	167	21.0	3.06	31	귀가시간	82	10.3	1.50
11	사교육지원	164	20.6	3.01	31	소비생활	82	10.3	1.50
12	진로	162	20.3	2.97	33	학교생활지원	80	10.0	1.47
13	과잉기대	159	19.9	2.92	34	외모관리	68	8.5	1.25
14	간섭통제	157	19.7	2.88	35	물질적지지	58	7.3	1.06
15	자녀교육비	154	19.3	2.82	36	규범질서	51	6.4	0.94
16	건강체력	153	19.2	2.81	37	문제행동	42	5.3	0.76
17	학업태도	150	18.8	2.75	37	집안행사참여	42	5.3	0.77
18	정서적지지	145	18.2	2.66	39	종교활동	38	4.8	0.70
19	친구관계	143	17.9	2.62	40	교사와의관계	33	4.1	0.61
19	성격	143	17.9	2.62	41	동아리활동	18	2.3	0.33
21	비일관성	136	17.1	2.49					

<부록 2 계속> 학령에 따른 갈등 내용 빈도

번호	갈등 내용	N(%)			계	χ^2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1	과잉보호	36(27.48)	36(27.48)	59(45.04)	131	.019*	
2	자립심	38(23.31)	44(26.99)	81(49.69)	163		
3	훈육체벌	73(28.19)	81(31.27)	105(40.54)	259		
4	자율성	36(25.00)	41(28.47)	67(46.53)	144		
5	부부의사소통	63(24.61)	71(27.73)	122(47.66)	256		
6	자녀교육비	48(24.62)	65(33.33)	82(42.05)	195		
7	학교생활지원	27(27.55)	35(35.71)	36(36.73)	98		
8	사교육지원	47(23.74)	55(27.78)	96(48.48)	198		
9	역할분담(183)	60(27.03)	73(32.88)	89(40.09)	222		
10	자녀편애	19(15.97)	46(38.66)	54(45.38)	119		.042*
11	과잉기대	38(19.79)	61(31.77)	93(48.44)	192	.002**	
12	정서적지지	39(22.29)	54(30.86)	82(46.86)	175		
13	동기육성	21(18.10)	37(31.90)	58(50.00)	116		
14	간섭통제	35(19.44)	46(25.56)	99(55.00)	180		
15	비일관성	29(18.01)	49(30.43)	83(51.55)	161		
16	책임전가/부재	30(20.69)	50(34.48)	65(44.83)	145		
17	물질적지지	22(30.99)	30(42.25)	19(26.76)	71		
18	자녀와대화	40(18.02)	64(28.83)	118(53.15)	222		
19	학업성취	57(18.63)	88(28.76)	161(52.61)	306		.037*
20	진로	36(17.91)	61(30.35)	104(51.74)	201		.047*
21	건강/체력	43(23.24)	48(25.95)	94(50.81)	185		
22	TV시청	81(27.55)	86(29.25)	127(43.20)	294		
23	교사관계	13(30.95)	17(40.48)	12(28.57)	42		
24	학업태도	40(22.22)	58(32.22)	82(45.56)	180		
25	공부방법	64(21.69)	90(30.51)	141(47.80)	295		
26	친구관계	29(16.38)	57(32.20)	91(51.41)	177		
27	집안행사	6(11.32)	18(33.96)	29(54.72)	53		
28	종교활동	10(19.23)	15(28.85)	27(51.92)	52		
29	동아리활동	2(9.52)	3(14.29)	16(76.19)	21	.002**	
30	귀가시간	9(9.09)	32(32.32)	58(58.59)	99		
31	시간관리	62(20.67)	93(31.00)	145(48.33)	300		
32	소비생활	14(13.86)	32(31.68)	55(54.46)	101		
33	외모관리	10(12.35)	22(27.16)	49(60.49)	81		.020*
34	인터넷사용	53(16.72)	90(28.39)	174(54.89)	317		.001***
35	성격	46(26.74)	50(29.07)	76(44.19)	172		
36	규범/질서	18(27.27)	23(34.85)	25(37.88)	66		
37	예의	36(25.53)	41(29.08)	64(45.39)	141		
38	형제관계	30(19.35)	55(35.48)	70(45.16)	155		.000***
39	휴대폰	25(12.20)	60(29.27)	120(58.54)	205		
40	문제행동	16(32.65)	12(24.49)	21(42.86)	49		
41	책임의식	20(20.41)	27(27.55)	51(52.04)	98		
	전 체	1,421	2,016	3,200	6,637		

*** $p < .001$ ** $p < .01$ * $p < .05$

<부록 2 계속> 학령별 갈등 내용 순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순위	갈등 내용	N(%)	순위	갈등 내용	N(%)	순위	갈등 내용	N(%)
1	TV시청	81(5.70)	1	시간관리	93(4.61)	1	인터넷사용	174(5.44)
2	훈육체벌	73(5.14)	2	공부방법	90(4.46)	2	학업성취	161(5.03)
3	공부방법	64(4.50)	2	인터넷사용	90(4.46)	3	시간관리	145(4.53)
4	부부의사소통	63(4.43)	4	학업성취	88(4.37)	4	공부방법	141(4.41)
5	시간관리	62(4.36)	5	TV시청	86(4.27)	5	TV시청	127(3.97)
6	역할분담	60(4.22)	6	훈육체벌	81(4.02)	6	부부의사소통	122(3.81)
7	학업성취	57(4.01)	7	역할분담	73(3.62)	7	휴대폰	120(3.75)
8	인터넷사용	53(3.73)	8	부부의사소통	71(3.52)	8	자녀와 대화	118(3.69)
9	자녀교육비	48(3.38)	9	자녀교육비	65(3.22)	9	훈육체벌	105(3.28)
10	사교육지원	47(3.31)	10	자녀와 대화	64(3.17)	10	진로	104(3.25)
11	성격	46(3.24)	11	과잉기대	61(3.03)	11	간섭통제	99(3.09)
12	건강/체력	43(3.03)	11	진로	61(3.03)	12	사교육지원	96(3.00)
13	학업태도	40(2.81)	13	휴대폰	60(2.98)	13	건강/체력	94(2.94)
13	자녀와대화	40(2.81)	14	학업태도	58(2.88)	14	과잉기대	93(2.91)
15	정서적지지	39(2.74)	15	친구관계	57(2.83)	15	친구관계	91(2.84)
16	자립심	38(2.67)	16	형제관계	55(2.73)	16	역할분담	89(2.78)
16	과잉기대	38(2.67)	16	사교육지원	55(2.73)	17	비일관성	83(2.59)
18	과잉보호	36(2.53)	18	정서적지지	54(2.68)	18	정서적지지	82(2.56)
18	예의	36(2.53)	19	책임전가/부재	50(2.48)	18	학업태도	82(2.56)
18	자율성	36(2.53)	19	성격	50(2.48)	18	자녀교육비	82(2.56)
18	진로	36(2.53)	21	비일관성	49(2.43)	21	자립심	81(2.53)
22	간섭통제	35(2.46)	22	건강/체력	48(2.38)	22	성격	76(2.38)
23	책임전가/부재	30(2.11)	23	자녀편애	46(2.28)	23	형제관계	70(2.19)
23	형제관계	30(2.11)	23	간섭통제	46(2.28)	24	자율성	67(2.09)
25	비일관성	29(2.04)	25	자립심	44(2.18)	25	책임전가/부재	65(2.03)
25	친구관계	29(2.04)	26	예의	41(2.03)	26	예의	64(2.00)
27	학교생활지원	27(1.90)	26	자율성	41(2.03)	27	과잉보호	59(1.84)
28	휴대폰	25(1.76)	28	동기육성	37(1.84)	28	귀가시간	58(1.81)
29	물질적지지	22(1.55)	29	과잉보호	36(1.79)	29	동기육성	58(1.81)
30	동기육성	21(1.48)	30	학교생활지원	35(1.74)	30	소비생활	55(1.72)
31	책임의식	20(1.41)	31	귀가시간	32(1.59)	31	자녀편애	54(1.69)
32	자녀편애	19(1.34)	31	소비생활	32(1.59)	32	책임의식	51(1.59)
33	규범/질서	18(1.27)	31	물질적 지지	30(1.49)	33	외모관리	49(1.53)
34	문제행동	16(2.13)	34	책임의식	27(1.34)	34	학교생활지원	36(1.13)
35	소비생활	14(0.99)	35	규범/질서	23(1.14)	35	집안행사	29(0.91)
36	교사관계	13(0.91)	36	외모관리	22(1.09)	36	종교활동	27(0.84)
37	종교활동	10(0.70)	37	집안행사	18(0.89)	37	규범/질서	25(0.78)
37	외모관리	10(0.70)	38	교사관계	17(0.84)	38	문제행동	21(0.66)
39	귀가시간	9(0.63)	39	종교활동	15(0.74)	39	물질적지지	19(0.59)
40	집안행사	6(0.63)	40	문제행동	12(0.60)	40	동아리활동	16(0.50)
41	동아리활동	2(0.14)	41	동아리활동	3(0.15)	41	교사관계	12(0.38)
전체		1,421	전체		2,016	전체		3,200

<부록 3>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최초 146문항

*()는 1차 예비문항 결과임

<학업>

- Q1. 우리 부부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가 공부에 대한 동기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2. 우리 부부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공부습관을 잡아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번)
- Q3. 우리 부부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점수와 등수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4. 우리 부부는 공부나 성적으로 인한 자녀의 친구나 부모,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5. 우리 부부는 자녀가 잘 되려면 일단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2번과 통합하여 3번)
- Q6. 우리 부부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공부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4번)
- Q7.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집중력이 떨어져도 억지로라도 책상에 오래 앉아있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9.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5번)
- Q10.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1번)
- Q11.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숙제(학교·과외숙제, 봉사활동 등)를 대신해 주더라도 반드시 숙제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6번)
- Q12.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들이 사생활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7번)
- Q1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취약한 과목을 보충해주기 위해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14.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험기간에 자녀를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15.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직접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8번)

<진로 및 적성>

Q16. 우리 부부는 자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3번)

Q17.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를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2번)

Q18.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견학, 검사, 경험 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4번)

Q19.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0번)

Q20. 우리 부부는 자녀의 적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교·학과에 진학하기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5번)

Q21.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나 적성과약에 필요한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삭제)

Q22. 우리 부부는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5번과 통합하여 3번)

Q2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 크다는 생각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6번)

Q24.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7번)

Q25.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26.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2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재능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서로 다르다. (18번)

<시간관리>

- Q2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취침시간이나 기상시간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2번)
- Q29. 우리 부부는 자녀의 방학이나 공휴일의 시간관리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3번)
- Q30. 우리 부부는 자녀가 평상시에 늦잠을 자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31.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4번)
- Q32. 우리 부부는 자동차로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5번)
- Q33. 우리 부부는 주말이나 공휴일, 자녀의 귀가시간 지도에 대해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32번)
- Q34.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천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4번)
- Q35. 우리 부부는 자녀의 규칙적인 생활 지도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6번, 38번과 통합하여 27번)
- Q36. 우리 부부는 자녀의 방과 후 스케줄관리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7번)
- Q37. 우리 부부는 자녀가 숙제나 시험공부를 제때 하지 하도록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38. 우리 부부는 자녀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도록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7번)
- Q3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약속시간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 Q40. 우리 부부는 자녀의 적절한 운동지도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4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식사습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32번)
- Q4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체중조절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4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외모관리(옷차림, 머리모양)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3번)
- Q44. 우리 부부는 자녀가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4번)
- Q45. 자녀의 위생 혹은 청결지도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5번)
- Q46.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

다. (36번)

Q47.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한 지원방법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7번)

Q48. 우리 부부는 자녀의 간식거리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49. 우리 부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억지로라도 자녀에게 먹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50. 우리 부부는 식사시간 만큼은 자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40번)

Q51.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1번)

<문화매체이용>

Q52. 우리 부부는 자녀의 TV 시청 시간 양을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53번과 통합하여 28번)

Q53. 우리 부부는 자녀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8번)

Q54. 우리 부부는 자녀의 인터넷 게임을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55번, 56번, 57번과 통합하여 29번)

Q55. 우리 부부는 자녀의 컴퓨터 사용환경 구성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9번)

Q56. 우리 부부는 자녀의 인터넷 쇼핑을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9번)

Q5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컴퓨터를 이용 시간 양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9번)

Q58. 우리 부부는 자녀가 휴대폰 이용 시간 양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0번)

Q59. 우리 부부는 자녀의 휴대폰 이용을 지도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0번)

Q60. 우리 부부는 자녀가 컴퓨터, 휴대폰 혹은 TV시청 때문에 다른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8, 29, 30번에 포함)

Q61. 우리 부부는 자녀의 휴대폰 이용요금 부담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62. 우리 부부는 자녀의 휴대폰 구입이나 교체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63. 우리 부부는 자녀가 귀찮게 하면 컴퓨터 이용이나 TV 시청을 쉽게 허용해버리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Q64. 우리 부부는 자녀가 TV시청, 컴퓨터, 휴대폰 이용으로 인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8, 29, 30번에 포함)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 의사소통>

- Q65. 남편이(아내가) 내게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87번)
- Q66.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관한 서로간의 의견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속상하다. (88번)
- Q67.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서 속상하다. (89번)
- Q68.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하지 않아 속상하다. (90번)
- Q69. 남편이(아내가) 여러 가지 핑계로 자녀문제에 대한 대화를 피해서 속상하다. (제거)
- Q70.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속상하다. (91번)
- Q7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지 않아 속상하다. (92번)
- Q72.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93번)
- Q7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대화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속상하다. (94번)
- Q7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려 해서 속상하다. (제거)

<훈육 및 체벌>

- Q7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속상하다. (41번)
- Q76. 남편이(아내가)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체벌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서 속상하다. (42번)
- Q7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연령에 비해 심하게 체벌하거나, 혹은 너무 어린 아이 수준에서 훈육하고 체벌해서 속상하다. (제거)
- Q78.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한 훈육이나 체벌방침이 나와 너무나 달라서 속상하다. (제거)
- Q79. 남편의(아내의) 자녀에 대한 훈육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처벌적이어서 속상하다. (제거)
- Q8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덕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속상하다. (43번)
- Q81. 남편이(아내가) 내가 자녀에게 야단을 치거나 처벌할 때 종종 끼어들어서 속상하다. (44번)
- Q82.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잘못하면 일단 큰소리부터 쳐서 속상하다. (47번)
- Q83.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45번)

- Q8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편애하여 훈계, 처벌해서 속상하다. (제거)
- Q85. 남편이(아내가) 아예 자녀를 훈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46번)
- Q86.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똑같은 잘못에 대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체벌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서 속상하다. (75번과 통합하여 42번)

<사교육지원 및 자녀교육비>

- Q8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려고 해서 속상하다. (50번)
- Q88. 남편이(아내가) 남들이 하는 대로 사교육을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52번)
- Q89. 자녀교육비(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서 힘들고 속상하다. (53번)
- Q90.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건강이나 체력에 비해 무리한 수준으로 사교육을 시켜서 속상하다. (54번)
- Q91. 남편이(아내가) 자녀는 싫다는데 부모 자신이 원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 시켜서 속상하다. (55번)
- Q92.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학원 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 없이 주위 소문에 이끌려 무작정 결정해서 속상하다. (56번)
- Q93. 사교육이나 학원 때문에 자녀가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속상하다. (제거)
- Q94. 남편이(아내가) 방학이나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 해서 속상하다. (57번)
- Q95. 남편과(아내와) 자녀의 EBS 교육방송 활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속상하다. (제거)
- Q96. 남편과(아내와) 자녀의 인터넷 학습 수강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속상하다. (제거)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분담 및 책임>

- Q97.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95번)
- Q98.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 탓으로 돌려서 속상하다. (제거)
- Q99.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희생)해서 속상하다. (99번)
- Q100.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0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본보기가 되어주지 않아 속상하다. (97번)
- Q102.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이 한 쪽 부모에게 편중되어 있어 속상하다. (제거)
- Q103. 남편이(아내가) 부모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속상하다. (103번)

- Q104.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성별과 성장에 따른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 속상하다. (제거)
- Q10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99번)
- Q106.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속상하다. (100번)
- Q107.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요시 여겨서 속상하다. (제거)
- Q108.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자녀에게 해주는 것(의식주해결, 경제적 지원, 등학교 지원 등) 으로 부모로서의 1차적인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102번)

<정서적 지지>

- Q109. 남편이(아내가) 종종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해서 속상하다. (60번)
- Q110.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 속상하다. (61번)
- Q11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 속상하다. (62번)
- Q112. 남편이(아내가) 자녀세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속상하다. (63번)
- Q113.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64번)
- Q114. 남편이(아내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귀찮아해서 속상하다. (65번)
- Q115. 남편이(아내가) 자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여기는 일이 있어서 속상하다. (66번)
- Q116.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일(학업, 친구, 고민, 관심사 등)에 대해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67번)
- Q11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무시해서 속상하다. (68번)
- Q11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자존심이나 기를 꺾는 일이 자주 있어서 속상하다. (69번)
- Q119. 남편이(아내가)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기분을 맞추려고 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2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한 격려나 칭찬, 지지에 인색해서 속상하다. (70번)
- Q12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편잔을 주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제거)
- Q122.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해서 속상하다. (71번)
- Q123. 남편이(아내가)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속상하다. (제거)
- Q124.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72번)
- Q125.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려서 속상하다. (73번)

<과잉간섭 및 통제>

- Q12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잔소리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2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해서 속상하다. (74번)
- Q128. 남편이(아내가)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75번)
- Q129.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알려고 해서 속상하다. (76번)
- Q130.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에도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3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속상하다. (77번)
- Q132.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하게 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33.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항상 전화로 확인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34.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속상하다. (78번)
- Q135.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부모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쾌해해서 속상하다. (79번)
- Q136.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제멋대로 하는데도 통제하지 않아 속상하다. (80번)

<과잉기대 및 요구>

- Q137.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달성하기 힘든 성적을 요구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38. 남편이(아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요구해서 속상하다. (81번)
- Q139.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해서 속상하다. (82번)
- Q140.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기대하는 목표까지 자녀가 성취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83번)
- Q141.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했는데도 칭찬은 아예 없거나 잠깐이고, '다음엔 ~ 만큼(까지)'이라는 식으로 더 높은 성취를 요구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42.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자녀에게 욕박지르고 다그쳐서 속상하다. (84번)
- Q143. 남편이(아내가)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우월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85번)
- Q144.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래서 속상하다. (86번)
- Q14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속상하다. (제거)
- Q146. 남편이(아내가) 내 자녀는 '~해야만(~이어야만)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속상하다. (제거)

<부록 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1차 예비 문항(102문항)

*()는 최종 예비문항 결과임

<학업>

- Q1.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습관을 잡아주는 데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번)
- Q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과외(학원, 학습지, 개인과외)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43번)
- Q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번)
- Q4. 우리 부부는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공부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5.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3번)
- Q6.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숙제(학교·과외숙제, 봉사활동 등)를 대신해 주더라도 반드시 숙제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7.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4번)
- Q8.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9.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5번)
- Q10.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6번)
- Q1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7번)

<진로 및 적성>

- Q12.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

- 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9번)
- Q13. 우리 부부는 자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14.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견학, 검사, 경험 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15. 우리 부부는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0번)
- Q16.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1번)
- Q1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 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2번)
- Q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재능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서로 다르다. (제거)
- Q1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13번)
- Q20.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4번)
- Q21. 우리 부부는 높은 내신등급을 얻을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시간관리>

- Q22. 우리 부부는 자녀의 기상시간이나 취침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5번)
- Q23. 우리 부부는 방학이나 공휴일의 자녀의 시간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6번)
- Q24.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7번)
- Q25. 우리 부부는 자동차로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7번)
- Q26. 우리 부부는 주말이나 공휴일, 자녀의 귀가시간 지도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2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8번)

- Q28. 우리 부부는 자녀가 TV 시청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9번)
- Q2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컴퓨터 이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0번)
- Q30. 우리 부부는 자녀가 휴대폰 이용 때문에 다른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1번)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 Q31.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3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식사 및 간식습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2번)
- Q3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외모관리(옷차림, 머리모양)에 대해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3번)
- Q34. 우리 부부는 자녀가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것에 대해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 Q35. 우리 부부는 자녀의 위생 혹은 청결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4번)
- Q36.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5번)
- Q37.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6번)
- Q38. 우리 부부는 자녀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8번)
- Q3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29번)
- Q40. 우리 부부는 식사시간 만큼은 자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제거)

<훈육 및 체벌>

- Q41.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에게 겁을 주거나 헐박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30번)

- Q42. 남편이(아내가) 기분에 따라 자녀를 체벌해서 속상하다. (제거)
- Q43.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가르치려는 덕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속상하다. (31번)
- Q44. 남편이(아내가) 내가 자녀를 야단을 치거나 처벌할 때 종종 끼어들어서 속상하다. (32번)
- Q45.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33번)
- Q46. 남편이(아내가) 아예 자녀를 훈계하거나 체벌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34번)
- Q4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처벌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속상하다. (35번)
- Q48.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36번)
- Q49.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말보다 매를 먼저 들어서 속상하다. (37번).

<사교육지원>

- Q50.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켜서 속상하다. (38번)
- Q51. 남편이(아내가) 학업과 관련된 사교육만을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제거)
- Q52. 남편이(아내가) 남들이 하는 사교육은 우리 자녀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39번)
- Q53. 자녀교육비(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서 힘들고 속상하다. (40번)
- Q54.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사교육을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41번)
- Q55. 남편이(아내가) 부모 자신이 원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42번)
- Q56. 남편이(아내가) 정확한 정보 없이 주위 소문에 이끌려 자녀의 학원을 결정해서 속상하다. (제거)
- Q57. 남편이(아내가) 방학이나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고 해서 속상하다. (44번)
- Q58.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사교육 때문에 집안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을 제외해서 속상하다. (45번)
- Q5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46번)

<정서적 지지>

- Q60. 남편이(아내가) 종종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 속상하다. (제거)
- Q6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지 않아 속상하다. (47번)
- Q62.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 속상하다. (48번)
- Q63. 남편이(아내가) 자녀세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속상하다. (제거)
- Q6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49번)
- Q65. 남편이(아내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귀찮아해서 속상하다. (제거)
- Q66. 남편이(아내가) 자녀와의 약속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어기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50번)
- Q6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일(학업, 친구, 고민, 관심사 등)에 대해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51번)
- Q6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52번)
- Q6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기를 꺾는 일이 자주 있어서 속상하다. (53번)
- Q7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한 격려나 칭찬, 지지에 인색해서 속상하다. (54번)
- Q7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해서 속상하다. (55번)
- Q72.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56번)
- Q73.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려서 속상하다. (57번)

<과잉간섭·통제 및 기대>

- Q74.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해서 속상하다. (58번)
- Q75.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59번)
- Q7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알려고 해서 속상하다. (60번)
- Q77.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속상하다. (61번)
- Q78.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속상하다. (제거)
- Q79.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부모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불쾌해 해서 속상하다. (62번)
- Q80.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제멋대로 하는데도 통제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63번)
- Q81.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남들과 비교해서 속상하다. (64번)
- Q82.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해서 속상하다. (65번)
- Q83.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기대하는 목표까지 자녀가 성취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66번)
- Q84.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으면 자녀에게 욕박지르고 다그쳐서 속상하

다. (67번)

Q85. 남편이(아내가)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우월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68번)

Q86.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래서 속상하다. (제거)

<부부간 의사소통>

Q87.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속상하다. (69번)

Q88.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제거)

Q89.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내서 속상하다. (제거)

Q90.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70번)

Q91.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아서 속상하다. (71번)

Q92.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72번)

Q9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대화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속상하다.
(73번)

Q9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74번)

<역할분담 및 책임>

Q9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속상하다. (75번)

Q96. 남편이(아내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헌신해서 속상하다.
(76번)

Q97. 남편이(아내가)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 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77번)

Q98.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속상하다. (78번)

Q99.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존중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79번)

Q100.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속상하다. (80번)

Q10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속상하다. (81번)

Q102.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82번)

<부록 5>

1차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 내용평정 결과 (전혀 타당하지 않다(1) - 타당하지 않다(2) - 타당하다(3) - 매우 타당하다(4))

문항	평 정 결 과									결과	평정자 의견
	평정자1	평정자2	평정자3	평정자4	평정자5	평정자6	평정자7	평정자8	평정자9		
1	3	4	3	4	3	4	3	3	3	채택	
2	3	4	4	4	2	4	2	4	3	사교육	문장 표현 수정 필요, 사교육에 적합
3	3	4	4	4	3	4	4	3	2	채택	
4	3	3	3	4	3	4	3	3	3	1과 합	1과 중복
5	3	4	4	4	3	4	3	3	3	채택	
6	3	3	3	4	2	3	4	3	3	제외	사소한 문제
7	3	4	4	3	3	2	3	3	2	채택	
8	3	2	4	4	3	3	4	3	4	제외	
9	3	2	4	4	1	4	4	3	3	채택	용어 사용 모호함
10	3	4	4	4	1	2	4	3	3	채택	
11	3	3	4	4	4	3	3	3	3	채택	
12	3	4	4	4	4	4	4	3	3	채택	
13	3	2	4	4	4	3	3	3	2	제외	집단의 차이, 문장 표현 수정 필요
14	3	4	4	4	4	4	4	4	3	채택	
15	3	4	3	4	1	3	4	3	4	채택	보편성 부족, 12와 같은 맥락
16	3	3	3	4	4	4	3	3	3	채택	14와 중복
17	3	2	3	4	4	4	2	3	3	채택	용어 모호함, 12와 중복
18	3	4	4	4	1	3	4	3	3	제외	내용추가(및 적성)
19	3	4	4	4	4	4	3	3	4	채택	
20	4	4	4	4	1	4	4	3	3	채택	
21	3	3	2	4	1	3	3	3	3	제외	보편성 부족

<부록 5 계속>

문항	평 정 결 과									결과	평정자 의견
	평정자1	평정자2	평정자3	평정자4	평정자5	평정자6	평정자7	평정자8	평정자9		
22	3	3	4	4	4	4	4	3	2	채택	
23	3	4	3	4	4	4	4	3	3	채택	
24	3	2	4	4	4	4	3	3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함
25	3	3	2	4	1	3	3	3	3	건강,체력	관련성 부족
26	3	4	3	4	4	4	4	3	3	23과 합	문장 표현 모호함, 23과 중복
27	3	2	4	4	4	4	4	3	3	채택	
28	4	3	3	4	4	3	3	4	3	채택	28,29,30 한 문항으로 구성
29	4	3	3	4	4	3	4	4	3	채택	
30	3	2	3	3	4	3	4	3	3	채택	자녀의 휴대폰사용을 부모가 모를 수도
31	3	4	3	4	1	4	4	3	2	제외	
32	3	4	4	4	4	4	4	3	3	채택	
33	4	4	4	4	3	4	4	4	4	채택	
34	3	4	3	4	3	2	3	3	4	33과 합	33 내용 속에 포함됨
35	3	2	4	4	4	3	4	3	3	채택	
36	4	4	3	3	1	2	3	3	3	채택	내용이 모호함
37	3	3	4	4	3	3	4	3	3	채택	
38	4	4	2	2	1	2	2	3	3	채택	내용이 모호함, 관련성 부족
39	4	3	2	2	1	2	2	3	4	채택	내용이 모호함, 관련성 부족
40	2	2	2	3	3	3	4	3	1	제외	문장 표현 수정 필요, 관련성 부족
41	3	4	-	4	3	3	4	3	3	채택	
42	3	4	-	4	3	4	4	3	3	41과 합	41과 한 문항으로
43	3	2	-	4	3	4	3	4	4	채택	
44	4	3	-	4	3	4	4	4	3	채택	

<부록 5 계속>

문항	평 정 결 과									결과	평정자 의견
	평정자1	평정자2	평정자3	평정자4	평정자5	평정자6	평정자7	평정자8	평정자9		
45	3	4	-	4	3	4	3	3	3	채택	47과 한 문항으로
46	3	3	-	4	3	4	4	3	3	채택	
47	3	2	-	4	3	3	4	4	4	채택	
48	3	3	-	4	3	4	4	3	3	채택	
49	3	3	-	4	3	4	4	3	2	채택	
50	3	3	-	4	3	4	4	4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함
51	3	2	-	4	2	3	4	3	3	채택	
52	3	3	-	4	3	4	4	3	3	채택	
53	4	3	-	4	4	4	4	3	4	채택	
54	3	2	-	4	3	4	4	3	3	채택	
55	3	3	-	4	4	4	4	3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함
56	3	2	-	4	3	4	4	3	3	채택	
57	3	3	-	4	2	3	3	3	3	채택	
58	3	4	-	4	3	3	3	3	3	채택	
59	3	4	-	4	4	4	4	3	3	채택	
60	3	3	-	4	4	4	3	3	3	61과 합	60과 의미 중복, 진로적성에 적합
61	3	3	-	4	4	4	3	3	4	채택	
62	4	3	-	4	1	4	4	3	4	68과 합	
63	3	3	-	4	3	4	4	3	4	61과 합	
64	3	2	-	3	4	4	4	3	3	채택	
65	3	2	-	3	4	4	4	3	2	제외	문장 표현 모호함, 60.61.64를 한문항으로 용어 표현 고려

<부록 5 계속>

문항	평 정 결 과									결 과	평정자 의견
	평정자1	평정자2	평정자3	평정자4	평정자5	평정자6	평정자7	평정자8	평정자9		
66	3	2	-	2	3	3	4	3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함, 부모자녀관계와 관련
67	3	4	-	4	4	3	4	3	3	채택	
68	4	4	-	4	4	4	3	3	3	채택	62와 합
69	4	4	-	4	4	4	3	3	3	채택	
70	3	4	-	4	4	4	4	3	3	채택	
71	3	3	-	4	4	2	4	3	3	채택	
72	3	3	-	4	4	4	4	3	3	채택	문장 표현 수정 필요
73	4	4	-	4	4	4	4	3	3	채택	
74	4	4	-	4	4	4	4	3	3	채택	74와 한 문항으로
75	3	4	-	4	4	4	4	3	3	채택	
76	3	4	-	4	4	4	4	3	3	채택	부적절
77	3	2	-	4	4	4	4	3	3	채택	
78	3	2	-	4	4	4	4	3	2	제외	부적절
79	3	4	-	4	4	4	3	3	3	채택	관련성부족(훈육에 적합)
80	3	4	-	4	1	4	4	3	3	채택	
81	3	4	-	4	3	4	4	3	3	채택	
82	3	3	-	4	3	4	4	3	3	채택	
83	3	3	-	4	3	4	4	3	4	채택	
84	3	4	-	4	3	4	4	3	3	채택	
85	3	3	-	4	3	4	3	3	3	채택	85와 합
86	3	3	-	4	3	4	3	3	2	채택	
87	3	4	-	4	4	4	4	3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하거나 부적절
88	3	2	-	4	4	4	4	3	2	제외	

<부록 5 계속>

문항	평 정 결 과									결과	평정자 의견
	평정자1	평정자2	평정자3	평정자4	평정자5	평정자6	평정자7	평정자8	평정자9		
89	3	2	-	4	4	4	4	3	2	제외	문장 표현 모호하거나 부적절
90	4	4	-	3	4	4	4	4	3	채택	
91	4	4	-	2	4	4	3	4	3	채택	관련성 부족
92	4	2	-	4	4	4	4	3	4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하거나 부적절
93	3	3	-	4	4	4	4	3	3	채택	
94	3	3	-	4	4	4	4	3	3	채택	문장 표현 수정 필요
95	3	4	-	4	4	3	4	4	3	채택	
96	3	3	-	4	4	3	4	3	2	채택	
97	3	2	-	4	4	3	3	4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하거나 부적절
98	3	3	-	3	3	3	4	3	3	채택	
99	3	2	-	4	4	3	4	4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하거나 부적절
100	3	2	-	4	4	4	4	3	3	채택	문장 표현 모호하거나 부적절
101	3	3	-	4	3	3	4	3	3	채택	
102	3	3	-	3	2	3	4	3	3	채택	문장 표현 수정 필요

<부록 6>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최종 예비 문항(82문항)

<학업>

- Q1.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습관을 잡아주는 데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3.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4.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5.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6.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8. 우리 부부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집안행사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진로 및 적성>

- Q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0. 우리 부부는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 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3. 우리 부부는 자녀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 Q14.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시간관리>

- Q15. 우리 부부는 자녀의 기상시간이나 취침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6. 우리 부부는 방학이나 공휴일의 자녀의 시간관리에 어느 정도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7.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9. 우리 부부는 자녀가 TV시청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0. 우리 부부는 자녀가 컴퓨터 이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1. 우리 부부는 자녀가 휴대폰 이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 Q22. 우리 부부는 현재 자녀의 식사 및 간식습관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외모(옷차림, 머리모양)에 대해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4. 우리 부부는 자녀의 위생 혹은 청결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5.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6.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7.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동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Q28. 우리 부부는 자녀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Q2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훈육 및 체벌>

Q30. 남편은(아내는) 자녀를 훈계할 때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Q31.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덕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속상하다.

Q32. 내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처벌할 때 남편이(아내가) 종종 끼어들어서 짜증난다.

Q33.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남편이(아내가)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Q34. 내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아예 훈계하거나 체벌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

Q35. 자녀를 훈육하거나 체벌할 때 남편이(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

Q36.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Q37. 자녀를 훈육할 때 남편이(아내가) 말로 하기보다 매를 먼저 들어서 화가 난다.

<사교육지원>

Q38.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Q39.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Q40. 자녀교육비(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 힘들고 속상하다.

Q41.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Q42.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Q43.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 Q44.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45. 남편이(아내가) 사교육 때문에 집안행사에 자녀가 참석하는 것을 제외시키려 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고 속상하다.
- Q4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사교육시키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답답하고 짜증난다.

<정서적 지지>

- Q4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 Q4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난다.
- Q4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 Q50. 남편이(아내가) 자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어기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 Q5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일(학업, 친구, 고민, 관심사 등)에 대해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 Q52. 내 남편은(아내는)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 속상하다.
- Q53. 남편이(아내가) 자주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기를 꺾어서 화가 난다.
- Q54.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격려나 칭찬, 지지를 잘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 Q5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속상하다.
- Q5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 Q5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과잉간섭·통제 및 기대>

- Q5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 Q59.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 Q6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을 알려고 해서 짜증난다.
- Q6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답답하고 속상하다.
- Q62.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 Q63.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제멋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아 화가 난다.
- Q6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남들과 비교해서 화가 난다.
- Q65.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해서 화가 난다.
- Q66. 남편이(아내가) 정한 목표를 자녀에게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고

속상하다.

Q67. 남편(아내)의 기대에 차지 않으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Q68.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남편(아내)의 태도가 답답하고 속상하다.

<부부간 의사소통>

Q69. 남편이(아내가) 내게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Q70.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

Q71.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남편이(아내가) 별로 개의치 않아서 속상하다.

Q72.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다.

Q7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대화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속상하다.

Q7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역할분담 및 책임>

Q7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Q76. 남편이(아내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속상하다.

Q77. 남편이(아내가)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Q78. 남편이(아내와) 자녀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일에 무관심하여 속상하다.

Q79.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Q80.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Q8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Q82.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부록 7>

사전검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성별	부	29	28.7	부모 교육 경험	예	47	46.5	
	모	72	71.3		아니오	54	53.5	
	전체	101	100.0		전체	101	100.0	
연령	30대	22	22.0	자녀 수	1명	17	16.8	
	40대	68	68.0		2명	61	60.4	
	50대	10	10.0		3명	21	20.8	
	60대	-	-		4명 이상	2	2.0	
	전체	100	100.0		전체	101	100.0	
학력	중졸	-	-	자녀 학력	초1	11	10.9	
	고졸	24	23.8		초2	6	6.0	
	전문대졸	18	17.8		초3	10	9.9	
	대졸	49	48.5		초4	8	7.9	
	대학원졸 이상	10	9.9		초5	7	6.9	
전체	101	100.0	초6		8	7.9		
직업	주부	40	40.0		자녀 성별	중1	8	7.9
	압박사 고위압원 및 관리자	4	4.0			중2	8	7.9
	전문가/자유인	12	12.0			중3	9	8.9
	기술공 및 준전문가	3	3.0			고1	10	9.9
	사무직	25	25.0	고2		12	11.9	
	서비스직	4	4.0	고3		4	4.0	
	농업 및 어업	-	-	전체		101	100.0	
	기능직 및 생산직	2	2.0	자녀 출생 순위		남	62	61.4
	장치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1	1.0			여	39	38.6
	단순노무직 근로자	1	1.0			전체	101	100.0
	군인	-	-	자녀 의 출생 순위		첫째	70	70.7
	자영업	6	6.0			둘째	26	26.3
	기타	2	2.0			셋째	2	2.0
	전체	100	100.0			넷째 이상	1	1.0
경제 수준	최하	-	-		전체	99	100.0	
	하	5	5.0					
	중하	19	18.7					
	중	53	52.5					
	중상	22	21.8					
	상	2	2.0					
최상	-	-						
전체	101	100.0						

<부록 7 계속> 기술통계

문항	N	Minimum	Maximum	M	SD
Q1	101	1.00	9.00	4.3564	2.06681
Q2	101	1.00	8.00	3.9307	2.10360
Q3	100	1.00	9.00	4.0000	2.01509
Q4	101	1.00	10.00	4.0198	2.04929
Q5	100	1.00	12.00	4.2700	2.50597
Q6	98	1.00	8.00	3.8776	1.88464
Q7	100	1.00	9.00	3.9000	2.02759
Q8	99	1.00	10.00	3.9192	2.32413
Q09	101	1.00	9.00	3.5248	1.95752
Q10	101	1.00	10.00	3.3564	2.04736
Q11	100	1.00	8.00	3.7500	1.88227
Q12	101	1.00	8.00	3.4158	1.74509
Q13	100	1.00	9.00	3.6100	2.11725
Q14	101	1.00	8.00	3.2277	1.83783
Q15	101	1.00	10.00	3.7822	2.32209
Q16	101	1.00	9.00	3.6634	1.88296
Q17	101	1.00	9.00	3.7723	1.92811
Q18	101	1.00	9.00	3.7525	1.92565
Q19	99	1.00	10.00	3.6263	2.09268
Q20	101	1.00	10.00	3.5842	2.10840
Q21	100	1.00	10.00	3.2500	1.94560
Q22	101	1.00	9.00	3.4554	1.92107
Q23	101	1.00	10.00	3.4455	1.83562
Q24	101	1.00	10.00	3.2673	2.09232
Q25	101	1.00	8.00	3.3267	1.74991
Q26	100	1.00	8.00	3.2000	1.95402
Q27	100	1.00	9.00	3.4500	2.18985
Q28	101	1.00	9.00	3.3861	1.88133
Q29	101	1.00	9.00	3.4455	1.94667
Q30	101	1.00	10.00	4.3861	2.39153
Q31	100	1.00	10.00	3.6700	2.22045
Q32	100	1.00	10.00	3.6400	2.08176
Q33	100	1.00	9.00	3.6000	2.02010
Q34	98	1.00	8.00	3.1122	1.84381
Q35	99	1.00	10.00	4.6667	2.35606
Q36	100	1.00	10.00	4.6700	2.59780
Q37	100	1.00	10.00	3.0700	2.37944
Q38	99	1.00	12.00	2.8182	2.12066
Q39	100	1.00	9.00	2.8400	2.16361
Q40	99	1.00	9.00	3.4747	2.18223
Q41	98	1.00	9.00	3.7143	2.29297

<부록 7 계속> 기술통계

문항	N	Minimum	Maximum	M	SD
Q42	98	1.00	11.00	3.0510	2.10239
Q43	98	1.00	8.00	2.8571	1.91036
Q44	98	1.00	8.00	2.5612	1.93218
Q45	99	1.00	8.00	2.6667	1.96915
Q46	98	1.00	9.00	3.0612	2.07497
Q47	100	1.00	10.00	3.3700	2.40645
Q48	100	1.00	10.00	3.4100	2.44162
Q49	100	1.00	9.00	3.0600	2.18729
Q50	100	1.00	10.00	3.2100	2.18487
Q51	100	1.00	10.00	3.4700	2.28944
Q52	100	1.00	9.00	3.1800	2.02699
Q53	101	1.00	9.00	3.6832	2.40803
Q54	101	1.00	9.00	3.6832	2.29752
Q55	100	1.00	10.00	3.7400	2.65383
Q56	101	1.00	10.00	3.7525	2.47550
Q57	101	1.00	10.00	3.7426	2.44399
Q58	100	1.00	10.00	3.5700	2.50355
Q59	101	1.00	10.00	3.4752	2.30475
Q60	100	1.00	10.00	3.0500	2.22191
Q61	99	1.00	9.00	3.0202	2.12363
Q62	101	1.00	10.00	3.5149	2.28304
Q63	101	1.00	10.00	2.9109	2.02039
Q64	99	1.00	10.00	3.2121	2.33112
Q65	101	1.00	10.00	3.0891	2.31559
Q66	101	1.00	10.00	2.9604	2.11150
Q67	100	1.00	10.00	3.1700	2.32272
Q68	101	1.00	10.00	2.9901	2.16100
Q69	101	1.00	10.00	3.1386	2.29360
Q70	101	1.00	10.00	3.3960	2.21846
Q71	101	1.00	10.00	3.5248	2.46006
Q72	100	1.00	10.00	3.8900	2.48183
Q73	101	1.00	10.00	3.8317	2.38357
Q74	101	1.00	9.00	3.9307	2.33348
Q75	101	1.00	10.00	3.9505	2.65472
Q76	100	1.00	8.00	2.8000	2.04000
Q77	101	1.00	10.00	4.1188	2.65815
Q78	101	1.00	10.00	4.0792	2.57947
Q79	100	1.00	10.00	3.2500	2.13378
Q80	101	1.00	10.00	3.2178	2.17533
Q81	101	1.00	10.00	3.6733	2.44585
Q82	100	1.00	10.00	3.8600	2.42887

<부록 8>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는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배우자와 경험하는 갈등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화롭게 부모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실제적인 부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내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강 옥 련(kor153@naver.com) 010-2257-4616)

※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나,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1. 저는 (① 아버지 ② 어머니)입니다.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_____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 ① 주부
②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예: 최고 경영자, 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③ 전문가/자유인(예: 교수, 의사, 교사, 연구원, 법률가,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등)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예: 엔지니어, 항공기 조종사, 건축사, 디자이너 등)
⑤ 사무직(예: 공무원, 은행원, 비서, 우편관련 사무원, 사회단체 직원 등)
⑥ 서비스직(예: 헤어디자이너, 판매원, 배달원, 부동산거래 직원 등)

- ⑦ 농업 및 어업
- ⑧ 기능직 및 생산직(예: 도장원, 용접원, 인쇄, 섬유, 신발 등의 기능원)
- ⑨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예: 철도기관사, 운전자 등)
- ⑩ 단순노무직 근로자(예: 구두미화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등)
- ⑪ 군인 ⑫ 자영업 ⑬ 기타

5. 귀하의 가정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최하 ② 하 ③ 중하 ④ 중 ⑤ 중상 ⑥ 상 ⑦ 최상

6.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의 자녀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 다음은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이 설문 응답에 적용할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사항에 √표 해주세요.

8. 학령	9. 성별	10. 출생순위
① 초 1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② 초 2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③ 초 3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④ 초 4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⑤ 초 5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⑥ 초 6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⑦ 중 1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⑧ 중 2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⑨ 중 3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⑩ 고 1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⑪ 고 2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⑫ 고 3학년	① 남 ② 여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자녀를 키우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소한 일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아래의 각각의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의견차이로 발생하는 갈등(불쾌감, 속상함, 긴장감, 짜증, 말다툼 등)수준에 표시해주시기 바라며, 앞에 체크하신 한 명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답변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1. 자녀의 문제에 대한 **부부의 생각과 태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아래와 같은 대립상황이 발생할 때** 귀하께서 갈등을 느끼는 수준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습관을 잡아주는 데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3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5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어느 정도 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6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8	우리 부부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집안행사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0	우리 부부는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 부부는 자녀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1	2	3	4	5	
14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5	우리 부부는 자녀의 기상시간이나 취침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6	우리 부부는 방학이나 공휴일의 자녀의 시간관리에 어느 정도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7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 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9	우리 부부는 자녀가 TV시청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0	우리 부부는 자녀가 컴퓨터 이용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1	우리 부부는 자녀가 휴대폰 이용 때문에 다른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2	우리 부부는 현재 자녀의 식사 및 간식습관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외모(옷차림, 머리모양)에 대해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4	우리 부부는 자녀의 위생 혹은 청결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5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6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7	우리 부부는 부모가 자동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우리 부부는 자녀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 부부의 **자녀교육방식의 차이와 사교육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각 상황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느끼는 수준에 $\sqrt{\text{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계할 때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31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덕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32	내가 자녀를 야단치거나 처벌할 때 남편이(아내가) 종종 끼어들어서 짜증난다.	1	2	3	4	5
33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남편이(아내가) 봐주고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1	2	3	4	5
3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아예 훈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	1	2	3	4	5
35	자녀를 훈육하거나 처벌할 때 남편이(아내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	1	2	3	4	5
36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1	2	3	4	5
3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말보다 매를 먼저 들어서 화가 난다.	1	2	3	4	5
38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39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0	자녀교육비(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 힘들고 속상하다.	1	2	3	4	5
41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2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3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44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5	사교육 때문에 남편이(아내가) 집안행사에 자녀를 참석 시키려 하지 않아 화가 난다.	1	2	3	4	5	
4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사교육 시키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4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4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4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50	남편이(아내가) 자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여기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1	2	3	4	5	
5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일(학업, 친구, 고민, 관심사 등)에 대해 무관심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52	내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1	2	3	4	5	
53	남편이(아내가) 자주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기를 꺾어서 화가 난다.	1	2	3	4	5	
54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격려나 칭찬, 지지를 잘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5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5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1	2	3	4	5	
5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1	2	3	4	5	
5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9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6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을 알려고 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6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5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59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6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을 알려고 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6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62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화가 난다.	1	2	3	4	5
63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제멋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아 화가 난다.	1	2	3	4	5
6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남들과 비교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65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66	남편이(아내가) 정한 목표를 자녀에게 성취하도록 요구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67	남편(아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68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남편(아내)의 태도가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3.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부간 협력과 조화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각 상황에서 귀하께서 배우자와 갈등을 느끼는 수준에 $\sqrt{\text{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9	남편이(아내가) 내게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1	2	3	4	5	
70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	1	2	3	4	5	
71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남편이(아내가) 별로 개의치 않아서 속상하다.	1	2	3	4	5	
72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7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대화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7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1	2	3	4	5	
7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1	2	3	4	5	
76	남편이(아내가)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답답하고 속상하다.	1	2	3	4	5	
77	남편이(아내가)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1	2	3	4	5	
78	남편이(아내와) 자녀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일에 무관심하여 속상하다.	1	2	3	4	5	
79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80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1	2	3	4	5	
8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82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9>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50문항

<학업>

- Q4.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5.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6.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8. 우리 부부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집안행사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진로 및 적성>

- Q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0. 우리 부부는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 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시간관리>

- Q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건강·신체 및 외모관리>

- Q26.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사교육지원>

- Q38.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 Q39. 남편이(아내가) 남들이 한다는 사교육은 우리 자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
- Q41.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속상하다.
- Q42. 남편(아내) 자신이 원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 시키려 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 Q4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 Q44. 남편이(아내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고 해서 속상하다.
- Q4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사교육 시키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답답하고 짜증난다.

<훈육 및 체벌>

- Q31. 우리 부부는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덕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속상하다.
- Q37. 자녀를 훈육할 때 남편이(아내가) 말로 하기보다 매를 먼저 들어서 화가 난다.

<정서적 지지>

- Q4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 Q4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난다.
- Q4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 Q50. 남편이(아내가) 자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어기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 Q5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일(학업, 친구, 고민, 관심사 등)에 대해 무관심해서 속상하다.

- Q52. 내 남편은(아내는)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 속상하다.
- Q5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속상하다.
- Q5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 Q5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과잉간섭 · 통제 및 기대>

- Q5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소리해서 짜증난다.
- Q59.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 Q6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해서 짜증난다.
- Q6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답답하고 속상하다.
- Q62.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 Q63. 남편이(아내가) 자녀가 제멋대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통제하지 않아 화가 난다.
- Q6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남들과 비교해서 화가 난다.
- Q66. 남편이(아내가) 정한 목표를 자녀에게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고 속상하다.
- Q67. 남편(아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 Q68.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남편(아내)의 태도가 답답하고 속상하다.

<부부간 의사소통>

- Q69. 남편이(아내가) 내게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 Q70.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
- Q72.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다.
- Q7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역할분담 및 책임>

- Q7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 Q77. 남편이(아내가)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 Q79.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 Q80.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 Q8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 Q82.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부록 10>

50문항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4.885	49.769	49.769	24.510	49.019	49.019	7.403	14.807	14.807
2	2.689	5.379	55.148	2.240	4.480	53.500	7.027	14.054	28.861
3	2.217	4.435	59.583	1.886	3.771	57.271	6.871	13.741	42.602
4	1.500	2.999	62.582	1.161	2.321	59.592	6.401	12.801	55.404
5	1.198	2.395	64.977	.829	1.657	61.250	2.923	5.846	61.250
6	.915	1.830	66.807						
7	.791	1.583	68.390						
8	.766	1.532	69.922						
9	.732	1.464	71.385						
10	.683	1.367	72.752						
11	.670	1.339	74.091						
12	.629	1.258	75.350						
13	.612	1.224	76.574						
14	.593	1.186	77.760						
15	.528	1.057	78.816						
16	.504	1.008	79.824						
17	.496	.993	80.817						
18	.472	.944	81.761						
19	.463	.925	82.686						
20	.452	.903	83.589						
21	.434	.867	84.456						
22	.420	.840	85.296						
23	.410	.821	86.117						
24	.404	.807	86.924						
25	.382	.763	87.688						
26	.379	.758	88.445						
27	.364	.727	89.172						
28	.353	.707	89.879						
29	.331	.661	90.540						
30	.323	.646	91.186						
31	.314	.628	91.815						
32	.306	.612	92.427						
33	.293	.585	93.012						
34	.274	.548	93.560						

<부록 10 계속> 설명된 총분산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35	.270	.540	94.100						
36	.253	.505	94.605						
37	.244	.488	95.093						
38	.239	.478	95.571						
39	.238	.475	96.046						
40	.224	.449	96.495						
41	.213	.427	96.921						
42	.209	.418	97.339						
43	.194	.389	97.728						
44	.192	.385	98.113						
45	.179	.359	98.472						
46	.177	.354	98.826						
47	.165	.330	99.155						
48	.153	.305	99.460						
49	.143	.285	99.746						
50	.127	.254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Axis Factoring.

<부록 10 계속> 회전된 성분행렬

	Factor				
	1	2	3	4	5
Q11	.696	.110	.190	.193	.114
Q12	.694	.177	.151	.142	.108
Q9	.664	.246	.108	.201	.077
Q10	.649	.110	.154	.202	.117
Q5	.627	.142	.225	.165	.122
Q6	.626	.221	.242	.137	.037
Q4	.624	.190	.229	.120	.076
Q8	.611	.193	.197	.155	.058
Q7	.603	.233	.186	.206	.121
Q18	.576	.146	.213	.211	.186
Q29	.572	.176	.202	.134	.190
Q26	.513	.295	.121	.234	.211
Q31	.393	.190	.302	.270	.324
Q59	.273	.654	.321	.239	.175
Q62	.258	.651	.311	.248	.184
Q58	.305	.632	.281	.249	.157
Q61	.308	.630	.273	.304	.038
Q67	.255	.615	.229	.389	.171
Q60	.299	.614	.295	.362	.072
Q66	.274	.591	.213	.464	.156
Q55	.256	.581	.354	.156	.327
Q68	.246	.578	.290	.396	.171
Q56	.296	.567	.334	.182	.263
Q64	.200	.515	.287	.417	.231
Q57	.270	.455	.382	.162	.377
Q79	.285	.293	.705	.243	.161
Q72	.261	.218	.699	.199	.183
Q75	.260	.209	.696	.169	.199
Q82	.242	.250	.653	.152	.257
Q74	.320	.242	.648	.242	.218
Q81	.247	.360	.618	.254	.064
Q80	.236	.350	.602	.293	.016
Q77	.260	.245	.601	.123	.282
Q70	.302	.304	.599	.279	.108
Q69	.226	.403	.466	.400	.074
Q42	.207	.226	.185	.763	.162
Q43	.253	.227	.191	.756	.117
Q41	.250	.240	.171	.731	.115
Q44	.211	.219	.218	.728	.155
Q39	.248	.256	.162	.706	.112
Q38	.278	.308	.253	.599	.140

<부록 10 계속> 회전된 성분행렬

	Factor				
	1	2	3	4	5
Q46	.244	.217	.314	.474	.298
Q63	.277	.326	.341	.440	.151
Q37	.259	.342	.283	.348	.294
Q47	.270	.416	.322	.234	.544
Q51	.276	.152	.397	.266	.530
Q52	.292	.392	.379	.329	.502
Q49	.291	.435	.333	.324	.470
Q48	.247	.426	.326	.336	.458
Q50	.249	.310	.333	.283	.434

Extraction Method: Principal Axis Factoring.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7 iterations.

<부록 11>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44문항

<자녀교육내용 12문항>

- Q4.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사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5.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6.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7.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8. 우리 부부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집안행사에서 어디까지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것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0. 우리 부부는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 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6.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29.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사교육지원행위 6문항>

- Q38.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 Q39.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41.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42.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Q43.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 Q44.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자녀교육방식 16문항>

- Q47.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 Q4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고 화가 난다.
- Q4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 Q52.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 Q5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게 속상하다.
- Q5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 Q5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화가 난다.
- Q58.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 Q59.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속상하다.
- Q60.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을 알려고 해서 짜증난다.
- Q61.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답답하고 속상하다.
- Q62.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속상하다.
- Q6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남들과 비교해서 화가 난다.
- Q66. 남편이(아내가) 정한 목표를 자녀에게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고 속상하다.

- Q67. 남편(아내)의 기대에 차지 않으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 Q68.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남편(아내)의 태도가 답답하고 속상하다.

<협력적 자녀교육 10문항>

- Q69. 남편이(아내가) 내게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 Q70.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
- Q72.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다.
- Q7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 Q7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 Q77. 남편이(아내가)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 Q79.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 Q80.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 Q81.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 Q82.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하다.

<부록 12>

44문항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2.148	50.337	50.337	21.771	49.479	49.479	7.779	17.679	17.679
2	2.645	6.011	56.348	2.194	4.986	54.465	6.997	15.903	33.582
3	2.170	4.932	61.280	1.840	4.182	58.647	6.689	15.203	48.785
4	1.441	3.276	64.555	1.101	2.502	61.149	5.440	12.364	61.149
5	.961	2.185	66.740						
6	.879	1.998	68.738						
7	.772	1.754	70.492						
8	.692	1.572	72.065						
9	.688	1.565	73.629						
10	.652	1.481	75.110						
11	.594	1.350	76.460						
12	.565	1.284	77.744						
13	.543	1.234	78.978						
14	.494	1.122	80.101						
15	.469	1.066	81.167						
16	.467	1.062	82.229						
17	.457	1.038	83.267						
18	.425	.965	84.233						
19	.415	.944	85.177						
20	.409	.930	86.107						
21	.380	.863	86.970						
22	.377	.856	87.827						
23	.364	.827	88.654						
24	.342	.777	89.431						
25	.338	.767	90.198						
26	.319	.724	90.922						
27	.314	.713	91.635						
28	.308	.701	92.336						
29	.277	.631	92.967						
30	.262	.595	93.562						
31	.252	.574	94.136						
32	.248	.564	94.700						
33	.244	.555	95.254						
34	.234	.531	95.786						

<부록 12 계속> 설명된 총분산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35	.224	.509	96.294						
36	.219	.497	96.792						
37	.216	.491	97.283						
38	.203	.461	97.744						
39	.188	.428	98.172						
40	.185	.421	98.593						
41	.173	.393	98.986						
42	.166	.377	99.363						
43	.147	.335	99.698						
44	.133	.302	100.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Axis Factoring.

<부록 12 계속> 회전된 성분행렬

	Factor			
	1	2	3	4
Q62	.676	.258	.313	.237
Q59	.672	.273	.326	.231
Q55	.649	.263	.384	.146
Q67	.641	.254	.233	.380
Q58	.640	.306	.287	.244
Q66	.616	.275	.214	.452
Q56	.613	.301	.356	.174
Q68	.606	.249	.291	.381
Q60	.603	.301	.278	.347
Q61	.603	.306	.254	.296
Q64	.565	.203	.308	.402
Q47	.546	.289	.399	.220
Q49	.542	.309	.400	.313
Q48	.535	.264	.393	.318
Q57	.535	.278	.425	.158
Q52	.519	.310	.439	.319
Q11	.131	.701	.207	.192
Q12	.199	.696	.158	.137
Q9	.246	.668	.120	.204
Q10	.136	.652	.168	.198
Q5	.172	.628	.233	.161
Q4	.197	.625	.231	.115
Q6	.220	.624	.234	.125
Q8	.191	.612	.201	.153
Q7	.257	.604	.192	.196
Q18	.196	.574	.239	.203
Q29	.221	.573	.225	.127
Q26	.341	.516	.148	.229
Q72	.249	.261	.720	.193
Q79	.315	.286	.717	.235
Q75	.251	.263	.712	.157
Q82	.301	.244	.682	.150
Q74	.292	.324	.663	.226
Q77	.309	.265	.632	.112
Q81	.354	.243	.603	.252
Q70	.323	.300	.591	.266
Q80	.329	.231	.582	.294
Q69	.407	.225	.455	.393
Q42	.267	.213	.210	.762
Q43	.260	.256	.202	.748
Q41	.267	.253	.185	.732

<부록 12 계속> 회전된 성분행렬

	Factor			
	1	2	3	4
Q44	.264	.218	.237	.715
Q39	.280	.249	.174	.704
Q38	.332	.278	.271	.598

Extraction Method: Principal Axis Factoring.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ion converged in 7 iterations.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것으로서,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배우자와 경험하는 갈등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화롭게 부모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실제적인 부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옳고 그른 답은 없으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내에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강 옥 린(kor153@naver.com 010-2257-4616)

※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나,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1. 저는 (① 아버지 ② 어머니)입니다.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_____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① 주부

②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예: 최고경영자, 5급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③ 전문가/자유인(예: 교수, 의사, 교사, 연구원, 법률가,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등)

먼저,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입니다. 앞에 체크하신 한 명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귀하께서 느끼는 갈등(불쾌감, 속상함, 긴장감, 짜증, 말다툼 등) 수준에 ○, 또는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부는 자녀가 원하는 진로와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 부모가 어느 정도 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 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5	우리 부부는 자녀가 대학에 반드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6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7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8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9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0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1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2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4	우리 부부는 자녀의 학업 때문에 집안행사에 어느 범위까지 참여하도록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16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사생활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7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8	우리 부부는 자녀의 건강과 체력보강을 위해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9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능력이나 강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1	2	3	4	5	
20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2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22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23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24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25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1	2	3	4	5	
26	남편이(아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부모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27	남편(아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28	남편이(아내가) 아버지로서(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지 않아서 속상하다.	1	2	3	4	5	
29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관한 모든 일을 알고 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30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내 자녀가 잘하길 바라는 남편(아내)의 태도가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31	남편이(아내가) 내게 자녀에 대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2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1	2	3	4	5	
3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1	2	3	4	5	
34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35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화가 난다.	1	2	3	4	5	
36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1	2	3	4	5	
37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38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39	남편이(아내가)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해서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40	남편이(아내가) 나의 자녀교육방법을 존중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	1	2	3	4	5	
41	남편이(아내가) 정한 목표를 자녀에게 성취하도록 요구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42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남들과 비교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43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44	남편이(아내가) 어머니로서의(아버지로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1	2	3	4	5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14>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갈등 지각 척도

자녀를 키우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소한 일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문에 적용할 자녀 한 명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각각의 상황이 발생할 때 귀하께서 느끼는 갈등(불쾌감, 속상함, 긴장감, 짜증, 말다툼 등) 수준에 ○, 또는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5
1	우리 부부는 자녀의 시간 관리에 부모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2	자녀의 성적향상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남편이(아내가) 사교육(학원, 학습지, 개인과외)을 계속 시키려 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3	우리 부부는 자녀의 성취결과와 노력하는 과정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	우리 부부는 자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5	우리 부부는 남들이 하는 사교육을 우리 자녀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6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 선택시 무엇을 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7	우리 부부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8	우리 부부는 자녀가 지치고 힘들어 해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9	우리 부부는 주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0	우리 부부는 자녀의 진로설정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1	자녀의 능력, 개성, 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려는 남편(아내)에 대해 답답하고 짜증난다.	1	2	3	4	5	
12	우리 부부는 자녀의 공부를 위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사생활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 부부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교육을 자녀에게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14	남편이(아내가)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15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말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16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잔소리해서 짜증난다.	1	2	3	4	5	
17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개성을 인정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18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대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19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은 당연히 엄마의 몫이라고 여겨서 화가 난다.	1	2	3	4	5	
20	남편(아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녀를 다그치고 압박해서 속상하다.	1	2	3	4	5	
21	남편이(아내가) 자녀의 감정이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속상하다.	1	2	3	4	5	
22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합의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해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	1	2	3	4	5	
23	남편이(아내가) 자녀교육에 대해서 아버지·어머니 역할을 구분하려고 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24	남편이(아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길 바래서 화가 난다.	1	2	3	4	5	
25	남편이(아내가) 자녀에게 짜증이나 화를 잘 내서 속상하다.	1	2	3	4	5	
26	남편이(아내가)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화가 난다.	1	2	3	4	5	
27	자녀교육에 애쓰는 나에게 남편이(아내가)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28	자녀교육에 대한 나의 역할을 남편이(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아 속상하다.	1	2	3	4	5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 단 2:23 -

논문이 나오기까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